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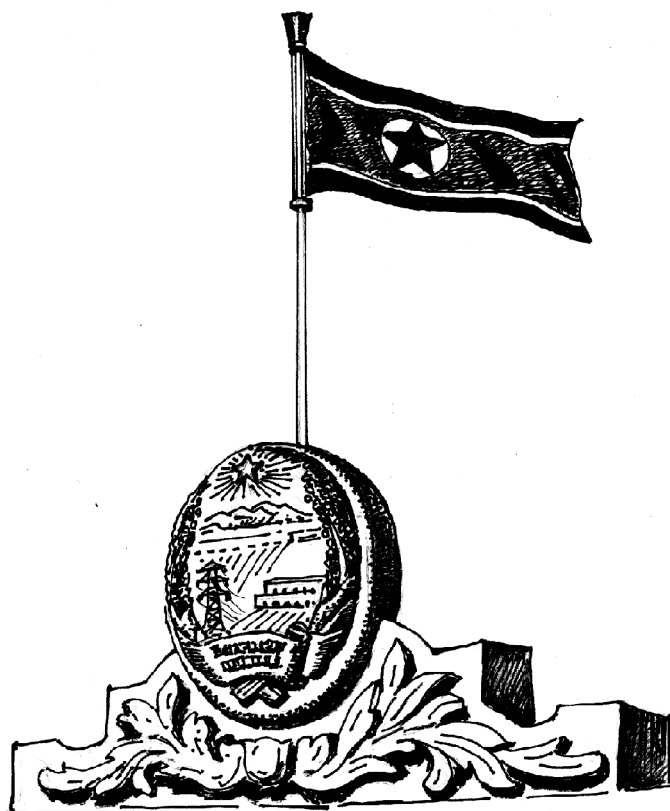


9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9호

(루계 제791호)

특간호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
에게 의지하여 우리 식, 위대한 장군님식으로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 천하제일강국을 보란
듯이 일떠세울것입니다.》

김 정 은

차 례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을 수여받은 작품

△	7. 27행진곡	(5)
노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6)
래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7)
▽	위대한 전승의 명절	(8)

65년 (송가) 정 두 국(9)

태양송가(시) 김 형 준(10)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11)

《애국가》(시) 리 명 근(11)

단편소설 우리의 계승 윤 정 길(12)

고 향 엄 성 영(26)

주체문학의 대강 (25)

시	영광을 드리노라	서 진 명(22)
	내 조국의 푸른 하늘	박 상 민(25)
	수령님과 땅	박 정 애(34)
	조국을 노래할 때	주 명 옥(34)
	어머님과 진달래	박 철(35)
	어머님께 꽃을 드리며	문 동 식(41)

보통강반에 펼치신 인민사랑의 (평론) 리 창 유(36)
거룩한 서사시적화폭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
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김 정 은

단편
소설

샘물은 땅속에서 솟는다 안 명 국(43)

내 고향의 풍경 송 혜 경(57)

침묵 김 달 수(67)

수
필

마식령마루에서 조 인 영(54)

◇ 시 ◇

아, 미래 조 광 철(40)

이 병사가 내 딸이요(가사) 김 경 석(41)

월수님 모시고 찍은 사진 송 명 근(42)

또 오셨습시다 김 영 일(42)

내 만일... 엄 정 호(53)

아이들이 밤동산에 오르오 박 정 철(55)

대화봉의 해돋이(벽시초) 류 명 호, 최 주 원, 장 일(56)

천하명산 묘향산(2)(산수시초) 함 영 근(65)

시대정신을 구현한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창조하자 (평론) 박 춘 택(76)

조벽암의 시작품에서 시적화폭(소개) 김 향 금(79)

격 언.....(52) 상 식(53)

표지2면: 《이 땅에 밤이 깊어갈 때》(노래)

표지3면: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이자!》(선전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삼가 드린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을 수여받은 작품

7. 27 행진곡

보무당당히 씩씩하게 (♩=126)

작사 차호근

작곡 조경준

mf A^b Fm B^b_m D^b/C^b

1. 발 걸음도 높이 활 개 치며 가자 7 2 7 이

C_7 D^b B^b_m

다 로 병 들 과 함 께 군 악 소 리 맞 춰

B^b_m A^b/C B^b_m/D^b B^b_7/D E^b_7 A^b

행 진 해 가 자 미 국 놈 이 바 친 항 복 서 를 밝 고

A^b B^b_m A^b_7/C D^b B^b_m A^b/C

지 나 온 광 장 - 동 무 여 힘 차 게 힘 차 게 (후렴)

B^b_m6/D^b B^b_{dim} A^b A^b_{dim}/C^b B^b_m E^b_7 A^b f F_7

힘 차 게 - 지 축 을 울 리 며 나 가 자 승

B^b_m E^b A^b C_7 Fm F_7

리 승 - 리 승 리 의 7 2 7 더 높

B^b_m E^b A^b E^b E^b_7 A^b

이 떨 치 자 - 위 대 한 조 선 의 승 리 를

2. 수령님의 명령 위훈으로 빛낸 훈장을 보라
 침략자의 기발 불태우며 더친 축포를 보라
 승리위해 싸운 용사들은 우리 부모들이다
 동무여 경례를 경례를 경례를 세대를
 이어서 드리자
 (후렴)

3. 전승광장 지나 노도치는 행진 멈추지 말자
 조국통일광장 열병식을 향해 곧바로 가자
 당중앙을 따라 발걸음을 맞춰 보무당당히
 동무여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후렴)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을 수여받은 작품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박력있게 (♩=117)

작사 한태준, 정예남
작곡 조정준, 현은철

mf F#m Bm E7 A C#7

1. 이 땅을지켜 목숨바친 용사들은살-아있 다

(후렴)

F#m Bm6 D E C# *f* E7

미제들이긴 그정신은 후손들의넋을키운 다 위대

A E7/G# Bm B9/D# E7

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

A D A/E E A

를 드린다 경의를 드린다

2. 몸으로 막은 화점들과 파편자리
력력한 기발
결전의 모든 낮과 밤을 우리들은
잊지 않는다
(후렴)

3. 수령님따라 승리떨친 그 전통은
영원하리
당중양따라 대를 이어 영웅조선
빛내가리라
(후렴)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을 수여받은 작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작사 리지성
작곡 남 철

정서깊게 (♩.=72)

1. 승 - 리 위 해 - 뿌 렸 - 던 용 사 들 의 - 더운 피 를
땅 - 에 묻 어 - 들 수 없 어 저 하 늘 에 - 빛 내 는 가 - 축 포 여
너 는 - 용 사 들 위 해 - 수 놓 - 은 꽃 다 - 발 - 축 포 여
너 는 - 용 사 들 위 해 - 뿌 리 - 는 꽃 보 - 라 - 말 하
라 - 전 승 의 축 포 여 - 승 리 는 영 원 히 조 선 의 것 이 라 고

2. 멸적으로 비발치던 탄알들이 어려오고

가슴으로 막았던 화점들이 비껴오네
축포여 너는 용사들 녀을 빛내는 별무리
축포여 너는 용사들 위훈 새기는 훈장메달
말하라 전승의 축포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라고

3. 온 누리를 물들이는 승리의 천만불꽃

당을 따라 백승해갈 우리 심장 불태우네
축포여 너는 우리의 명절 떨치는 불보라
축포여 너는 우리의 승리 전하는 금문자
말하라 전승의 축포여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라고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기념훈장을 수여받은 작품 위대한 전승의 명절

작사 차호근
작곡 현경일

공지와 감격에 넘쳐 (♩=120)

mf *Fm* *B^bm* *E^b7*

1. 로병 이 란 - 그부름 을 승엄 하 게 - 안고 사

A^b *D^b* *B^bm*

는 후손 들 의 - 꽃 다 발 이 전승

C7 *Fm* *f* *F7* *B^bm* *E^b7*

탑 을 - 감싸 안 네 경 례 성스런

A^b *C7* *Fm* *C7* *Fm* *F7*

경 례 위 대 한 - 이날에 드 린 다 당

B^bm *E^b7* *A^b* *C7* *Fm*

과 -수령을 따 라 안 아 온 전승의 명 절

2. 탄피쌓인 싸움터와 육박전의 총창들이
환희로운 축포속에 눈물겹게 어려오네
영광 값높은 영광 위대한 이날에 드린다
당과 수령을 따라 떨쳐온 전승의 명절

3. 목숨바쳐 조국지킨 그 정신은 살아있어
승리에서 승리로 세월넘어 이어지네
맹세 계승의 맹세 위대한 이날에 드린다
당과 수령을 따라 이어갈 전승의 명절

송 가

6 5 년

정 두 국

9월의 이 아침
우러러 목매여 불러보노라
빛나는 65년의 세월을 안고
력사의 한복판에 존엄높이 우뚝 솟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나의 조국이며

《애국가》의 노래 울려퍼지는
맑고 푸른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발을 띄우며
온 세상에 고고성을 터친
1948년 9월 9일 이날 조국은
수령님품에서 태어나 첫걸음을 땀어라

하여 그대의 앞길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 계시여
영광의 년대들을 조국은 지녔다
전화의 고지들을 승리로 넘으며
전후의 재더미를 웃음으로 날리며
천리마로 세기를 주름잡으며...

그날에 조국은 또
얼마나 큰 행운을 지녔던가
또 한분의 백두령장을 모시여
총대로 제국주의를 다스리며
선군조선의 억년기둥을
백두의 하늘가에 높이 세웠거니

숨진 공장파 불꺼진 거리를 두고
아픔에 잠 못들던 고난의 그날
수령님 맡기신 조국을 지켜
이 땅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마저
가슴에 꼭 껴안아
심장의 더운 피로 덮혀주신
철세의 애국가 **김정일**동지

오, 조국이며
김일성, 그이의 존함으로 성스럽고
김정일, 그이의 존함으로 존엄높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65년이며
말하라 9월의 이 아침이
정녕 어떻게 이 땅에 밝아왔는가를

우러르노라 대원수님들의 축복어린
9월의 저 푸른 하늘을
그러면
하늘 가득 어려오는 존귀하신 영상
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말해다오 조국이며
섬초병들과 최전연병사들이 떨군 더운 눈물로
창천거리에 흐르는 행복의 불빛으로
야영소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으로
조국위해 바치신 그이의 낮과 밤을
대원수님들께 바치신 그이의 충정을

우리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처럼
불같이 조국을 사랑하시고
인민을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우리의 **김정은**동지
그렇다! 그이의 품은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영원한 품!

9월의 이 아침
이 나라의 한 공민으로 나는 웨친다
김정은동지 계시여 내 조국의 65년은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천년... 만년...
그 무궁한 세월과 더불어
영원불멸하리라!



태 양 송 가

김 형 준

수백수천년세월을 두고
인간이 사는 땅우엔
성지로 불리우는 곳 많아도
태양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의 성지는 오직 하나
금수산태양궁전

참된 삶과 자유와 행복에 목마른 인생들이
순간의 안식을 찾아
속죄의 거불을 밟으며
사막의 모래언덕 넘어 찾아가던
머나먼 길 그 한끝의 성지엔
낮보다 밤이 더 길었다

모래바람에 피를 말리우며
머나먼 성지를 찾아
손이 닳도록 빌고빌었어도
운명에는 영원한 순종과 복종
삶에는 영원한 천대와 멸시
성벽우의 태양은 차고 어둡기만 하였다

따사로운 운명의 태양이 그리워
밝은 래일의 빛이 그리워
불모래에 고랑파던 지겨운 걸음들이
침침한 침탑아래 시들던 인생들이
태양을 빛을 삶을 찾아와 안기는
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성지엔 태양이 있어야 한다
성지엔 태양이 빛나야 한다
태양없인 꽃필수 없고
태양없는 참된 삶 있을수 없기에
여기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 하늘가엔
인류의 태양 만복의 태양 찬란하거늘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밝게 웃으시며
인민이 나갈 앞길 밝히시는 태양
언제나 인민들을 찾으시여
그들의 소원도 념원도 풀어주시는 태양
그이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대원수!

그렇다
정녕 태양이시였다
태양이 이 행성을 거느리고

삶의 터전에 빛을 뿌리기 시작한 그날부터
자기의 열과 빛을 모두 주어
만물의 령장이라 칭송받듯

어둡던 강산에
주체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그날부터
애국의 빛으로 광복의 새봄 안아왔고
애민의 열도로 삶을 꽃피워주시며
한평생 사랑만을 주신 대원수님들의 좌우명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이민위천!

김일성, 김정일

태양, 영생은 하나의 의미
대원수님들의 모습은 태양
태양은 대원수님들의 모습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빛나는
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이어!

여기에서 끝없이 펼쳐진 하늘아래
삶을 깃들인 인생은 영생하리
여기 트랙에서 시작된 길을
삶의 길로 정한 인생은 자신과 세계의 주인
여기에서 그려보는 먼 앞날의 꿈조차도
현실로 눈앞에 환히 볼수 있나니

언제나 인민의 마음속에 솟아
영원히 빛을 뿌리는 삶의 태양
그 빛발 따라가는 천만리길에
폭풍이 세차도 두려움 모르고
눈보라 세차도 추위를 모르며
마음은 언제나 따사로운 봄날

그 밝은 태양아래 걸어온 자욱자욱은
원수님 이끄시는 내 조국의 력사로 이어지고
그 밝은 태양아래 걸어갈 자욱자욱은
원수님의 령도로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려니
여기에서 다지는 충정의 선서는
영원한 태양을 받들어갈 일편단심

오! 태양의 무궁한 빛발로 누리를 밝히고
태양의 무궁한 열도로 자주화의 새봄을 가꾸며
하늘이 열리고 땅이 시작되는
하늘아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김정은시대와 더불어
천세만세 영원히 솟아 빛나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립문들에는 눈물에 젖은 리별의 사연이 있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에 대한 목메인 그리움과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제자매들이 조국광복의 제단에 생명을 바치였다. 우리 민족이 피와 눈물과 한숨의 바다를 넘어 포연탄우를 헤치며 조국을 찾는다는 실로 서른여섯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리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혈전의 서른여섯해였다. 그러나 그런 혈전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조국을 상상이나 할수 있겠는가.》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는 법이다.》

《 애 국 가 》

리 명 근

해방된 조국에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에
애국의 마음 다발로 엮어
인민이 드린 노래
《애국가》

꿈속에도 그 노래 안고살아
나에게서 한시도 떠난적 없고
어디서나 그 노래 부르면
저도 몰래 눈시울 젖어드는
조국사랑의 노래여

우리 수령님 항일의 혈전만리
한시도 못 잊으신 조국이였기에
그리도 소중히
그리도 뜨겁게
사랑담아 올려주신것 아니더나
저 푸른 하늘가에

조국에 대한 사랑 없이는
정녕 들을수도 부를수도 없는 노래
진정 그 노래 품고산 가슴들은
애국자의 삶을 값높이 빛내였거니

우리 장군님 한평생
애국의 정과 열을 다 바쳐
빛내이신 노래
크나큰 심장에 안고살아
이 땅에 남겨주신 **김정일**애국주의!

하기에 《애국가》는

노래이기 전에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고
조국에 바친 헌신이었고
조국을 위한 삶이 아니었던가

어린시절 내 작은 가슴에도
그 노래 부를 때면 가슴 울렁이여
조국에 대한 사랑
뽕뽕마냥 움트게 하였더라

초소의 아침 전호가에서
수호자의 긍지를 안고
마음속에 불러보던 노래
로동의 일터에서 근로의 땀방울을
《애국가》에 실어보던 행복

정녕 내 지금껏
《애국가》와 헤어진적 있었던가
걸음걸음 나와 함께 살아
나를 부르며 떠밀어주며
조국사랑을 뉘속에 새겨준 노래여

조국에 바친것 없이는
그 노래앞에 뗏뗏이 설수 없고
조국에 바친것 큰것만큼
그리도 자랑높이 불러보는 이 노래

나에게 오늘도
우리 원수님 애국의 발걸음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새겨주며
《애국가》는 애국의 숨결되어 울린다
아, 조국사랑의 송가 《애국가》여!



우리의 계승

윤 정 길
그림 김광석

1

한해중에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날 아침이었다. 늦은 아침까지도 하늘땅사이의 거대한 공간에 웅크리고있던 칠칠어둠이 드디어 쫓겨여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간밤 꾸짖히 내린 흰눈으로 은빛세계를 펼친 누리가 황홀한 자태를 드러냈다.

능금처럼 주렁진 가로등우에도, 실한 가지들을 창공에 기세좋게 뻗친 가로수에도 소담한 흰눈이 럽치좋게 올라앉았고 눈아래 굽어보는 소총아빠트들은 도두룩한 눈모자를 썼다.

얼마전까지만도 이런 아침이면 일곱살잡이 손자 애너석을 데리고 혈근씨근 아빠트층계를 내려 솟 눈길달리기의 특이한 쾌감을 즐겨보았을 오성권이였다.

북방의 산골태생이여서 그런지 솟눈에 발목까지 푹푹 물으면서 달음질칠 때면 정열과 희열이 심신에 끓어올라 젊음을 되찾는듯 했다.

하건만 오늘은 그럴 흥심이 나지 않아 덤덤한 기색으로 룯색창가림천이 치렁히 드리워진 창가에 말뚝처럼 박혀서서 하염없이 밖의 세계를 관망할뿐이였다.

《창밖구경에 혼이 쑥 나가셨수? 죽이 다 식겠수다, 원.》

밥상을 챙겨놓은 마누라가 벌써 세번째로 하는 지청구였다.

젊어서는 남편에게 군소리할줄 모르던 마누라였던만 여든고개를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는 이처럼 살가운 지청구가 많아졌다. 세월은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것이다.

오성권은 스적스적 창가에서 물러났다. 마누라의 잔소리에 이끌리기도 했지만 까닭없이 착잡하고 산란해진 마음이 더는 달랠수 없는것임을 깨달은것이였다.

길동그런 밥상우에는 동지죽 두그릇이 모락모락

흰김을 피워올리고 한겨울에 도전이나 하는듯 푸른진채며 시금치무침까지 곁들여놓였다.

성권은 무겁고 불안스러운 속마음을 드러내보이는게 싫어서 짐짓 현현한 표정을 짓고 밥상머리에 다가앉았다.

《눈이 많이 내리니까 어릴적 마음이 되살아나서 그래. 로친네, 생각나지 않소?》

《뭐가요?》

마누라가 순하게 생긴 눈을 들었다. 잔주름이 무척 많이 건너갔으나 나이에 비해선 살결이 아직 솟부드러운 얼굴에 성냥가치도 올려놓을만큼 남달리긴 눈섭이 휘여올랐다. 그 눈섭만은 고왔던 한창나이적 그대로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면서 눈굽이 후터워오르는것이였다.

《옛날 고향서 자랄 때 말이요.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오면 우리 사내애들은 눈썰매를 끌고 소록산에 오르곤 했지. 언제였던가? 당신 내 썰매 타겠다구 억지를 부리던게... 그때두 동지달이였던것 같애. 날도 밝지 않은 어둑새벽에 당신 나를 따라나서지 않았댔소. 그 시절엔 몽당치마바람으로 사내애들 찹찌먹게 눈판을 드달려다니던 당신이었지. 현대 인젠 눈만 오면 손발이 시려하거던. 그것만 봐두 늙었어. 사람이 늙는건 어쩔수가 없는거지, 어허허...》

그런 시절이 있었다. 민들레꽃 뜯어들고 뛰놀며 친친란만했던 그 시절 한마을태생인 그들내외는 소꿉놀이도 같이하면서 함께 자랐다. 처마를 맞대고 사는 두 집식구들은 한가정처럼 지냈고 어린 소년 소녀의 마음속에는 썩 후날 불같은 련정으로 번져진 자별한 우정이 싹텄다.

마누라도 회억이 깊은지 큰 눈을 습벅거렸으나 말투는 역시 지청구에 가까웠다.

《에그, 언제적 일을... 장난꾸던 그때처럼 갱소년하구싶어서 아침부터 눈구경에 정신을 홀 파겠수?》

《허, 그게 어드래서! 갱소년하면 제일 좋아할건 로친네일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마누라의 기분도 어지간히 동뜨는것 같았다. 머느리가 손자애를 데리고 친정나들이 간 뒤로 닻새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속이 알알해하더니 이 아침의 한번 익살에 늙은 내외의 정분을 새삼스럽게 느낀 모양이다.

《그럼 어서 그렇게 하슈. 동지죽은 오그랭이가 보약이 된답데다. 오호호...》

팔몰이 진한 죽구릇속에 수수와 찹쌀로 빚은 은행알처럼 동글동글한 오그랭이들이 다문다문 이마를 내밀고 구미를 한껏 돋겨준다.

아들내외와 손자녀석까지 없어서 별스레 설렁한 집안이다. 그때문에 마음이 설퐁해도 일부러 기꺼웁게 수저를 들던 성권은 문득 생각키우는것에 저으기 놀라며 두눈을 덩그러니 치켰다. 오늘 아침 지방출장을 떠나기 전에 꼭 집에 들리겠다던 아들의 전화생각이 났던것이다.

《로친네, 아애비가 들어오겠다 했는데 뭐이 그리 바빠서 조반을 서둘렀나? 차라리 좀 더 늦잠을 제지, 쯔쭈...》

마누라는 호- 한숨을 내쉬었다.

《못 오겠대요.》

《못 오다니?! 엇저녀에 전화질을 해놓고선?》

《신새벽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시다. 바쁜 일이 생겼다니봐요. 부서에서 곧장 떠나겠대요.》

그제야 오성권은 이른아침부터 마음을 불안케 하던것이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아들 덕찬이로 하여 생겨난 일이었다. 아니, 아들에게 굴절되어 현시된 그것, 인간생활에 무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때문이었다.

한생을 군복입고 살아온 오성권은 나라의 군사과학리론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해왔다는 자부심이 남달랐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작전과 대전대포위전, 락동강도하작전을 비롯한 여러 전투들에 참가하였던 실전경험은 한생의 긍지였고 과학연구사업의 밑천이었다. 그런데 성벽갈던 그 자부심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들의 성장과 더불어 시작된것이었다.

우리 나라 군사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하고 연구원과정까지 뛰어나게 거친 아들이 실천적인 경험을 터득할수 있는 여러 직무를 력임하면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것은 몇해전의 일이었다.

거목처럼 자라는 아들을 두고 오성권의 가슴은 얼마나 부풀어올랐던가.

선대들이 마련해온 공적의 탑을 대를 이어 높이 쌓아갈 끝끝한 후대를 두었다는 흥분으로 며칠밤을 새웠는지 모른다.

덕찬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발기밀에 지난해 이맘때쯤 시작된 현대전쟁에 관한 리론적연구와 그에 대한 도서편찬사

업을 아들이 책임지게 되었을 때 오성권은 무한한 희열과 행복감을 맛보았다.

군사학리론분야에서 국보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화수호의 보검인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는 그것은 단순히 한편의 도서편찬발행으로 그치는 일이 아니었다. 리론은 실천의 기초로 되는것이다. 하여 총참모부적으로 사업조직이 되고 군사과학연구의 거점인 연구소와 군사부문 출판사의 능력있는 일군들까지 보충적으로 인입되어 편찬조가 무어졌는데 그 책임자의 중임은 쟁쟁한 박사인 오덕찬에게 맡겨졌다.

최첨단과학기술지식에 불타는 정열을 겸비한 인재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덕찬은 부서에서 침식하면서 불과 한해만에 자료작업과 원고집필을 기본상 끝내었다. 물론 연구집단을 이끌고 현지확인파 자료확증을 위해 지금도 드달려다니며 고심하고는 있지만 작성된 원고는 벌써 전문심의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오성권은 가슴을 조였다.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았지만 과연 기본선에서의 탈선이 없겠는지?! 그래서 며칠전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넌지시 물었다.

《다른게 없겠냐? 원고를 내 한번 볼가?》

다심한 정과 사려가 담긴 그의 눈길을 아들은 심드렁하게 대했다.

《아버지, 너무 마음쏠건 없습니다. 우리 젊은 이들이 어련히 해내지 않을까요. 건강상태도 시원치 못한데 무리하지 마시고 몸조리를 잘하십시오.》

전쟁때 입은 부상의 후유증이 또 말썽을 부려서 한해가 넘도록 큰 병원에 입원했다가 얼마전에 퇴원한 일을 녀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다.

덕찬은 금박으로 찍은 글자가 번들거리는 경옥고와 인삼정과단지를 가방에서 꺼내놓았다. 그러나 그런 값싼 동정과 위로에는 지금까지 습관되지 못한 성권이였다.

《음-》

군사과학연구사업은 그가 오랜 기간 심혼을 바쳐온 일이었다. 건강상태와 연령상의 사정으로 몇해전부터 연구소 부소장직무를 내놓고 뒤전에 물러앉았으나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의 인식과 관록때문인지 중요한 심의가 제기될 때마다 심판진소장은 후보원사이며 교수, 박사인 오성권을 아직도 대사업의 주례잡이처럼 여겼다.

그런데 아들녀석은...

《거참 고맙구나. 이제 늙은이의 간참이 싫다는 소리렸다?》

여간지 않은 노여움이 빈정기가 다분한 그의 어조에서 풍겨났다.

이즈음에 아들은 어떤 일에는 자신이 있다는 식의 태도가 여느때없이 당당해졌는데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심은 좋은것이지만 왜 그런지 오성권에

게는 빈번히 야릇한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지나친 도교성은 쉽게 교만성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고까움이 쉽게 삭을 것이 아님을 직감했는지 덕찬은 잠시 숙이었던 머리를 쳐들었다. 하관이 빠른 얼굴에 굵실굵실한 반고수머리는 주건이 강하고 고집스럽기까지 한 성미와 잘 어울렸다.

《아버지, 왜 그런 옥생각을 하십니까. 정 그러시다면 털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시대는 발전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오지요. 특히 최근 세계적인 군사과학의 발전상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무장장비들의 갱신 주기가 보다 짧아지고 그에 따라 전법도 계속 변화됩니다.》

이번의 도서는 변화발전한 새 세기의 요구에 따라 편찬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성과 각종 비행기와 미사일들 지어 핵수단까지 포괄하는 최신전투기술기재들이 활용되는 현대전쟁을 어떻게 재래식대포나 땅크에 국한되던 전쟁과 대비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필요이상의 과중한 짐을 얹어드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필요이상?!)

지나치게 직선적인 무시를 느꼈으나 성권은 할 말이 없었다. 분격보다도 허탈감이 먼저 엄습해들었다.

두툼한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는 아버지의 흰머리를 지그시 바라보며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씹던 덕찬은 피로운 눈길을 떨구며 나직이 뇌었다.

《용서하십시오.》

성권은 짜증을 냈다.

《용서할게 뭐이 있다가, 알겠대!》

불패한 화제를 그것으로 대범하게 동강내버렸다. 원래 그는 음니암니하는 성미가 아니었던 것이다. 했으나 마음속은 단가마에 물 부은듯 빠직빠직 끓었다.

(그러니 재래식전쟁경험으로 현대전쟁리론을 론할 수 없단 말이지? 전방진 녀석!)

이후에는 그렇게 따분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 성권은 시쁜 감정을 잊으려고 애썼고 아들은 아버지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긴 늘 바빠서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는 덕찬이다보니 부자간에는 감정교감이 이루어질 기회조차 없었다.

《정월부터 설날까지 늘 집 나가있는 그 애한테 한해 한번 먹는 동지죽은 꼭 먹이자구 별렀더니만.》

마누라의 푸념이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아들은 다 큰 어른이 되어도 애지중지 보살피주고만 싶은 자식인 것이다.

성권은 그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손을 뉘뉘 내저었다.

《에에— 다 쓸데없어. 그녀석 가뜩이나 코대가 높아져서 허파에 바람 들었는데 죽까지 먹여놓으면 물렁팔죽이 돼.》

마누라는 기이한 물건이나 본듯 두눈을 크게 뜨고 한참 건너다보더니 한무릎 다가앉으며 대들었다.

《령감,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웬 뒤욕질이요? 동지죽에 떡감이 든다는걸 모르시우? 물렁팔죽이란 건 또 무슨 소리요? 젊은게 아버지 닮아서인지 책임자노릇 그만하면 잘한다구 다들 칭찬이던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소. 자식은 걸을 닮지 속을 닮는게 아냐. 이거야 속이 상해서 어디... 예익! 바깥바람이나 쐬야지 답답해 못 견디겠군.》

예전에 없이 울뚝해서 수저를 놓아버리고 일어서는 남편의 도도한 기상에 당혹해난 마누라는 매여달리듯 그의 팔을 부여잡고 늘어진다.

《창밖구경이 성차지 않아서 두억시니도 얼어죽을 이 추운 날 바깥구경이요? 그만두시우, 건강치도 못한 몸인데... 그렇잖아도 아예비가 새벽전화로 걱정합디다. 전쟁때의 부상자리가 또 도지지 않게 눈길달리기랑 제발 그만두게 하라구. 아, 지금 두 눈썹매 탈 때하구 같은줄 아는게 아니시우? 어서 식살 하시구 애들이 걱정하지 않게 경옥고랑 인삼정과랑 또 건너지 말구 잡수시라구요.》

마누라의 사설은 들은듯만듯 성권은 끝내 집을 나갔다. 꼭 다녀와야 할데가 있어서도 아니었다. 집안에 불박혀있어야 허전한 마음이나 덧칠것 같고 더구나 마누라와 말씨름하고있을 생각이 없어서였다.

현관을 나서니 해빛아래 펼쳐진 흰눈의 세계에 눈이 부셨다. 그는 두눈을 쪼프리고 멀리 큰길쪽을 바라보다가 성큼 발을 내짚었다. 뽀드득뽀드득 정갈한 눈가루가 발밑에서 기분좋은 소리를 내었다. 이마가 얼얼하도록 맵짠 동지추위의 찬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며 삽시에 온몸이 거뜨해졌다. 하이얀 눈이불을 들썩 산과 들, 하늘아래 가없는 순결의 세계는 마음마저 상쾌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지나간 초가을에 이웃들과 함께 심어놓은 길거리의 감나무들을 한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버짚으로 두툼하게 보온해주는 것이었지만 이 추위에 얼어죽지나 않겠는지...

한그루한그루 들여다보며 걸어가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번거로운 상념에 빠져들다보니 벌써 동리아근을 두바퀴째 돌고있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볼썽 마음의 한구석에 밀려나있던 아들에 대한 생각이 산골눈석이때의 눈무치처럼 사태쳐내렸다.

(뭘뭘? 재래식전쟁으로 안된다구?)

마누라에게는 손톱눈만치도 내색을 안했지만 생무우 먹고 체한것처럼 억한 심정이었다. 맞대놓고 아들을 탓할수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괴롭혔다. 아들에게는 너무도 명명백백한 논리가 있는 것이다.

시대는 얼마나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는것인가!
나라의 막강한 국력을 상징하는 우리 군대의 무장
장비수준은 또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

그 자랑스런 현실에서 가슴벅찬 환희와 긍지를 느
끼면서도 오성권은 어쩔수없이 찾아드는 로쇠의 서
글픔을 맛보게 되는것이였다.

(성 쌓고 남은 돌이라는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만...)

제풀에 마음이 달아오른 그는 두손으로 길가에
쌓인 깨끗한 눈을 한웅큼 퍼들고서는 얼굴을 마구
문질렀다.

양중스러운 고깔모자가 달린 빨간 솜옷을 곱게
차려입은 귀여운 유치원생처녀애의 손목을 쥐고 스
쳐앞서가던 녀인이 의아한 눈길로 그를 돌아보았
다. 웬 할아버지이길래 저러시나 하는 젊은 녀인들
특유의 다심한 관심이 엿보이는 시선을 감촉하자
오성권은 제스스로 면구스러워나서 으흠— 헛기침
을 하며 탁탁 소리나게 손을 털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체험하
게 되는게 이런 심정일제다. 그러니 타내지 말아야
해. 덮어놓고 젊은 사람들을 탓할 일이 아니야. 늙
으면 노여움이 많아진다더니... 내가 그날 그 애한
테 너무했던가봐.)

그렇게 생각하니 어지간히 웅쳤던 마음이 좀 풀
리는것 같았다.

눈길우에는 이미 술한 발자국들이 찍혔다. 크
고작은 그 발자국들의 주인들은 저마끔의 일거리
를 안고 걸음을 재촉하며 말은 초소로들 출근했을
것이다.

(오늘 이 길의 숫눈우에 첫자국을 찍은 사람은
누굴가?)

어이없게도 불쑥 이런 호기심이 일어났다.

젊어서 한때는 오성권 그가 숫눈길의 첫사람이
되곤 했던 길이다. 오늘은 그를 앞서 술한 사람들
이 걸어갔다.

(그래그래, 지금까지는 우리 세대가 시대의 숫
눈길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후대들이 앞서가고있
다. 수고많은 그네들한테 짐이 되지 말고 진정으
로 고무격려해주는게 늙은 우리 세대에게 남은 몫
이지.)

그는 자기자신을 납득시키고싶어 마음속으로 고
집스럽게 되뇌이면서 스택스적 걸음을 옮겼다. 크
고작은 발자국들우에 그의 발자국이 덧찍혀졌다.
그렇게 오성권을 비롯한 전세대의 인생만년이 흘
러갈것이였다.

《엄마! 잘 가세요!》

목금소리처럼 또랑또랑 울리는 목소리에 그는 고
개를 들었다. 원형무지개때에 여러 종이의 해바라
기가 곱게 그려져있는 유치원정문가에서 방금전에
앞서간 처녀애가 제 어머니에게 손목을 까딱하며
소리친것이다. 그 애의 손에는 어른의 주먹보다도
큰 구운 감자알이 수류탄처럼 쥐여져있었다. 간식

으로 어머니가 들려준 모양이였다.

녀인은 그런 순간에 어머니된 행복감을 사뭇 느
끼게 되는 모양 함박같은 웃음을 머금고 한참이나
손을 흔들어준 다음 갈길을 재우쳐간다.

길가에 털맞취 늘어선 감나무들도 다정한 그들이
부러운듯 소슬한 바람결에 가는 가지를 저었다.

뒤집을 지고서서 그 모습을 이윽도록 지켜보던
오성권은 새삼스러이 번뜩이는 생각에 몸을 가볍게
떨었다. 처녀애의 손에 들려진 감자를 보니 못 잊
을 사연이 깃든 소중한 추억이 제방뚝을 넘어선 해
일처럼 밀려왔다.

머나먼 북방의 출장길에서 친근하신 **김정은**동지를
만나뵈옵던 몇해전의 감격이 또다시 그의 가슴을
후덥게 달구어주는것이였다.

왜 이런 때 불쑥 그 추억이 밀물쳐오는것인지?!

2

그날도 오늘처럼 눈이 많이 내린 아침이였다. 작
전전술학에서 취급되는 지형들을 현지에서 확인하
기 위해 오성권과 심광진소장은 북부내륙지대의 산
지를 편답하고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께서 현지지도하시는 단
위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이 출장나와있다는것
을 아시게 되자 바쁜 시간을 내시여 차머리를 돌
리게 하시였다.

종밤 얼마나 먼길을 달려왔는지 야전차우에는 흰
눈이 한뼘도 넘게 얹혀있었다.

《평양에서 먼 여기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 아침식사들은 했습니까?》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야전차에서 내려서신
그이께서는 언손들을 다정히 잡아주시고 소탈하게
물으시였다. 이제 숙소에 가서 먹으려 한다는 심광
진의 대답에 예상이 들어맞았다는듯이 크게 소리내
여 웃으시였다.

《그러면 마침입니다. 나도 식전인데 아침식사를
같이합시다. 내 혼자면 그냥 번지고말겠지만 이러
게 동반자들이 생기니 식욕이 나는군요. 내게 좋은
게 있는데 다들 후회없을것입니다. 대단한 특식이
니까, 하하...》

그이께서는 모두를 데리고 이깎나무가 촘촘한 길
가의 숲속에 들어서시였다.

어디나 눈, 흰눈천지였다. 잡초들은 무릎을 치
는 폭설에 죄다 묻혀버렸고 우중충한 숲우듬지에
도 흰눈이 무겁게 내려앉아 희끗희끗했다. 잠풍한
날씨여도 북부고산지대의 맵짠 추위는 길손들에게
위력시위라도 하려는지 승악을 부리며 모두의 두
볼을 빨갛게 얼구어놓았다. 입김이 비자루모양으
로 내뿜리였다.

숲속을 휘둘러보시다가 안침지고 평퍼짐한 장소
를 찾아내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술가지로 두툼한 눈
을 손수 밀어내시며 호협하게 말씀하시였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모닥불을 피우고 감자구이를 하자는것입니다.》

《좋습니다!》

모두들 기쁨에 등 뿔었다. 오성권은 수행원들과 함께 눈판을 누비며 부지런히 삭정이를 주어왔다. **김정은**동지께서 만류하셨지만 팥술을 따고 다른 나무가지를 주어모으느라 나이를 잊은채 아이들처럼 뛰어다녔다. 그이께서는 땀감들을 고깔모양으로 가려썰으시고 손수 불을 지피시었다.

인차 불길에 타올랐다. 찬기운을 밀어내며 세차게 솟구치는 불길에 언손을 내들고 쪼아느라니 얼어들었던 온몸이 훈훈해왔다.

야전솜웃 앞자락을 활 터쳐놓으시고 모닥불에 마주앉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한 수행원이 야전차에서 가져온 자그마한 자루를 받아드시고 그속에서 누르끼레한 모래흙이 걸발린 감자알들을 꺼내시었다.

둥글둥글 잘생긴 감자였다. 그것들을 밀붙이 이글거리는 모닥불속에 한알한알 던져넣으시었다. 그리고는 나무꼬치를 골라드시고 감자알들이 타지 않도록 솜씨있게 굴리시며 구우시었다.

《감자란 놈은 아마 구워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겨먹은것 같습니다, 하하...》

좌중을 즐겁게 해주시려 하시는 톱담에 모두들 유쾌한 등산객들처럼 흥그러워졌다.

미구하여 감자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기 시작했다. 흰눈덮인 숲속을 가득 채우는 그 냄새에 성권은 군침까지 꿀꺽 삼켰다. 그리고는 제스스로 면구스러워나서 옆사람들의 눈치를 슬쩍 살폈다. 그와 눈길이 마주친 심광진도 식욕이 북받치는듯 좀 게면쩍어하는 기색이더니 비위 좋게 싱긋 웃어버렸다.

김정은동지께서 곁이 거뭇거뭇해진 감자알을 나무가치로 툭툭 두드리시니 솟처럼 되어버린 껍질이 벗겨지고 노르끼레한 속살이 드러났다.

《이젠 다 익은것 같구만. 어디 좀 볼가.》

감싯감싯한 감자 한알을 굴려내시여 손으로 껍질을 벗겨보시고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잘 익은것 같습니다. 다들 출출할텐데... 자, 오성권동지부터 받으십시오.》

《아닙니다. 전 나중에...》

《허허... 산천도 년장자를 알아본다는데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어서 받으십시오. 소금은 여기 있습니다.》

해학을 담아 말씀하시며 껍질을 말끔히 발고어 먹음직스러워보이는 감자를 오성권의 손에 끝내 들려주시고서야 자신께서도 다른 한알을 집어드시었다.

따끈따끈한 온기, 가루가 팍팍 일어나는 속살...

아침식사치고는 꽤 늦은것이였지만 뜻밖의 별식에 모두들 후— 후— 입바람을 불어가며 맛스럽게 먹었다.

《엇, 뜨거!》

아이들처럼 입언저리에 솟검맹이칠을 해가며 벌써 한알을 다 먹어치우고 덤벼치면서 욕심스럽게 또 한알 골라들던 심광진이 아부재기치는 소리였다. 그의 두손은 귀부리에 가있었다. 그 바람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

《어허허...》

즐거운 시간은 늘 헤폰 법이다. 몇알씩 요기를 하고나니 감자가 동나버려서 인상깊은 감자구이는 너무 간단히 끝났다. 다들 그랬듯이 오성권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김정은**동지를 슬며시 바라보았다. 한웅큼 뭉그러진 흰눈에 손을 문대시던 그이께서도 그런 속마음을 짐작하셨는듯 오성권을 피끗 돌아보시었다.

《혹시 너무 남남해서 그러는게 아닙니까?》

《아, 아닙니다.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성권은 두손을 황황히 내들며 설레발쳤다.

《허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좋고... 그래 이런 숲속의 눈판에서 감자구이를 해보니 감상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되는것이 없었습니다까?》

당황했던 오성권은 그이의 각근한 물으심에 별스레 마음이 흥그러워져서 기꺼이 말씀드렸다. 그의 고향이 감자고장으로 일컫던 삼수라는것을 녀두에 두고 하신 말씀같아서였다.

《예, 고향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네 고향마을사람들은 감자수확철이 오면 재미로 이런 감자구이를 하곤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지가 수십년이나 되었지만 그때의 광경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재미로 했다?!》

《예, 감자구이는 재미로 하는것이 지기때거리로 하는것인줄 저는 몰랐었습니다. 사실 구운 감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헛헛한게...》

김정은동지께서는 크게 웃으시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단났구만. 가지고 온 감자는 이제 전부인데. 하... 난 오성권동지가 그런 대식가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전 정말이지 대식가는 못됩니다. 진짜대식가는 저 심광진소장동무입니다.》

오성권이 되게 바빠하면서 발뻘하는 바람에 또다시 폭소가 터졌다. 일행중에서 제일 년장자인 자기가 대식가의 칭호를 받게 되니 체면도 없이 너무 걸람스럽게 군것 같아서 쑥스러웠고 그래서 손아래 나이별인 만만한 심광진에게 열른 넘겨췌운 것이었다.

《정말 그런것 같기도 합니다, 하하하...》

김정은동지께서 맛장구를 쳐주시자 웃음소리는 더 높아졌다. 방금전까지 비위 좋게 제일 욕심을 부리기도 했지만 사람이 원체 푸수하면서도 데면데면한 심광진은 툭툭무례한 얼굴을 하늘로 쳐들고 흐무지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때문인지 이깁나무가지

에 없었던 흰눈이 푸르르 날아내리면서 뽀얀 눈가루가 날리었다.

축포처럼 연방 터져오르던 웃음발이 찾아들 무렵 **김정은** 동지의 존안에는 차츰 숨엄하리만큼 진중한 감정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장군님을 모시고 전선과 후방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때에 나는 구운 감자 몇알이면 한끼를 넉넉히 치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령님 생각, 장군님 생각, 항일빨찌산들 생각...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령님을 따라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싸운 항일유격대원들은 불도 피울수 없어서 생감자로 끼니를 에울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백절불굴이었습니다. 억세인 정신력으로 모진 고난을 이겨내며 수령님을 받들어 혁명을 승리적으로 떠밀어왔습니다. 그러한 혁명정신이 없어야 어떻게 국가적후방도 외부적지원도 따로 없는 그런 조건에서 포악한 일제를 타승할수 있었겠습니까.》

미제를 쳐부신 전쟁로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꺾듯이 참고 이겨내게 하는 고귀한 혁명정신이 있었기에 청소한 우리 인민군대는 보충마저 부족했지만 비행기와 땅크, 항공모함을 가진 미제침략군을 쓸어눌힐수 있었던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바로 선렬들의 투철한 그 정신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또 혁명의 선대들에게는 자신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적인 의무가 있는것입니다.》

그이의 말씀은 오성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모두들 숨소리마저 죽어가며 그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깁살도 이 순간을 위해 태고연한 정적을 지켜온듯싶었다.

숨엄한 감정에 휩싸이시여 눈덮인 먼 산발에 생각깊은 시선을 주고계시던 그이께서는 푹 잠긴 음성으로 절절한 말씀을 이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빨찌산식생활을 오늘은 우리 장군님께서 야전생활로 이어가고계십니다. 우리 인민들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연이지만 장군님께서 감자 몇알로 때식을 에우시며 초강도강행군, 눈보라강행군을 이어가신적도 있지요.》

침묵, 침묵!

소리없이 사그라들던 모닥불이 탁탁 불씨를 튕겼다. 두두룩한 재무지를 남기며 타는 모닥불은 자기를 희생하여 사위에 열을 뿌려주는 헌신이 기쁜듯 소슬히 불어오기 시작한 바람결에 숯불을 이글거리며 웃는것 같았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터쳐놓으시였던 야전숨옷 앞섶을 여미시었다.

《자, 한숨 쉬었으니 또 숯눈길을 달려봅시다. 갈길이 머니까 함께 더 즐겨볼 시간이 없구만. 모두들 건강에 류의하십시오. 특히 오성권동지는 전쟁때의 부상자리가 아직도 편안하지 못하다던데 이런 눈길에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건강한 몸으

로 커다란 사업성과를 안고 평양에서 다시 만납시다.》

《안녕히 다녀가십시오.》

밝은 미소를 지으신채 한참이나 손을 흔들어보이고 야전차에 오르시는 그이를 바래워드리며 오성권은 뜨거운것을 삼켰다.

...그날에 하신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지금도 메아리치는것만 같았다.

《오늘 항일투사들은 몇분 남지 않았고 전쟁로병들의 머리우에도 흰서리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세월은 계속 흐르고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할수 없고 바뀌어서도 안되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선렬들이 발휘한 투철한 혁명정신입니다.》

오성권은 어쩐지 지금껏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것만 같은 자책감에 휩싸이게 되는것이었다.

(그래, 혁명정신을 물려주어야 해.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한생 변함없이 싸워온 우리 세대의 본분이고 의무인거야. 하지만...)

생활은 말처럼 단순한것이 아니다. 무정한 세월은 오늘을 과거로 만들고 낡은것은 거품처럼 생활의 기슭으로 사정없이 떠밀어버린다. 락업은 떨어지고 새싹은 돋는 법이다. 과학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은 그 생활의 리치에 팽정성을 더해주었다.

그의 손은 어린 감나무의 초리를 매만지고있었다.

(후- 흐르는 세월속에 늙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법이지. 락업은 그 새싹을 위한 밀거름이 되어야 해.)

오성권은 이렇게 자신을 위안하게 되는것이었다.

3

김정은 동지께서는 기쁜 심정으로 집무탁우에 놓인 원고를 보시었다. 총참모부에서 그이의 지도를 받고싶어 올린것인데 분량이 꽤 많았다.

날이 갈수록 그이의 가르치심을 바라며 군대와 사회의 많은 일군들이 저저마다 문건을 올리고있는 까닭에 무척 시간이 긴장하시였지만 한해전에 과업을 주시고 얼마전에 구체적인 방향을 다시 확정해 주신 연구집필과제가 이렇게 빨리 수행된것이 일면 놀라운 생각까지 드시여 다른 일감들을 미루어놓고 시고 그것부터 손에 드신것이었다.

원고집필에 관여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그려보며 한장한장 번지시었다. 각이한 표상의 반가운 얼굴들이 연줄연줄 눈앞에 흘러지나갔다. 제일먼저 떠오른것은 심광진연구소장이었다.

(심광진소장! 군사장비활용과 관련한 리론문제에서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지.)

폭설이 쌓인 숲속에서 감자구이하던 날 귀부리를 잡고 웃던 그의 천진란만한 모습이 생각나시여 빙그레 웃으시었다.

(년세가 많아질수록 더 활기로와지거던. 좋은 일이야.)

그 다음엔 능력있는 교수, 박사들, 아직 학위학직은 높지 않아도 군사수재로 기억에 있는 젊은 일꾼들...

오성권의 얼굴도 그러졌다. 지형에 따른 작전안 수립과 관련한 리론문제에서는 그가 많은 도움을 주었을것이다.

도서는 그만하면 잘되었다. 지난 시기의 군사리론에서 많이 전진하여 현대전쟁에 활용되는 각종 무장장비들과 전략전술의 특징들을 명료하게 서술하고있었다. 능숙한 로세대의 체취와 대담무쌍한 젊은 세대의 기백을 감득할수 있는것이 그이께서는 무엇보다도 기쁘시었다.

어느새 밤이 지새고 날이 밝은것을 의식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원고의 맨 마지막장을 들여다보시었다. 거기에는 도서의 집필편찬과 심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올라있었다. 예상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줄느런히 자리잡고있는데 오성권의 이름은 없었다. 의혹이 드시여 또다시 훑어보시었다. 분명히 없었다.

길쭉한 얼굴에 크고작은 주름살들이 많아도 진중하고 리지적인 성품이 엿보이는 사람, 권위있는 군사리론가로 알려져있고 오랜 기간 군사과학연구사업을 해오면서 깊은 조예와 무시할수 없는 판록을 지닌 그가 왜 빠졌을까?

이제는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서 고문격으로 드문드문 출근하고있지만 이처럼 중요한 도서편찬사업에 관심이 없을 그가 아닌것이다. 숨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책임적으로 일하다가 순직하겠하던 오성권이였다. 그를 고문격으로 쉬엄쉬엄 일하게 한것은 전쟁때 입은 부상의 후독과 연령상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에서 취해준 조치였다. 그이께서 알고계시는 오성권은 강의한 의지력으로 당당장하는 사람이였다.

(그런 로병이 배제되다니?! 하다못해 심의에라도 관여했을텐데. 이상한 일이다. 얼마전까지 병원치료를 받았다더니 혹시 또 위급한 중병이라도 앓는것은 아닌가?!)

더럭 근심이 앞서신 그이께서는 문건을 밀어놓고 시고 집무탁 한켠에 놓인 전화기를 끄당기시었다. 총참모부의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 도서집필에 참여한 일꾼들의 구체적인 견해를 알수 있었다. 그들에 대한 지도를 담당한 부부장은 몹시 송구스러워하는 어조로 설명해드렸다.

《저도 좀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았는데 오성권 전 부소장은 건강상 무리한 업무를 피해야 할 형편이라는것입니다. 심광진소장은 처음에 그를 인입하려고 생각했지만 오성권 전 부소장

이 이제는 리론적으로 낡아서 현대전쟁에 대한 과학리론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적합하지 않은데 년로한 사람에게 부디 과중한 짐을 얹어주어서 괜한 고생을 시킬게 있느냐 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생각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낡았다구? 그건 누가 한 소리입니까?》

김정은동지께서는 너무도 놀라우시여 웃음을 의자등받이에 기대시며 다우쳐물으시었다.

《예, 젊은 박사로서 도서편찬사업을 책임진 오덕찬동무가 오성권 전 부소장의 외아들인데 그가 직접 심광진소장에게 그런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이께서는 무척 놀라시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정하다니?! 사실이래도 선뜻 믿을수가 없는 일이었다.

오덕찬, **김정은**동지께서는 그를 잘 알고계셨다. 문득 그를 처음으로 알게 되던 그날의 일이 떠오르시었다.

우리 나라 군사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때였다.

어느날 그이께서는 그냥 스쳐보낼수 없는 한가지 사실을 알게 되시었다. 온 대학적으로 수재라고 떠받들리우며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한 학생이 강의시간에 교원에게 직접 의견을 제기했다는것이였다. 그 의견이라는것은 도덕에도 어긋날 정도로 뽕족한것이였는데 그 교원이 말은 과목에서 취급하는 내용이 다른 과목에서 취급하는것과 어긋나비슷하기때문에 별로 배울것이 없다는 식의 항의였다. 그의 언행은 많은 사람들속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그가 바로 오덕찬이였다.

판록있는 군사리론가들이 이미 오랜 세월 연구하고 완성해온것을 순간에 부정해버리는 담찬 청년에 대해 큰 호기심을 느끼신 그이께서는 시간을 내시여 본인을 만나보기로 결심하시였다. 만나보니 굵실굵실한 반고수머리에 눈빛이 푹푹치 않고 끼끗한 청년이였다.

생활적인데로부터 학술적인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파정에 오덕찬의 그릇된 관념을 직감하신 그이께서는 어이가 없으시였으나 내색은 하지 않으시고 넌지시 물으시었다.

《동무, 군사예술에 대한 정의부터 말해보시오.》

너무도 기초적인것을 물으시는 바람에 오덕찬은 얼며름해졌다. 그의 두뇌에는 최첨단이라고 일컫는 복잡한 공식들과 웬간한 사람들은 듣고서도 알아들을수 없으리만큼 《단수높은 현대군사학리론》들만 가득차있었던것이였다. 총명한 두뇌를 자부하는 그였지만 초보적인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너무도 뻔한것으로 치부해버렸던 까닭에 갑자기 대답하자니 헛소리 입을 열수가 없었다. 까다롭거나 심오한것은 아니여도 막상 말로 옮기자면 생각대로 안되는것이 있는 법이다.

어느때라면 《독수리는 파리맛을 모른다》이니, 《상대성리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도 기술과 상업을 결부시킨 다재 에디슨의 문제는 풀수 없었다》이니, 《다재는 무재》라니 하는 희괴한 《명구》로 슬쩍 둘러쳐버렸을 그였다.

하지만 **김정은**동지의 엄한 물으심앞에서 오덕찬은 머리를 떨구고말았다.

《그것 보시오. 자랑끝에 빈손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동무는 뭘니까? 학과목의 기초로 되는 개념조차 모르는 초학도에 불과하면서도 감히 자만하여 주체적인 군사예술의 경지를 다 아는척하다니… 설사 아는것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발언하면 안됩니다.》

그날 덕찬은 기초를 든든히 다질 대신 자만과 소총명에 빠져 경솔하게 행동한것을 심심히 뉘우쳤고 그이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그때부터 **김정은**동지의 시야에 비끼는 덕찬은 무척 허심하고 열정적인 그러면서도 명민한 두뇌로 군사과학의 최첨단을 헤쳐나갈 믿음직한 인재로 성장하는 성실하고 미더운 모습이었다. 하여 몇해전 그가 책임적인 직무에 임명되었을 때 그이께서는 누구보다도 기뻐하시었다.

(그런 동무가 어떻게?! 그때의 자만과 소총명이 되살아난것인가?)

견찰을수없이 갈마드는 걱정애 마음이 무거워진 그이께서는 급히 집무탁을 거두신 다음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시고 집무실을 나서시었다.

일군을 보내거나 전화로 실태를 료해하고 대책할수도 있었지만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싶으시었다. 오성권이 심하게 앓는것이 아니었다는 안도감은 드시였으나 결코 차후로 미룰 일이 아니었다. 잘못 처리되는 인간들의 문제를 두고서는 순간도 안심하신적이 없으신 그이이셨다.

오덕찬이 출장중이라니 심광진소장을 만나보실 결심을 세우시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수 승용차운전대를 잡으시고 연구소로 떠나시었다.

부판이나 운전사도 없이 홀로 찾아오신 그이를 맞이한 심광진소장은 아연실색하여 얼어질듯 달려왔다. 젊어서 최전선련합부대 부대장으로 이름을 날린 경력이 있는 그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척 부해진 몸집인데도 꽤 민첩했다.

검소하나 품위있게 꾸려진 소장실에서 길지 않은 담화를 하시는 과정애 사연을 속속들이 파악하실수 있었다.

루루이 설명하는 심광진의 긴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귀담아 다 들으신 그이께서는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나서 무게있고 잘 울리는 음성으로 한 인간의 운명을 보증하시듯 천천히 말씀을 펴시었다.

《오성권동지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수령님의

높은 신임에 의해 사단작전참모까지 하면서 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성장한 훌륭한 군사일군입니다. 전후에서 오늘까지 한생토록 장군님의 의도를 받들어 나라의 군사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참으로 많은 일을 한 로병입니다. 리론적으로 낡았다는것은 배울것도 기대할것도 없다는 소리인데 이런 로병에게서 배울게 없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도서관고에도 오성권동지의 뜻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형에 따른 작전안수립과 관련한 부문에서는 그가 지난 시기에 연구한 내용을 많이 리용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혁명의 계승문제를 두고 나는 오늘 참 깊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심광진은 머리를 수그리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축축히 젖어든 눈굽을 손수건으로 훔치고난 그는 문득 고개를 들더니 울먹울먹한 소리로 진정을 해쳐놓았다.

《저를, 이 미련한 놈을 처벌해주십시오. 사실 저는 도덕적으로 봐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견해에도 부정할수 없는 일리가 있겠다고 인정하고 동감했더랬습니다. 저도 이미 고목이 되었고 그래서 새 세대 재사들한테 인차 직무를 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중요한 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의 견해를 무조건 옳다고 여기고 지지해주고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종의 패배주의에 빠진셈입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심광진의 거울진 손을 잡으시었다. 팻팻하고 투박한 손이었다. 이 순간 회생과 헌신을 보람으로 알고 험한 일, 궂은 일 가리지 않으며 평생을 살아온 그의 진정을 헤아려보게 되시었다.

《그 심정을 나도 리해합니다. 그러나 나이든 일군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직무를 내어주려고 하는것을 결코 패배주의라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더 높여서 기술실무적으로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따라서야겠지만 연령이 많기때문에 그럴수 없는것이 안타까와서 소장동지와 같은 심경애 잠기게 되는것은 바로 당적량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순결하고 결곡한 마음을 깊이 리해하려 하지 않고 무작정 늙었소, 낡았소 하며 밀어버리려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혁명선배들에 대한 의리심과 존경심이 없는 표현입니다. 이진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광진은 대답을 못하고 어깨를 들먹거렸다. 그의 얼굴애 무수히 건넌간 주름살들을 눈여겨보시느라니 련민의 정이 가슴속을 파고드는것을 **김정은**동지께서는 어찌할수 없으시었다.

《소장동지도 이제는 일흔이 넘었지요?》

《한 일없이 나이만 먹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노여우신듯 심광진의 손을 놓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여 창문가로 다가가시었다. 창유리너머 잣나무가지우에서 메새가 울었다. 그놈은 푸른 가지우에 얼어붙은 잔설을 작은 부리로 툭툭 쪼아보다가 흥심이 없는지 인차 훌 날아가버렸다.

(사람의 운명문제에 관심이 없는 인간이 있다면 그런 인간이 보잘것없는 저 메새보다 나은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자 은연중 다시금 솟구치는 의분을 느끼시었다. 창문밖에 시선을 던지신채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준절하였다.

《왜 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까. 16살나이에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미국놈들과 싸웠는데... 그것만으로도 로병들은 금방석에 앉아야 합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싸운 전쟁로병들은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혁명의 영원한 기수들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그 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고개를 푹 숙였던 심광진은 경건히 머리를 쳐들고 그이를 우러렸다. 말로써는 바이 표현할길 없는 격렬한 감정이 마음속에 서 용암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창문가에서 몸을 천천히 돌리시고 말씀을 이으시었다.

《로병세대들에게는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 세대들에게 참된 인생관, 혁명관을 더욱 깊이 심어주어야 할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성권동지를 도서심외에 참가시키고 그의 이름을 꼭 밝혀야 하겠습니까. 오덕찬동무가 생각이 많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 동무도 나의 심정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내 꼭 시간을 내서 그 동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퍼그나 흘러갔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싶으셨으나 다른 바쁜 사업들도 있어 떠나셔야 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작별인사를 나누시고 발걸음을 떼시었다.

《일을 쓰게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꼭 대책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오성권 동무도 기뻐할겁니다. 그러니 제발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심광진은 따라서며 애절한 목소리로 아뢰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좀 안심이 되시는듯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팔을 끼시고 문밖으로 나서시었다. 그러나 승용차가 가까이 이르시어서도 하실 말씀을 다 못하신듯 인차 차문을 열지 않으시고 당부하시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아는 오성권동지는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동지입니다. 장군님께서 그를 군사과학리론에 해박한 일군으로 알고계십니다. 비록 발전하는 오늘의 현실이 지난 조국해방전쟁때나 〈푸에블로〉 호사건때와는 질적으로 다른 많은

변화를 보이고있는것은 사실이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받들어 승리만을 떨친 그 정신, 그 본태는 영원히 변할수 없는것이며 선군조선의 새 세대들이 지녀야 할 현대전쟁에서의 전투능력도 그에 기초하지 않고서는 사상무각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나는 이번의 도서편찬사업을 통하여 주체적인 군사리론을 일층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조국통일대전의 본질을 명확하게 확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은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것입니다.》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심광진의 두손을 잡으시고 힘있게 흔들어주시었다.

그것은 직무와 직분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혈연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순간이였다.

사열이나 받듯 잣나무들이 늘어선 연구소구내를 벗어나 멀리 달려가는 승용차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심광진은 또다시 손수건으로 눈굽을 훔치었다.

4

생활은 희노애락의 교차로 이루어지는듯싶다. 심기가 편치 않은 오성권이 며칠째 별로 과묵해지고 걸핏하면 신경을 곤두세우곤 해서 저으기 뻔뻔하고 어슬퍼졌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판세상으로 변해버렸다. 친정집에 갔던 며느리가 돌아온때문이었다.

그새 꽤 벌차진 손자녀석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무릎두리를 분주스럽게 땀돌며 피워대는 소란이 적적하던 가정분위기를 일변시키는 활기를 가져왔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것 보라요. 외삼촌이 사다준 총이다. 팡팡 뚜루룩!》

번쩍거리는 장난감자동보총을 비껴들고 으시대며 돌아가는 어린것을 무릎우에 끌어다앉히면서 오성권은 비로소 며칠만에 시름없이 웃었다.

《에그, 미운 일곱살이라더니 녀석, 분주스럽기 두...》

며느리와 손자가 인차 돌아오지 않는다고 속이 알알해하던 때는 언제였더냐싶게 마누라가 허를 끌끌 찼지만 얼굴은 보름달처럼 환해져서 큰 눈을 슴벅거린다.

오는 복은 쌍으로 온다더니 그날 오후엔 뜻밖에도 출장지에서 보낸 아들의 편지가 인편에 날아들었다. 아이들 학습장만큼이나 두툼한 편지였다.

(녀석두, 게서 장창 살것두 아닌데 생똥같이 무슨 편지질을?!...)

의문이 앞섰으나 마음이 절로 급해진 오성권은 편지봉투를 정성들여 뜯어내느라 앵두입술을 감쳐 물고있는 며느리를 재촉하게 되는것이였다.

《아메미야, 어서 읽어봐라. 크제!》

천성적으로 아련한 며느리는 좀 수집어하면서도

은방울 굴리는듯 고운 목소리로 거침없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집에도 들리지 않고 떠나온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어머니의 당부대로 동지날엔 꼭 집에 들리려고 했었는데 바쁜 일이 있다는걸 토크 대고 이 아들은 그냥 홀 떠나오고말았군요.》

왜서인지는 모를 일이나 아들은 분명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죄스러운 감정을 여느때없이 강렬하게 느낀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야 뭘 그리 장황하게 썼을가. 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한테 각근했던 녀석이지. 사람은 본태를 내버릴수 없는게야.

내심 흐뭇해서 앉아있던 오성권은 갑자기 퍼들쩍 놀라며 자기 귀를 의심했다.

《령감, 이제 뭐라구 했수?》

마누라도 방금 들은 며느리의 목소리가 믿어지지 않는듯 성권의 얼굴을 뻔히 쳐다본다.

오성권은 후두두 뛰는 가슴을 한손으로 지그시 누르면서 며느리를 독촉했다.

《다시, 다시 읽어다오.》

《예.》 벌써 두볼이 연붉게 상기된 며느리는 공손히 대답했으나 그 다음부터 목소리가 몹시 떨려났다. 《아버지, 어머니! 놀라지들 마십시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을 보좌하시며 최전선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글썽... 글썽 제가 와있는 부대에 들리시여 저를 몸가까이 불러주신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우리 아예비가 그분을 만나뵈웠단 소리가 아니우?》

마누라가 가뜰이나 큰 눈이 전지불만 해져서 또 남편을 쳐다보며 놀란 소리를 질렀다.

《좀 가만있지 못하겠소? 아예미야, 어서!》

《그날은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에 야전복자락을 날리시며 병실뜨락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그이께서는 그간 집을 떠나 수고가 많았겠다고 하시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집필된 도서원고를 평양을 떠나오기 전에 다 보았는데 노력을 많이 한것이 알린다고, 그와 관련해서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불렀다고 하시는것이였습니다.

저의 사업과 생활에 다심한 정을 기울이시며 관심해주시는 그이의 손을 부여잡고 저는 목이 메어서 아뢰였습니다.

〈저 같은게 뭐라고 이 추운 날씨에...〉

너무도 크나큰 걱정이 뚫어올라서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할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이께서는 정답게 웃으셨습니다.

〈덕찬동무가 괜한 걱정을 하는구만. 나는 겨울을 좋아합니다. 눈보라 사나운 겨울은 인간의 힘과 의지를 키워주는 인상깊은 계절입니다. 수령님께서 그러하셨지만 장군님께서도 이런 겨울을 좋아하십

니다. 겨울을 좋아하는것은 아마 우리 가문의 성격인것 같습니다.〉

그러시고는 장시간에 걸쳐 도서원찬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인 문제들을 가르쳐주시고나서 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이의 귀중한 말씀을 수첩에 적어가던 저는 머리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이의 만면에 넘치던 자애의 빛이 사라지고 안광에서 번쩍 섬광이 발산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쌓인 심려가 많으신듯 오른손을 야전복앞섶에 지르신채 흰눈갈린 뜨락을 오래도록 말씀없이 거닐으시던 그이께서 저에게로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도서에 오성권동지의 이름이 없더군요만. 몹시 섭섭했소.〉

〈예?!〉

그제서야 저는 무엇때문에 그이께서 그리도 무거운 심려를 안고계시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심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자면 괴롭기는 하지만 하는수없이 객관적인 사유를 설명해드리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자각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견지에서 팽정히 분석해보면서 그렇게밖에 할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물론 저로서도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야기를 자료적으로 말씀드릴수 있었습니다. 현대전쟁의 새로운 경지에 대해, 최신군사과학과 기술에 의해 변화된 현대전쟁의 양상과 방식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각종 사명의 위성들과 다목적의 비행기들, 성능 높은 미사일들과 각종 유도폭탄들 그리고 다종화된 핵무기들... 실로 다양하고 방대한 전쟁수단들은 이전의 세대들은 상상도 해볼수 없었던 비선형작전이나 비접촉전, 초수평타격전도 가능케 하고있지 않습니까. 작전들의 시공간적순서까지도 재배의 기존 사고방식으로써는 리해조차 할수 없을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있는것이 현대전입니다.

하지만 군사예술의 영재이신 그이앞에서 총명과 박식을 자랑하는듯 한 그런 무엄한것을 감히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동지께서는 저의 마음속을 환히 들여다보신듯 정통을 찌르시는것이였습니다.

〈최고도로 발전된 현대전쟁에 지나간 전쟁의 경험은 맞지 않는다는거겠지? 정말 그렇소?〉

〈예, 제 생각으로서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근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무는 근본적인 착오를 범하고있소. 우리가 명심해야 할것은 아무리 현대적인 전쟁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람, 사상감정을 가진 인간들이 조직하고 진행하는 싸움이라는것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의지, 능력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는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원리입니다.

다. 그런데 동무는 인간의 그 위치에 발전된 무장장비들을 들어세워놓고 현대전을 론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전쟁로병들을 소위 현대전쟁이라는 마당에서 밀어내는것까지 서슴지 않게 된것ियो. 결국 동무는 오성권동지를 아버지로서는 존경한다고 해도 혁명선배로서는 존경하지 않았소. 무시해버렸단 말이요.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어찌면 동무가…)

그이께서는 아픈 마음을 달래이시려는듯 회색야전솜옷주머니에 두손을 꼭 지르신채 눈보라이는 먼산발을 바라보고계셨습니다. 웅웅 휘파람소리를 지르며 몰려온 눈바람이 차거운 눈설을 휘말아뿌렸습니다. 차디찬 바람을 맞으시며 서계시는 그이의 야전복자락이 기폭처럼 펄럭이었습니다. 이 몸을 내대서라도 불어오는 눈바람을 막아드리고싶었지만 그럴수 없는것이 죄스러웠습니다.

저는 머리를 푹 수그렸습니다.

〈난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동무를 꼭 만나려고 결심했던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지간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혁명의 선대와 후대간의 계승문제로 되기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참다운 계승이란 어떤것인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혁명의 장래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기초적이고 판전적인 원리로 되기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새 세대들의 사업능력은 매우 높습니다. 동무는 자기의 능력을 이번에도 당당히 보여주었소. 그리고 동무가 말하듯이 세월의 흐름속에서 많은것이 변했습니다. 세기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으며 그동안에 우리 인민군대가 장비한 전투기술기재들도 커다란 질적량적변화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바뀔수도 변할수도 없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따라 싸워온 우리 혁명선배들이 발휘한 필승의 혁명정신입니다.

전쟁승리의 첫째가는 요인은 무기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밝힌 주체의 진리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변할수 없는 절대불변의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대는 혁명선배들의 그 투철한 사상정신을 후대들이 그대로 이어받을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연구편찬하는 도서에도 항일선렬들과 전쟁로병들이 지녔던 바로 그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이 담겨져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성능높은 무장장비들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처참한 실패만을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그런즉 동무가 드러내보인 그 견해는 우리 혁명에 매우 유해로운 사상요소로 되는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묵과한다면 우리 혁명에 참다운 계승이란 있을수가 없는것이요!

언제 그렇게 교만해졌는가? 어느새 혁명선배들을 몰라보는 인간이 되었는데가 말이요!〉

그이의 말씀은 저의 가슴을 마구 두들기며 비로소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제가… 덜돼먹은 놈이었습니다. 흐흑…〉

잠시 머리속였던 눈보라가 또다시 휘이익—사납게 몰려와 눈가루를 사정없이 휘뿌렸습니다. 저의 두볼을 타고 흘러내려 옷깃에 떨어진 눈물방울은 순식간에 얼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을가?! 내판에는 로쇠한 아버지에게 공연한 부담을 끼치지 않으면서 맡겨진 일을 원만히 해내겠다고 생각했을뿐인데…〉

정말 알수 없는 일이였습니다. 로병인 심소장동지도 저의 견해를 동의해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음에 주저하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경애하는 그이께서 그토록 마음쓰시게 만들었으니 어이 감히 머리를 들수 있었겠습니까.

다음순간에 하시는 그이의 말씀을 듣고나서야 저는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했던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덕찬동무, 나는 이번의 일을 단순히 현대전쟁과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계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민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하자면 있을수 있는 전쟁에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현대적인 무장장비와 전략전술도 필요하지만 더욱 필요한것은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 나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혁명투쟁은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투쟁일뿐아니라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 군대와 인민, 혁명동지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투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조국과 혁명을 위해 바친 오성권동지의 한생을 존중해주고싶었고 당파 수령을 위해 한생토록 순결한 진정을 다 바쳐온 혁명동지를 영원한 혁명전우로 끝까지 믿어주고싶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계승은 사랑과 믿음속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는것이기에때문에 오늘 가슴아픈 소리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리해해주시요.〉

눈보라 세찬 령길을 넘어 그이께서 타신 야전차는 떠났습니다. 했으나 저는 선자리에 굳어져 인사도 변변히 드릴수 없었습니다. 그이께서는 떠나가셨지만 남겨주신 말씀은 이 마음속에 끝없는 여운을 울려주었습니다.〉

머느리의 목소리는 자주 동강나군 했다. 오성권은 사무쳐오르는 감격에 사로잡혀 편지에 씌여진 사연을 마지막까지 다 들어낼수가 없었다. 고막을 웅—하고 울리며 **김정은**동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다시 가까이에서 들려오는듯싶었다. 오늘 아침 심광진소장으로부터 믿음에 넘친 그이의 뜻을 전달

받고 목이 메었던 그였다. 그 감격까지 겹쳐오르며 불시에 눈언저리가 확 달아올랐다. 맑은것이 눈에 펴 어리었다.

마누라가 팔굽을 툭 건드려서야 그는 자신을 다잡을수 있었다. 휘우듯한 눈섭이 축축히 젖은 마누라의 얼굴이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렁감, 들으셨수? 그이께서 아에비더러 양력설날엔 꼭 집에 들어가보라구 하셨다우. 이 늙은것들이 기다린다구요. 정말 다심하기두 하시지. 어쩔 그런 일일까지...》

성권은 묵묵히 창가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원체 그런분이신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그였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자신에게 어떤 영광이 약속되어있는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5

이틀후, 그날은 설날 그믐날이었다.

오성권이 다시 조직된 심의회의에 참가하고 집에 들어오는 참에 약속이나 한듯이 덕찬이도 출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손자녀석은 더 분주탕을 피우며 방안이 좁다하게 돌아쳤고 마누라는 머느리를 훈수하며 설음식차비에 성수가 났다.

온 집안이 양력설기분에 한껏 잠겨있던 저물녘 심광진소장을 앞세우고 낮모를 일군 하나가 오성권의 집을 찾아왔다. 곤색단긴짓옷을 단정하게 입은 그 사람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사업하는 일군이였다.

오성권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고난 그는 경건한 자세를 취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오성권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친히 오성권동지에게 보내주신 친필년하장입니다.》

《예?!》

성권은 떨리는 두손으로 년하장을 받아들었다. 어깨가 가볍게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앞을 가리워 어롱어롱 비추이는 년하장우에 활달한 글체로 씌여진 글발을 한자한자 읽어나갔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성권동지가 앞으로도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며 조국을 지키는 길에서 언제나 나와 운명을 함께 하는 한전호속의 동지, 영원한 전우가 될것을 굳게 믿습니다. ...

위대한 장군님의 글체처럼 백두령장의 기상이 넘치는 필체! 거기에는 그이의 담력과 의지뿐만이 아니라 천만전사들의 운명을 안아보살펴주시는 사랑과 믿음, 뜨거운 정이 깃들어있는것임을 성권은 알았다. 그 순간 눈앞이 뿌옇해지면서 두다리가 휘청거렸다.

《아버지!》

덕찬이 아버지를 부축하려들었다. 성권은 그의 손을 가볍게 밀어버렸다.

《일없다, 난 쓰러지지 않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지 않느냐!》

《오성권동무!》

의미심장하게 머리를 끄덕이며 박수를 치던 심광진이 그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도 펍 잠긴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에 국보적인 도서관고를 집필한데 대해 대단히 만족해하시며 오덕찬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이 그처럼 큰일을 할수 있는것은 훌륭한 정신력을 물려주고 후대를 위해 밑거름이 되어준 로병들의 공적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셨소. 그러시면서 전쟁로병들이 당과 조국을 위해 앞으로도 할일이 많다고 하셨다오. 그이께서는 도서관가 인차 완성되리라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로병들의 가정에 새해에도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란다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소.》

《여보!》

눈물에 젖어 얼굴이 번들거리는 마누라가 그의 팔을 부여잡는다. 오성권은 류달리 긴 눈섭에 맑은것이 가랑거리는 그의 얼굴을 처음이나 보는듯이 이윽도록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솟구쳐오르는 환희에 넘쳐 자신도 모르게 열띤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보, 로친네, 우린 정말 행복해! 경애하는 그이의 전사로 나는 이 좋은 세상에 다시 태어났소. 갱소년했던 말이요!》

제 어머니치마폭에 감겨돌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뵈히 쳐다보던 손자녀석이 장난감총을 비껴맨 채로 달려와 할아버지의 무릎에 매여달랐다.

성권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그 애의 머리를 어루싸다듬었다.

(그래, 나는 늙지 않아. 경애하는 그이의 동지로, 전우로 영원한 젊음을 누리리고있단 말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내 삶의 은인 **김정은**동지! 그이께서 주신 이 젊음을 뺏지 못해! 무정한 세월도 나를 이길수 없단 말이야!)

세월이 흐르면 변화하기마련인 모든 사물과 함께 사람도 세월의 흐름속에 늙게 되고 늙으면 도태하게 되는것이 자연이 정해놓은 법칙이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유기체들의 운명을 희롱하는 그 자연법칙이 통하지 못한다. 백두의 선군령장이신 **김정은**동지의 동지, 전우들은 영원한 삶의 청춘기를 누리며 뜻과 정으로 더욱 굳건한 하나를 이루었다. 그 대오속에 들어선 사람은 설사 심장의 박동이 멎는 날이 있대도 낡은 살아 영원한 생을 누리며 보람찬 삶의 발구름소리를 이 땅에 올린다.

지금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세월은 끝없이 흐르고 흐를것이다. 허나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이 나라에만 고유한 계승의 전통, 사랑과 믿음으로 이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시인은 시대의 가수, 시대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 가슴에 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며 시대의 숨결과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아글라글 애쓰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시인이 될수 있다.

시문학의 서정성을 높이자면 시인의 개성적인 얼굴을 뚜렷이 드러내는것이 필요하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직접 표현된다. 시에서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에서 실패를 의미한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내 조국의 푸른 하늘

박 상 민

내 어린시절엔
하얀 연을 날리던 하늘
소년단넥타이 날리며
어머니와 함께 명절날이면
지붕우에 공화국기 띄우며 바라보던 하늘

그 하늘이구나
내 걸어온 길 걸어갈 길
설계도마냥 비껴있는
한없이 맑고 푸른 하늘
그 하늘엔 언제나 맑은 태양

바라볼수록 한없이 파사로운
태양이 빛나는
내 이고사는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맑고 푸름은 내 조국의 미래
가없이 넓고 높음은 내 조국의 존엄

이국의 재빛하늘아래
태를 묻은 나
어머니는 나를 강보에 싸안고
바다건너 조국의 푸른 하늘을 가리켰더란다
오각별 빛나는 공화국기 나뭇기는 하늘

그 하늘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하늘밑에 서면 얼마나 배심든든한지
어머니는 파스한 입김에 실어
자장가마냥 들려주던 조국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내 태어나 처음 들은 하늘이야기

우리 수령님 어린시절
하늘땅보다 더 크시려고
만경봉에서 안아보신 내 조국의 높은 하늘
나라 찾을 큰뜻 품으시고
무지개 잡으시려 들메나무에 올라 바라보신

무지개비낀 내 나라의 푸른 하늘

그 하늘아래 펼쳐진 조국의 아름다움
어머니의 이야기에 실려 그날부터
나는 그 하늘을 나는 행복의 새
나는 그 하늘아래 땅에 뿌리내린 나무

내 이 땅에 삶의 뿌리내려
저 하늘향해 푸른 아지 펼쳐며
얼마나 아름다운 생의 년륜을 새겨왔던가
어제와 오늘 래일의 운명이 비낀
저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없이 맑고 푸른 하늘가에
추녀를 펼친 나의 집
창문을 열고 푸른 하늘을 휘젓는
세돌잡이손자의 고운 손에
파란 물들듯 정가로운 하늘

고마워라 조국이여
맑고 푸른 하늘이여
우리 수령님 불멸의 력사로
더욱 맑고 푸르러진 하늘
우리 장군님의 선군령도로
더욱 높고 맑아진 하늘
그 하늘 끝까지 닿은 조국과 민족의 존엄이여

세월과 더불어 더 맑고 푸르게 열리는
내 조국의 하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병사들과 함께 바라보신 최전연하늘가에서
남해끝까지 잇닿은 통일조선의 하늘
그 하늘아래 무궁변영할 내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르리!



엄 성 영
그림 김광석

감빛저녁노을이 사위여지자 사람들로 붐비던 행 길에는 인적이 뜨음해졌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동에 있는 숙소로 돌아오 고계시였다. 초겨울의 산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 들었지만 녀사께서는 느끼지 못하셨다. 지금도 눈 앞에는 고향처녀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끈게 가리마를 탄 외태머리, 보풀이 일고 색이 바 랐, 덧기운 치마저고리를 입었어도 흥조가 피여 예쁘장한 얼굴...

녀사께서 숙소에 도착하신것은 땅거미진 뒤 였다.

《옥분동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녀사께서는 방안에 사람이 들어서는데도 모르고 오도카니 앉아 자기 생각에만 음해있는 녀투사에게 물으시였다. 그제야 옥분이 기척을 느낀듯 머리를 들었다. 그통에 무릎우에 올려놓고있던 보자기에 찢것이 주르르 흘러내리며 한쪽귀통이가 드러났다. 보자기안에는 정히 포갠 옷감 같은것이 들어있었다.

《그건 뭐예요?》

《정숙동지에게 드러달라고 부탁을 받은 목세루 천이에요.》

며칠전 녀사께서 **김일성**장군님의 새 조국건설구상을 받드시고 녀성들을 하루빨리 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하여 함북도녀맹조직준비위원회를 찾으신적이 있었다. 준비위원회 성원들은 녀사를 맞이한 기쁨을 금치 못하며 헤어질 때 기념으로 옷감을 받아 주실것을 부탁하였다. 그때 녀사께서는 굳이 사양하시었는데 그들의 성의가 하도 곡진하여 옥분이가 대신 받아둔 모양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옷감을

꺼내놓고 무슨 생각에 골똘하고있는것인가.

《정숙동지, 어서 새옷을 지어입으세요.》

옥분의 새삼스런 간청이였다. 그 목소리는 여느 때없이 흥에 뜬 목소리였다.

《이제 양복점에 가서 몸을 재는것이 어때요?》

《콩밭에 서슬을 칠 성미는 여전하군요. 래일 떠날 준비는 다 되었어요?》

《예.》

선봉에서 청진으로 자리를 옮기신 녀사께서는 해방된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기 위하여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계시였다. 오늘도 숨죽은 청진체철소를 돌아보신 녀사께서는 동행한 투사들에게 래일은 부령야금공장과 고무산세멘트공장에 가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 순간부터 옥분의 가슴은 바람을 안은 숲처럼 설레이기 시작했다. 부령은 회령과 서로 이웃하고있는 지역이다. 지금이야말로 녀사를 모시고 그이의 고향에 다녀올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는가!

《제가 재단사동무를 데려올가요?》

《급히 먹는 밥에 목이 멘다고 했어요.》

녀사께서는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녀사께서 좋아하시는 옷은 군복과 조선옷이였다. 나라가 해방된 지금도 녀사께서는 군복을 입고계시였다.

산에서 함께 싸운 투사들이 녀사께 좋은 나들이옷 한벌 없는것을 두고 못내 걱정을 했지만 녀사께서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두 무명옷밖에 입지 못하고있는데 우리도 옷차림을 인민들과 똑같이 하고다니는것이 좋다시며 굳이 만류하시였다.

《이것 보세요. 천밭에 안개가 일고 여간 부드

럽지 않아요. 치마저고리에다 겹두루마기까지 받쳐 몸에 꼭 맞게 해입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고향사람들은 또 얼마나 반가와하구요.»

《고향?!》

녀사께서는 가볍게 놀래시었다. 고향이란 말만 들어도 마음을 진정기 어려워하는 녀사이시었다.

《만강에서 우리 서로 약속하지 않았나요? 조국을 해방한 다음 그리운 만강대에도 가보고 회령에도 함께 가보자고 말이에요.》

《이제보니 아주 영글한데가 있군요.》

《왜요? 벌써 잊었어요?》

녀사께서는 잊지 않으시었다. 잊을수 없는 만강의 봄이였다.

불현듯 녀사의 뇌리에는 유정한 여울물소리에 실려 옥분이와 함께 맞던 그해의 화창한 봄날이 떠오르시었다.

그날 녀사께서는 숙영지 옆으로 흐르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계시었다. 얼음버께가 등등 떠내려가는 개울물이 손이 시리도록 차거웠지만 버들개지 곱게 핀 여울가에는 따뜻한 봄별이 눈이 시도록 함뿍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눅눅하고 거무스레한 땅에서는 해묵은 풀덤불을 헤치고 파아란 새싹들이 뽕뽕 키돋음을 했다. 빨래감들을 매운 재물에 삶아가지고 나와 겨끝내기로 두드려대는 방치소리는 조용하던 숙영지끝안에 메아리를 울리며 야릇한 정서를 불러일으켰다.

녀사께서는 소매를 걷어올리시고 찬물에 와락와락 빨래감을 행구시다가 문득 일손을 멈추시고 물면에 비낀 자신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었다.

《웬일이예요?》

옥분이가 의아한듯 물었다.

《갑자기 고향생각이 나는군요. 내 고향 회령에 가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팔울천이 있어요.》

녀사께서는 팔울천에서 빨래도 하고 머리도 감군 하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시었다. 은은한 노래소리는 고향에 대한 애절한 정과 그리움에 젖어있었다. 옥분이도 따라불렀다.

《고향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만!》

노래소리가 멎었을 때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등뒤에서 울렸다. 고개를 돌리시니 **김일성**장군님께서 만면에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서계시였다. 동강회의에 내용을 보고문준비를 밤급 끝내고 한결 개운해진 마음으로 숙영지를 돌아보시다가 향수를 자아내는 노래소리에 이끌려 이리로 걸음을 옮기신 장군님이시었다.

녀사께서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매무시를 바로잡으시었다.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봄이 각별히 그리운 법이요.》

《그렇습니다.》

《고향에는 지금 누가 있소?》

장군님의 물으심에 녀사께서는 인차 대답을 드리지 못하시었다. 아직 그 누구에게도 가정사를 이야기한적 없는 녀사이시었다. 그러나 장군님께만은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죄다 말씀드리고싶으시었다.

대대로 소작살이, 머슴살이를 하면서 살아온 일가분들이 왜놈의 착취와 지주놈의 빚값에 화전마저 빼앗기고 억울하게 매를 맞던 일, 오산덕기슭의 남의 집 결방에서 눈물겨운 어린시절을 보내다가 부모를 따라 이역땅으로 정착없이 류량의 길을 떠날 때 서글픔을 누를길 없어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못내 흐느껴울던 일, 어린 녀사에게 고향산천을 되새겨주려고 말없이 오산덕쪽으로 팔을 돌려세우며 눈굽을 찍던 어머니, 이 세상에 어린 동생만을 자신께 남겨두고 너무도 일찌기 한많은 세상을 떠나간 부모님들...

《그러니 우리가 혁명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있는가.》

녀사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갑자기 여울물소리가 소연해졌다. 동안이 지나서야 장군님께서 침묵을 깨뜨리시었다.

《정숙동무, 우린 왜놈과 싸워 기어이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하오. 망양나루터에서 어머니가 어린 동무를 왜 말없이 오산덕쪽으로 돌려세웠겠소? 어머니가 눈에 익혀주던 고향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오.》

《알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깊은 감회에 잠겨 내가를 천천히 거니시며 나직이 노래를 부르시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

장군님께서 자욱자욱 추억을 더듬으며 부르시는 《사향가》를 녀사께서는 북받쳐오르는 눈물속에서 들으시었다. 그때로부터 이 노래는 녀사께서 제일 사랑하는 노래로 되었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이 노래를 부르곤 하시었다.

장군님께서 자리를 뜨신 후 녀사께서는 옥분이와 함께 조국이 해방되는 날 그리운 회령에 함께 가보자고 뜨겁게 약속하시었다...

《정숙동지, 부령에서 회령은 지척이에요.》

《그런데?》

《이번걸음에 회령을 꼭 다녀오자요, 예?》

녀사께서는 대답대신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얼마나 그리워하던 고향인가!

《속시원히 대답해줘요.》

《옥분동무, 고마워요.》

그제야 옥분이 지금껏 너사를 기다린 분풀이를 하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셨어요?》

《미안해요. 서흥동시장을 돌아보고 인차 온다는 것이 그만...》

《시장이요?...》

옥분이 의혹을 금치 못했다. 서흥동시장은 녀사께서 청진으로 나온지 사흘만에 이미 돌아보신 곳이었다. 좁은 골목길 좌우로 박혀있는 자름자름한 가게방들, 천과 신발, 학용품, 화장품매대들... 가게방마다 사람들이 붐비긴 했지만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거의나 없었다. 턱없이 뛰어오른 물건값에 녀인들이 한숨만 내쉬고있었다. 녀사께서는 그 날 장마당에서 쉬이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혹시 그 정상이 가슴에 맺혀 다시 돌아보신것인지...

《옥분동무는 장마당에서 만났던 처녀를 기억하고있어요?》

녀사께서 물으시였다. 옥분이 두눈만 슴벅거렸다.

《일용가게방앞에서 만나본 선화동무 말이예요..》

《예, 생각나요. 회령처녀!》

녀사께서는 보통키에 눈망울이 어글어글한 처녀의 모습이 다시금 눈앞에 그려지시였다. 이목구비가 환한 미모와는 어울리지 않게 그가 입은 허름한 무명치마저고리가 대조를 이루었다. 처녀는 가게방 옆에서 뭔가 상자에 넣은것을 마주하고앉아 웬 중년사나이의 시달림을 받고있었다.

《체네, 그걸 내게다 팔라구, 응?》

물건에 잔뜩 눈독을 들인 중년사나이의 거친 목소리.

《안돼요..》

한마디로 맺고끊는 처녀의 웅골찬 대답.

《돈은 달라는대로 줄테니 내게다 팔라니깐..》

사나이는 무례하게 상자쪽으로 팔을 뻗치며 강박하다싶이 요구했다. 처녀는 깔끔한 눈길로 듣기 좋게 거절했다.

《차 이런, 웅고집이라구야..》

사나이는 제편에서 두들거리며 다시 상자에 집게 같은 손을 뻗쳤다.

《글쎄 안된다지 않아요..》

처녀는 그의 손을 툭 뿌리쳤다. 사나이가 처녀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다. 그바람에 저고리의 팔굽을 덧기운 손바닥만 한 천조박이 반나마 떨어져 너풀거렸다.

《이건 뭐예요?》

처녀는 입술을 옥물고 사나이를 무섭게 쏘아봤다. 사나이는 그런 식으로 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번에는 품안에서 빨갛거리는 지폐몽치를 꺼내여 처녀앞에 내휘둘렀다.

《어때, 그렇게 하지?》

《아이참, 팔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처녀가 마침내 사나이를 따벌처럼 콧내 쏜다.

《참, 별난 처녀를 다 보겠군. 돈을 싫다고 하더니? 이 돈이면 녀마같은 그 옷도 벗어던지고 귀부인차림에 시집갈 밀천쯤은 잡고도 남을텐데..》

중년사나이는 제깍에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며 물러났다.

몇발자국 떨어져서 두사람의 심경이질을 지켜보시던 녀사께서는 그 처녀를 향해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상자안에는 뜻밖에도 전동기가 들어있었다.

《그 전동기를 팔면 안되는가요?》

《방금 샀어요. 하나밖에 없는걸..》

처녀는 또 전동기를 팔라는 성화를 먹일가봐 겁이 났는지 배추밀등 도리듯 한마디로 썩 잘라뻘었다. 하면서도 눈길은 녀사가 입고계신 군복을 주의깊게 더듬고있었다.

《맘놓아요. 난 사려고 묻는게 아니예요. 전동기가 그렇게도 귀한가요?》

《그래요. 공장을 돌리자니 전동기가 꼭 필요해서 그래요. 벌써 몇번째 나오는데 오늘에야 겨우...》

처녀가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얻은듯 상냥한 어조로 대답했다. 녀사께서는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시며 그의 말을 수긍해주시였다.

《처녀동문 이름이 뭐예요?》

《조선화라고 불러요..》

녀사의 부드러운 눈길과 사려깊고 다심한 인정에 끌렸던지 처녀가 거침없이 대답했다.

《이름이 참 좋군요. 어디에서 살아요?》

《부령읍에서요..》

녀사께서는 가볍게 놀래시였다. 청진바닥도 아닌 부령읍에서 예까지 전동기를 사러 왔다니 필경 꼭진한 사연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드시였다. 녀사의 모습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는지 선화가 물었다.

《부령읍에 와봤는가요?》

《그래요. 잘 알고있어요..》

녀사께서는 장군님께서 파견하신 소부대성원들과 함께 정치공작임무를 수행하던 부령지구를 손금보듯 환히 꿰뚫고계시였다.

《그럼 녀마국수집도 알겠군요. 우린 그 뒤마울에 살아요..》

처녀는 녀사에게서 그 어떤 호감을 느낀듯 부령에 오면 꼭 들리라는 청까지 했다.

《고향이 부령인게지요?》

《아니예요. 고향은 회령이에요..》

《회령?!-》

녀사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시였다.

《정말 회령이 고향이에요?》

《예..》

녀사께서는 너무나 뜻밖에 만난 고향처녀의 두손을 꼭 잡으시였다. 반가우시였다. 고향에라도 온듯한 기분이지였다. 묻고싶은것, 듣고싶은것이 많으시였다. 녀사의 눈길은 처녀의 얼굴에서 떠날줄 몰

랐다. 마치 그의 얼굴에서 고향의 체취를 다 느끼
기라도 하실텐다...

《나 한가지 물어도 좋아요?》

선화가 기대어린 눈길로 녀사를 우러르며 물
었다.

녀사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었다. 선화가 조심
히 입을 열었다.

《거긴 산에서 싸운 항일투사동지가 아닌가
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

이즈음 청진일대에는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산
에서 싸우던 투사동지들이 나와있다는 소문이 자
자했다.

《그들중에는 백두산의 녀장수 김정숙동지도 계
신다는데 한번 만나보면 좋겠어요.》

녀사께서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그리시었다.

《소원이 정 그렇다면 꼭 만나볼 때가 있을거예
요.》

《정말 그렇게 될가요?》

선화의 두눈이 황홀하게 빛을 뿜었다. 이때 누
군가 손달구지를 끌고 선화앞에 나타났다. 선화는
녀사께 가볍게 눈인사를 한 다음 손달구지에 전동
기를 싣고 장마당입구쪽으로 총총히 멀어져갔다.

녀사께서는 고향처녀와 더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못내 섭섭하시었다. 얼마전, 옥분이와 함께
거지굴에 가서 만나본 순옥이가 문득 생각나시였
다. 왜놈의 학정밑에서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말
도 제대로 못하던 순옥이에 비하면 선화는 어딘가
당돌하고 뻗힌 활달한 처녀였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처녀이야기는 왜 꺼내세
요?》

옥분이 아직도 의혹을 풀지 못한듯 녀사에게 물
었다.

《선화를 만나보면서 생각되는 점이 없었어
요?》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돌아온 그날 밤, 옥분은 인차 잠들
수 없었다. 선화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던
것이다. 아름다운 얼굴에 소박하면서도 강단이 느
껴지던 처녀, 람루를 걸쳤어도 돈앞에 꺾이지 않고
공장을 먼저 생각하던 그 결곡한 성미...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선화가 무엇때문에
전동기를 샀을까요?》

《꼭 샀다고만 단정할수는 없다고 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보아하니 선화네 집 살림형편이 넉넉치 못한것
같던데 돈이 있으면 새옷이라도 한벌 사입었을거예
요. 너무 큰 돈을 보고 당황해서 얼굴에 둘러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녀사께서는 왜서인지 그렇게만 생각되지 않으시
었다.

《그럼 그 일때문에 장마당에 가셨었어요?》

《아니예요. 장마당걸을 지나느라니 자연히 그
때 일이 생각나서 들러봤어요. 선화동무는 결코 거
짓말할 처녀같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믿고싶
어요.》

녀사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선화에 대한 생
각을 놓지 못하시었다. 고향이 회령인 그가 왜 부
령에 와서 살고있는지? 손달구지에 실려가던 전동
기에는 또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지?...

이른아침.

김정숙동지께서는 부령야금공장을 향해 목탄차
를 타고 떠나시었다. 하루이틀만 기다리면 그쪽으
로 가는 기차편을 리용할수 있다고 투사들이 권유
하였지만 우리가 그런 호강이나 하자고 산에서 싸
웠는가고 나무람하시며 굳이 길을 떠나시었다. 가
는 도중에 목탄차의 증기압이 제대로 오르지 않아
서 재를 털고 화실의 불길을 높이느라 어지간히 애
를 먹기도 했다. 12월의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
었지만 옥분은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그이의 고향
에 다녀올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무등 기쁘기
만 하였다. 큰길로 활기있게 걸어가는 길손들의 얼
굴들만 봐도 절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저 멀리 산기
슭의 나무숲이며 전야의 논밭들을 둘러봐도 더없이
소중하게 안겨왔다.

바로 이 땅, 이 조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동지들
이 피를 흘리며 싸워왔던가!

《옥분동무는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녀사께서는 문득 달아오른 그의 얼굴을 바라보
며 물으시었다. 옥분의 얼굴이 금시에 딸기빛이 되
었다.

《우리가 되풀령마루에 올라서 조국을 바라보던
그때의 일이 생각나는군요.》

《되풀령?...》

녀사께서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어딘가 멀리로 시
선을 보내시었다. 잊을수 없는 조국진군의 나날이
떠오르시었다. 만강인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압록강
연안 국경지역에로의 진군길에 올랐던 그때 되풀
령마루에 오르면 조국땅이 바라보인다는 장군님의
말씀에 녀사께서는 힘을줄 모르고 앞장에서 령을
뚫으시었다. 높고 험준한 령마루에 오르시니 백설
을 머리에 띠이고 거연히 솟은 백두산이며 뽕뽕히
물결쳐간 조국의 푸른 산밭들이 한눈에 안겨왔다.

《장군님, 회령은 어디쯤 됩니까?》

녀사의 물으심에 장군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동북쪽 멀리로 손을 들어 가
리키시었다.

《회령은 백두산너머 저쪽 두만강가에 있소.》

그때 녀사께서는 회령쪽을 오래도록 깊은 감회와
홍분속에 바라보시였었다....

자동차가 어느덧 부령읍에 들어서고있었다. 길
좌우로 울창졸망한 집들이 게딱지처럼 들어앉았다.
농마국수집간판이 얼른 눈에 띄었다.

《운전사동무, 차를 세워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였다.

《옥분동무, 시간이 급해도 선화동무네 집부터 둘러보고 가자요.》

녀사께서는 어렵지 않게 농마국수집 골목길을 찾아 걸음을 떼시였다. 소부대정치공작임무를 수행하던 그 나날에 벌써 이 부근의 지형을 손금처럼 환히 꿰드시였던 녀사이시였다. 그동안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골목길입구에 자그마한 양복점건물이 새로 들어섰은 것이였다.

일행은 양철조박으로 지붕을 얹은 집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기척이 없는 뜰오래는 별로 조용했다. 크지 않은 남새밭에서는 황이 든채로 말라버린 배추잎사귀들이 굴러다니고 처마밑의 빨래줄에서는 옷가지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채마밭을 둘러친 고삭은 싸리울바자가 반나마 기울어진 걸 보면 주인이 덜통하던가 아니면 일손이 바른 모양이였다.

《계십니까?》

녀사께서는 흙으로 쌓은 퇴마루앞에서 주인을 찾으시였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찾았을 때에야 방문이 반쯤 열리고 반백의 녀인이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다.

《여기가 선화동무네 집이 옳은가요?》

《예예, 그런데 어떻게?...》

녀인은 뜻밖에 나타난 낯선 손님들을 의아스럽게 둘러보았다.

《예, 지나던 길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럼 들어오시우, 날씨도 찬데.》

그제야 녀인은 황황히 손님들을 맞았다.

녀사께서는 방안에 들어서시였다. 좁고 어둑시그레한 방안이 별로 웅덩그렁해보였다.

《방안이 루추해서...》

녀인은 반진고리를 앞에 놓고 무슨 뜯개질인가 하고있었던듯 그것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이쪽이 아래목이라우.》

《고맙습니다.》

녀사께서는 자리에 앉으면서 물으시였다.

《저건 웬 장갑인가요?》

녀사께서는 문득 반진고리옆에 수북이 쌓인 장갑에서 눈길을 멈추시였다. 숨을 두툼하게 둔 장갑이였다.

《우리 남정네들이 일감을 붙잡구 공장을 복구하느라 씨름하고있는데 내인이라고 가만있을수 있어 야지요? 툼툼이 하는 일이긴 해도 인젠 눈귀가 어두워서...》

녀인의 말을 증명하듯 반진고리에는 채 꿰지 못한 바느실이 그대로 놓여있었다. 녀사께서는 바늘을 집으시고 얼른 실을 꿰여 바늘꽃개에 꽂아놓으시였다.

《재봉기가 있을 때는 눈귀가 어두워도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녀인이 미안한듯 한마디 했다.

《그럼 재봉기는 어떻게 했는가요?》

녀사께서는 녀인의 얼굴을 의아스럽게 바라보시였다.

《장마당에 내다 팔았다고. 전동기가 필요해서...》

《예?》

녀사께서는 가볍게 놀라시였다.

《선화 그 애가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자면 전동기가 있어야 한다는거지요.》

녀인은 집안에 가산이라곤 그 애 아버지가 마련해준 재봉기 한대가 고작이었는데 전전번 장날에 그것을 손달구지에 싣고 청진장마당에 가서 팔고 전동기를 사왔노라고 했다. 어딘가 아쉬움이 섞인 녀인의 목소리는 지청구처럼 들렸다. 그래서 방안에 들어설 때 별로 웅덩그렁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른다.

녀사께서는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가산을 팔아서라도 하루빨리 공장을 돌리려는 선화의 애바른 마음에 가슴이 뜨거우시였다.

《섭섭하지 않은가요?》

녀사께서는 재봉기가 놓여있었음직 한 창문쪽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녀인에게 물으시였다.

《처음엔 좀 섭섭했다우. 다 큰 체네가 통 세상물정을 모른다고 말이우다. 그 애 옷주제가 말이 아니라우. 재봉기를 팔았으면 제 옷이라든 한벌 사입을노릇이지.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지금같은 때 제 생각부터 하면 되는가고 하더군요. 외려 나무람을 당했다우.》

《아직 마음이 허전한 모양이군요.》

녀사께서는 녀인의 마음을 가볍게 위로하시였다.

《웬걸요. 내가 집안에만 박혀있다나니 생각이 짧았다우. 김일성장군님께서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주시었는데 재봉기 한대가 대수겠나요? 아무튼 선화 그 애가 용치요.》

의외로 녀인이 우선우선한 태도로 나왔다. 그것은 벌써 지청구가 아니라 선화에 대한 칭찬과 자랑이였다.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군요.》

녀사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딸이라니요? 그 앤 회령에서 살다가 제 삼촌집에 와서 숨어살던 애라오.》

뜻밖의 대답에 녀사께서는 다시 한번 놀라시였다.

《왜놈세상에선 맘놓고 숨쉬기도 힘들었다오.》

녀인이 선화가 부령에 와서 살게 된 경위를 자초지종 설명했다.

《그때가 바로 선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이었다오. 왜놈들은 젊은이란 젊은이들은 죄다 징병, 징용으로 끌어가다못해 나 어린 처녀들까지 방직공장 녀공으로 모집해갔다고. 놈들은 집집을 참빗훅듯 살살이 뒤흔다오. 눈에 쌍심지를 단 놈들은 선화를 내놓으라고 강박했지만 그 애 어머니가

상가집에 와서 이 무슨 불손한짓인가고 마구 대들었다오. 그래도 놈들은 집안팎을 발각 뒤흔다못해 뒤울안에 거꾸로 놓인 김치독까지 깨치고야 래일 다시 올테니 그때까지 선화를 찾아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오. 선화 어머니 억울하게 행패질을 당한 그밤으로 이곳에 딸을 빼돌렸다고요.》

녀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때의 정상을 눈앞에 그려보시는 녀사께서는 마음이 아프시었다. 왜놈들이 강점한 땅 그 어디인들 맘 편한 곳이 있었으랴. 녀사의 일가분들도 죽지 못해 살아왔다. 죽물이나 겨우 우리던 가난한 살림에도 혈육들과 이웃들 사이에 서로 돕고 위하는 마음만은 극진하였다.

《귀한건 사람의 마음이란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은 곱게 먹구 살아야 한다.》

녀사께서는 지금도 어머니가 하시던 말썽을 잊지 않으시었다. 인정과 의리를 귀중히 여기고 남을 위해 자기를 다 바치는것을 더없는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회령집의 가풍이었다.

녀사께서 물으시었다.

《그럼 행패질을 당한 그날 밤 재봉기도 함께 빼내왔는데요?》

《그랬다우. 사실 그 재봉기에는 피눈물이 배여 있다오.》

해방전 선화의 아버지는 왜놈이 경영하는 탄광에서 일했다. 조선사람의 고혈을 짜내여 제 배를 불리우는데만 피눈이 된 탄광주논은 초보적인 로동보호시설조차 없는 막장에 로동자들을 들이밀었다.

때없이 봉락사고,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났다.

갈탄이 무진장하게 매장된 회령탄광은 지층이 무르고 지압에 눌려 락반사고가 무시로 일어나 하루가 멀다 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탄광측에서는 로동자들이 무리로 죽어나가도 통나무값이 금값이라고 하면서 웬간한 막장에는 동발도 드리지 않고 탄을 캐게 했다.

그렇게 칠성관을 등에 지고 사자밥을 먹으며 탄을 캐고도 손에 쥐는것은 몇푼도 되나마나했다.

더는 참을래야 참을수 없었던 로동자들은 로동조건과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을 일으켰다.

조직의 지도가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파업은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파업은 실패하고 선화 아버지와 여러명의 로동자들이 경찰서에 끌려갔다.

며칠만에 들것에 실려나온 선화 아버지는 감방에서 당한 고문의 어혈로 한달만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길을 가면서도 선화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했다.

힘악한 세상에 어린 딸을 남겨두고 가는것이 죽어서도 마음놓이지 않아서이리라.

아버지의 시신을 불안고 목놓아우는 애어린 처녀의 곡성은 듣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끓였다.

죽음의 막장에서 함께 고역을 치른 동료들이 피에 절고 땀에 절은 돈을 모았다.

땀애가 손재간이 있다고 어떻게 하나 돈을 모아 재봉기를 사주는것이 소원이라던 친구의 말이 가슴을 찔던것이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소원을 죽은 다음에라도 이루어주어 친구의 저승길을 편히 보내려는 탄부들의 눈물겨운 인정에 의해 마침내 재봉기가 마련되었다.

선화를 부렁에 있는 삼촌네 집으로 빼돌리던 그날 밤 어머니는 신신당부했다. 《선화야, 너 어떻게 하나 이 재봉기에 의지해서 입벌이를 하며 살아가거라.》 바로 그런 사연이 담긴 재봉기였다.

《그런데 그 재봉기를 팔았던 말이지요?》

녀사께서는 조용히 뇌이시었다.

《선화동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요?》

녀사께서는 어서 그를 만나보고싶으시었다.

《제 삼촌을 따라 공장에 나갔지요. 글썽 집안에만 꼭 백허살던 애가 해방바람이 났다오.》

녀인의 목소리는 흥에 떠있었다. 정말로 해방바람이 난것은 선화보다도 녀인인듯싶었다.

일행은 다시 자동차에 올랐다.

《옥분동무, 우리가 선화동무네 집에 들려보기를 정말 잘했어요.》

《예, 그래요.》

녀사께서는 마음이 즐거우시었다. 선화를 결코 빗보지 않았다는 생각, 고향처녀가 새 조국건설에 뭔가 이바지하려고 한다는것이 더없이 기쁘고 대견하시었다.

(선화가 지금 뭘하고있을가?)

김정숙동지께서 야금공장에 도착하신것은 한낮이 다된무렵이었다. 공장복구위원회 일군이 정문입구에서 녀사를 맞이하였다.

《현장부터 돌아봅시다.》

녀사께서는 사무실로 안내하려는 일군의 청을 가볍게 사양하시고 로동자들이 일하고있는 현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왜놈들이 마사놓고 간 공장은 첫눈에도 어수선했다. 여기저기에 허물어진 벽체들, 엇가락처럼 뒤틀린 철근구조물, 깨어진 벽돌장들...

녀사께서는 공장복구형편을 료해하시며 이렇게 물으시었다.

《공장을 복구하는데서 제일 애로되는것이 무엇인가요?》

《로동자동무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지 못한것입니다.》

일군은 공장을 복구하는데서도 그렇고 생산을 당장 시작하려고 해도 기술기능수준이 걸렸다고 하면서 그것은 왜놈들이 로동자들을 부려만 먹었지 웬만한 기술공정에는 발길도 얼씬 못하게 했기때문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공장복구사업과 기능공양성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녀사께서는 미리 생각을 하고계신듯 스스럼없이 말씀하시었다.

《동시에 말입니까?》

일군은 당면한 공장복구에만 정신을 쏟다보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이 닿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요. 미리감치 자체의 힘으로 기능공양성학교 같은걸 세우는게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공장일군의 활기에 넘친 대답이었다.

구내길에서 얼마쯤 떨어진 익측에 웃썰미를 채 썬우지 못한 건물이 바라보였다. 벽체는 반나마 무너진 그대로였다.

《저건 무슨 건물입니까?》

녀사께서 물으시었다.

《전기로직장 건물입니다.》

《가봅시다.》

녀사께서는 먼저 발걸음을 돌리시었다. 너렁청한 건물안에는 여라문명의 사람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숨죽은 전기로결의 먼지봉당에서 뭔가 하고있었다. 공장일군이 오늘은 모두 기초파기공사에 동원되어 직장에 사람이 얼마 없다고 녀사께 말씀드렸다.

인기척을 느낀 사람들이 머리를 들었다. 뜻밖에 나타난 손님들앞에서 그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어리둥절해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녀사께서는 노동자들을 향해 먼저 머리를 숙이시었다. 군복차림에 상냥한 미소를 담고 서계시는 녀사를 띄여본 사람들이 급기야 깊숙이 허리를 굽혔다.

공장일군이 그들에게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공장복구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나오셨다고 알려주었다.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뜻밖에 차례진 기쁨과 환희로 하여 어쩔줄 몰라했다.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녀사께서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었다.

《전동기를 설치하고있습니다.》

나이지숙한 사람이 대답하며 자기가 이곳 직장장이라고 말씀드렸다.

《어려운게 많지요?》

《그렇지만 일없습니다.》

녀사께서는 한쪽옆에 있는 전동기를 유심히 바라보시었다.

《퍽 눈익어보입니다. 이 전동기가 재봉기를 팔고 사왔다는 그 전동기가 아닙니까?》

《예?!》

직장장이 의아한 눈길로 녀사를 바라보았다. 직장장보다 더 놀란것은 공장일군이였다. 전기로를 살펴보겠다고 밤낮으로 뛰여다니던 직장장이 제힘으로 해결했다는것만 알았을뿐 재봉기를 팔고 사왔다는것은 처음 듣는 소식이였다.

《공장으로 오던 길에 직장장동무의 집부터 먼저 들렀습니다.》

녀사께서는 그 누구를 찾으시는듯 둘러선 사람들을 일별하시다가 맨뒤에 서있는 한 처녀에게서 시선을 멈추시었다. 가리마를 끈게 탄 외태머리, 색이 바래고 썩이 닳아 덧기운 치마저고리를 입은 처녀...

《선화동무가 아니예요?》

녀사께서는 반가운 목소리로 그를 찾으시었다.

《예, 조선화예요.》

선화가 녀사앞으로 달려나왔다. 그토록 만나뵈고 싶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를 이렇게 뵈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그였다.

《녀사님, 전번에는 제가 미처 알아뵈지 못하고... 버릇없이 행동한 저를 용서해주십시오.》

《뭘 그래요? 나는 선화동무가 그렇게 훌륭한 동무인줄은 몰랐군요.》

《예?》

《삼촌어머니한테서 선화동무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녀사께서는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그리시며 처녀의 얼굴을 미덥게 지켜보시었다. 나라의 해방과 함께 희망찬 앞날을 그려보고있는 처녀, 몸에는 비록 색이 바래고 허름한 옷을 걸쳤어도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청신한 새싹이 움트고있는것인가. 장차 그 새싹이 움트고 자라 이 땅에 무성한 숲을 펼치고 향기 그윽한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고 가꿔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재봉기를 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녀사의 물으심에 선화는 뒤늦게야 입을 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끄럽습니다. 사실 전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부터 했습니다. 오늘 떠날가 래일 떠날가 말미를 전주던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조국개선연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신 장군님께서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시려고 새 조국 건설에도 부르시였는데 숨죽은 공장을 두고 고향으로 훌쩍 떠난다는것이 맘에 켜기였습니다. 뭣뵈지 못했습니다.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싶었고 적은 힘이나마 공장복구에 이바지하고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을 잘했습니다. 그런 결심이면 못해낼 일이 없어요. 인제는 여기에 있는 동무들이 공장의 주인입니다. 동무들의 힘으로 공장을 돌릴수 있겠습니까?》

녀사께서는 선화에게서 시선을 떼시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었다.

《있습니다.》

직장장이 배심종게 대답을 올렸다.

《전기로에 저렇게 쇠물이 엉켜붙었는데도 말입니까?》

녀사께서는 숨죽은 전기로를 가리키시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동기를 돌려 산소를 얻게 되면 개미가 뼈다귀를 갉아먹듯 얼어붙은 쇠물을 산소용접으로 야금야금 뜯어내고 다시 불을 지피면 전기로를 얼마든지 되살릴수 있습니다.》

《그 신심이 마음에 듭니다. 신념이 확고하면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웁습니다.》

공장일군이 의외로 활기를 띠며 대답을 올렸다.

부령야금공장은 전에 일본놈들이 대륙침략을 위한 군수공업용 목적으로 합금강을 생산하기 위하여 세운 공장이었다.

《우리가 장군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하루빨리 부강조국을 건설하자면 이곳에 튼튼한 합금강생산기지를 꾸려야 합니다. 청진제철소에 가봐도 그래 지금 어디 가나 요구되는것이 합금강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떻게 하나 우리 손으로 합금강을 뽑아내겠습니다.》

《동무들의 결의를 **김일성** 장군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녀사께서는 신심에 넘쳐 대답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빙 둘러보시다가 문득 선화에게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고향에는 더러 가봤어요?》

《가지는 못하고 어머니가 고향소식을 갖고 한번 찾아왔더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해요?》

《예, 정정합니다.》

《고생속에 살아오신 어머니인데 섭섭치 않게 고향에 종종 가보군 하세요.》

《예.》

선화가 손을 눈굽으로 가져갔다.

김옥분이 조용히 녀사곁으로 다가서면서 말씀드렸다.

《정숙동지, 우리도 고향에 다녀오자요. 회령은 여기에서 한나절길밖에 되지 않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나에게는 할일이 많아요. 전에는 산에서 총을 잡고 일본놈과 싸웠다면 지금은 **김일성** 장군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받들고 파괴된 공장과 농촌을 복구하여 인민생활을 안정시켜야 해요.》

사람들이 소리없이 굳어졌다. 심장의 박동소리만 쿵쿵 울렸다. 갑자기 정숙해진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녀사께서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아니, 왜들 그래요? 회령에는 이다음 백살구꽃

이 필 때 함께 가보지요. 이길로 우린 고무산세멘트공장에도 가봐야지요.》

녀사께서는 다심하신 눈빛으로 옥분이를 찾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보자기에 싸갖고 다니던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었다. 옥분이 놀라는 기색이었으나 녀사께서는 어서 그렇게 하라고 거듭 이르시었다. 잠시후 옥분이가 보자기에 싼 옷감을 가져왔다.

녀사께서는 보자기를 펼치시고 정히 포갠 목세루 천옷감을 집어드시고 선화의 몸에 걸쳐보시었다.

《선화동무, 색깔이 맘에 들어요?》

《예.》

녀사의 물으심에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던 선화가 뒤늦게 대답을 드렸다.

《그럼 이 옷감을 받아줘요.》

《예?! 아니, 이건...》

선화가 텐갑을 하며 급히 사양했다.

《이제 고향집에 갈 때 새옷을 지어입고 가요.》

《난... 난 일없어요.》

《어서 받아요. 지금은 이것밖에 줄것이 없군요. 오면서 보니까 골목길어구에 양복점이 있더군요. 이제 얼마 안있으면 설날인데 어머니한테 찾아가 인사도 올려야 할게 아니예요?》

옷감을 받아준 선화가 급히 어깨를 떨었다. 손잔 등에 맺힌 물방울이 점차 커지며 바닥으로 도르륵 굴러떨어진다. 옥분이도 눈굽을 적시고있었다.

《선화동무, 얼굴을 들어요. 난 동무가 앞으로도 공장복구에서 앞장설것을 부탁해요.》

부령야금공장을 돌아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날 끝장 고무산세멘트공장으로 향하시었다.

×

그때로부터 수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민들은 회령의 오산덕기슭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모시였고 때없이 찾아와 꽃송이를 드리였다. 어느날 동상앞에서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는 한 녀성이 있었다. 조용히 눈굽을 찌고있는 그녀는 조선화였다. 녀사를 우러르는 그의 앞가슴에서는 영웅메달이 해빛에 번쩍이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시는듯 봄빛같은 밝은 미소를 짓고계시었다.

문득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두만강기슭에 꽃들은 피고

그리움은 가슴속에 넘쳐납니다

...

수령님과 땅

박 정 애

봄이면 꽃바다3천리
가을이면 감자바다3천리
시작은 어디 끝은 또 어디
내 지금 서있다
해맞이 대흥단별

아침안개바다 한끝에
점점이 머리는 봉우리들은
조국땅 남해기슭 섬들인듯
내 머리들어 우러르니
온 나라를 굽어보는 백두령봉

나도 그 령봉에 뿌리내린
작은 봉우리인듯
온몸에 넘치는 백두의 넋 백두의 기상
내 조국에 절을 드리며
무릎꿇고 안아보는 한줄 흙

이 흙이었다 이 땅이었다
아버이 우리 수령님
전화의 상처를 가져야 했던
1954년 7월 이 벌을 찾으시어
삼을 드시고 파보신 땅 안아보신 흙

수령님 안아보신 한줄 흙
정녕 그것은 흙이 아니었다
항일의 불길속에서 찾은 조국이였다
전화의 불비속에서 지켜낸 조국이였다
인민의 락원으로 가꾸어야 할 조국이였다

찾았다고 하여 조국이던가
지켜냈다고 하여 땅이던가
가꾸고 빛내여야 조국이기에
우리 수령님 마음속엔 없었다
묵여들 땅 한치의 구석 버려들 하나의 돌...

그래서 보슬비 맞으시며 찾으시어
땅을 파보시어 안아보신 그날부터
한평생을 바치시어 가꾸시고
지행이 짊으면서도 못 잊어 찾으신
조국땅 북변 대흥단 대흥단별

오, 이렇게 펼쳐졌다 대흥단3천리별
수령님 손에 받들린 한줄의 흙에서
이렇게 옥답3천리가 되었다
수령님 손에 받들린 한줄의 흙에 어린
애국애민의 정과 뜨거운 체온으로

내 안아보는 한줄 흙
너무도 무겁고 후더워 가슴에 대여보니
어려오는 모습 들려오는 음성
—대흥단은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아버이장군님의 사랑넉친 음성

아, 대흥단 대흥단은
수령님과 장군님 가꿔주시고 빛내주신 땅
원수님을 천만년 높이 모시고 살
백두산기슭에 펼쳐진
행복의 3천리 사랑의 3천리별이여라

조국을 노래할 때

주 명 옥

무엇때문이라
조국이여 내 오늘
그대를 노래하려 붓을 드니
머리에 흰서리 없는 나이에
어릴적 그때처럼 서슴어지는것은

그 무엇때문이라
숙제문제를 풀지 못하여
선생님앞에 머리숙이고 섰던
어릴적 그때처럼

부끄러워지는것은...

걱정없이 부럼없이 살아온
인생의 하많은 날과 달
그 긴긴세월
조국을 다 모르고살아온
그때문은 아니던가

고백하노라
없으면 순간도 못살

공기보다 물보다
조국은 더 귀중했어도
공기처럼 물처럼 응당한것으로
내 레사로이 생각했음을

씨앗을 품은
포근한 대지마냥 날 품어
걸음걸음 뗏뗏이 키워준
이 세상 제일 고마운 그 품
때로는 철없이 잊고살았음을

정녕 다 몰랐어라 조국이며
일터로 가는 내 발걸음을 지켜
고난을 헤쳐온 그대의 날과 달
행복에 겨워 잠 못드는
이 보금자리 꽃피우려

뜨거운 정 기울여온 그대의 낮과 밤

생각할수록 가슴젖나니
나를 위한 헌신의 자욱만을 새겨온
그대 선군의 세월
다 모르고 살아온것이
때로 잊고산것이
허나 누려온 나의 삶의 모든것
그대 조국의 은혜일진대

아, 조국이며 어머니조국이며
그대 안겨준 사랑을 위해
나의 심장 나의 숨결
그대 위해 서슴없이 다 바쳐
부끄럼없이 내 뗏뗏하게 살리라!

어머님과 진달래

— 회령에 모셔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동상앞에서 —

박 철

봄이 오고 다시 봄 오며
이 땅에 천만꽃 피웠건만
그 무슨 인연이신가
우리러 목메이는 김정숙어머님
오늘도 진달래와 함께 계시네

가난에 서럽던 어린시절
어서 뜰어오셔야 할 산나물
그 봄 오산덕에 안아와
마음속에 고유했던 연분홍꽃
그 시절 추억을 나누시는가

꿈에서라도 한번만 뵈웠으면
간절히도 그리던 수령님
꿈같이 그이를 뵈올 때
삼도만밀림에 설레던 진달래
그날을 못 잊어 쓸어보시는가

두불을 적시신 기쁨이었어라
조국진군의 그날 삼지연에서
한아름 삼가 올리신 진달래
수령님 품에 향기를 풍기며
어머님 감격으로 웃고웃던 꽃

조국진군의 그 길을

제일먼저 맞아준 꽃이라고
밀림의 밤 녀대원들 손수건에
정히 수놓아주시던 진달래
해방의 아름다운 꿈이었어라

안아 어버이수령님께 드리신
어머님 행복의 꽃이며
피워 조국으로 그려보신
어머님 감격의 꽃이며
그래서 해방산기슭 저택정원에도
아름아름 진달래 가꾸셨나니

아, 어버이수령님 받들어
눈속에서도 봄으로 사신 어머님
그이 가슴에 언제나 피어있는
진달래 연분홍꽃 진달래는
녀장군 어머님의 한생의 사랑

우리러 오늘도
진달래와 함께 계시는 어머님
어버이수령님의 녀원 장군님의 리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펼치시는 강성국가에
진달래는 어머님 모시고 가네
어머님은 진달래꽃 피워가시네

보통강반에 펼치신 인민사랑의 기록한 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새 나라》에 대하여—

리 창 유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하고 인민사랑의 정사를 펼치시여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하신 절세의 위인, 백두산3대장군의 불멸의 력도업적과 고매한 덕성이 깃들어있어 사람들은 대를 이어가며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을 두고 행복에 겨워 이야기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건국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력도하신 보통강개수공사.

최근에 나온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새 나라》(윤경찬 작)는 건국의 첫 사업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내세우시고 각계각층 인민의 힘을 총발동시켜 왜놈들이 근 10년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사시키면서 절반도 못한 엄청난 대공사를 불과 두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게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력도업적과 인민사랑의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력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혁명력사와 업적에는 수령의 탁월한 사상리론과 현명한 력도, 고매한 인간적품모가 집대성되어있다.》

소설이 제기한 기본문제는 보통강개수공사는 단순히 자연을 개조하는 사업만이 아니라 각계각층 인민들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인간개조사업이 결합된 공사이라는것, 더 나아가서는 수령의 현명한 력도를 받는 인민의 힘은 무진막강하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제힘으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일떠세울수 있다는 철의 진리를 세상에 보여준 의의깊은 공사이라는것이다.

이 문제에 형상적해명을 주려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해방후 일제놈들에 의하여 파괴된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정비하여야 할 대상도 많고 자금도 부족한 어려운 형편에서 보통강개수공사와 같은 방대한 토목공사를 건국의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삽과 곡괭이같은 수공업적인 생산도구밖에 없는 평양과 주변의 인민들을 발동시켜 짧은 기간에 완공할 결심을 하게 되시였으며 진두지휘하시였는가 하는 어버이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인민에 대한 불같은 뜨거운 사랑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야 하였다.

실제상 작품에서는 이 문제제기와 그 해명에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펴나감으로써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를 훌륭히 그려보이고있다. 여기에 이 작품이 이룩한 수령형상총서작품으로서의 높은 사상에술적풍격이 있고 해방직후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것처럼 빨리, 빛나게 완성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다면적으로 깊이있고 뜨겁게 형상한 비결이 있다.

1

장편소설 《새 나라》에는 지난날 일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갇은 천대와 착취를 받으며 값없이 살아오던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의리와 뜨거운 사랑이 잘 형상되어있다.

제일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에 의하여 파괴된 산업시설도 복구해야 했고 분열된 조국을 통일해야 했으며 수많은 교육, 문화, 보건기관도 일떠세워야 했지만 건국의 첫 사업으로 보통강개수공사를 발기하신다.

당시는 미제놈들이 남반부를 강점하고 세계제패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각종 음모책동을 다하고있을 때였다.

그리고 당내에 기여든 우연분자들과 지방할거주의, 종파주의에 물젖은 제노라고 자처하는 《정치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 공사를 시기상조라고 반대해나설 때였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높은 건국열의에 의거하여 보통강개수공사를 단숨에 해제끼자고 뜨겁게 호소하신다.

보통벌에 태를 묻고 물란리의 세례를 받으며 자식들을 다 잃고 죽지 못해 살아온 농민 오성재, 그는 토지개혁때 소작짓던 4천평의 땅을 분여받았지만 년년이 계속되는 큰물로 하여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 토지분여소유권증서를 내놓고 다른 땅과 바꿔달라고 농촌위원회에 제기한다. 이 증서는 회수되었으며 농림국장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그 사

연이 보고된다.

일꾼들이 소작지이며 갖은 고생을 겪던 농민이 땅타발을 한다고 되게 문제를 세우려 했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은 《그 농민이 오죽이나 물란리를 겪었으면 그랬겠》는가고, 《올해에도 장마가지면 땅이 또 못쓰게 되겠는데...》라고 하시며 이전부터 구상하시던 보통강개수공사를 벌리실 결심을 굳게 하신다.

건국을 하자면 실무적인 타산보다 인민에 대한 사랑을 먼저 놓아야 한다고 하시며 우리 민족의 수난이 집대성된 곳—토성량을 그냥 두고서는 평양시 안에 아무리 큰집을 짓고 공장을 일떠세운다 해도 건국의 의의가 없다고 하시는 어버이수령님.

이 공사를 통해서 인민에 대한 무관심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가 세우는 새 나라가 인민사랑의 나라라는것을 밝히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일꾼들을 일깨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그 말씀.

그 사랑의 정사에 제노라는 행세식맑스주의자들, 지방할거주의자들은 머리를 쳐들지 못한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장에 나가시어 해방후에도 이곳에 남아 자각적으로 공사를 립시 책임지고 일하고있는 장혁수를 만나 왜놈들이 작성했던 개수공사설계를 다시 만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는 장면이며 온 가족을 큰물에 잃고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그의 지난날 쓰라린 사연을 들으시고 몹시 심려하시는 장면 등을 통하여 그리고 그후 수령님께서 김책, 리주연과 함께 토성량에 나가 이곳 주민들이 마시는 비위생적인 물맛도 몹소 가늠해보시고 움막집의 구석구석을 친히 돌아보시는 장면을 통하여 인민사랑의 정사를 떠나가시는 수령님의 고매한 인덕정치를 잘 보여주고있다.

서른이 넘어 장가를 간 후 큰물로 안해와 자식을 잃고 물을 자리가 없어 감탕에 그들을 못었다는 장혁수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어 저녁식사도 들지 못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은 참으로 독자들의 가슴을 울린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수령의 형상에는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수령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에 맞는 문제가 생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어울리는 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의 근본이익, 혁명과 건설의 전략과 로선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작품에 펼쳐지는 보통강개수공사를 받기하시고 착공식에 나오신 수령님께서 평양시와 주변에서 살고있는 각계각층 인민들을 불러일으키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장면 그리고 착공의 첫삽을 뜨시어 건국의 새 력사를 펼치시는 장면이며 이 공사에서 영웅적위훈을 세우고 희생된 임성민의 장례식을 첫 시민장으로 할데 대하여 제의하시는 장면, 공사가 완공된 후 경축대회를 열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장면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탁월한 지

략과 정도예술로 우리 인민을 사랑과 믿음의 한 품에 안아 믿어주고 이끌어주시어 건국의 초행길을 승리적으로 헤쳐가신 회색의 영결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보통강개수공사를 두고 굴착기 한대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대공사를 하는가고 마음속으로 반대해나섰던 쏘련전권대표 슈띠코브는 공사가 완공되자 이렇게 감탄한다.

(정녕 위인이시다! 보통강개수공사뿐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있는 그 모든 기적의 근본요인은 **김일성**동지의 주체의 정치관, 주체의 인민관에 의한것이다. 아!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수령으로 모신 조선인민의 미래는 얼마나 밝고 창창한가!)

슈띠코브의 이 심중의 토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집약시켜 그려보인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가슴을 울리며 깊은 여운을 자아낸다.

2

이 소설이 독자들에게 재미있게 읽히우는것은 작품의 구성이 이야기의 첫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술적흥미를 돋굴수 있게 극성이 잘 짜여져있기때문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의 구성의 생리는 수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떠나가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엮으며 수령에 의하여 설계되고 조직령도되는 혁명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줄거리를 짜나가야 한다.

장편소설 《새 나라》의 이야기는 보통벌의 소작농이었던 농민 오성재가 분여받은 토지소유권증서를 내놓고 다른 고장의 땅을 달라고 하는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토지소유권증서를 두고 이야기는 처음부터 심각한 극성을 띠고 펼쳐지고 발전한다.

그 증서는 농촌위원회에 회수되며 농림국장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게 된다.

일꾼들이 모두 무엄한짓을 한 오성재농민을 타매할 때 오직 수령님께서만은 보통벌농민의 심정을 리해하시며 이미전부터 무르익혀오신 보통강개수공사를 장마철전으로 완공할 결심을 다지신다.

작품에는 회의장면들이 적지 않다. 자칫하면 따분하게 읽히울수 있는 장면들이다.

하지만 작품에서는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사상적대, 정책적대를 강화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적극 살리고 이에 예술적흥미를 돋굴수 있는 여러 인물들의 생활담을 잘 삽입함으로써 소설의 력사 문헌적가치를 보장하면서도 소설을 흥미있게 이끌어 나가고있다.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과 영웅적으로 희생된 곡산공장노동자 임성민의 장례식 그리고 보통강개수공사의 완공경축대회 등이 그러하다.

작품에 나오는 측근인물들과 상대인물들은 일

정한 사회적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으로 형상되어 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수령의 형상은 일정한 사회적계층의 지향과 요구를 대변하는 전형적인물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사회적집단을 통솔하고 인도해나가는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잘 보여줄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인 보통벌의 소작농이었던 오성재며 일제시기 개수공사에 참가했던 노동자 장혁수, 기업이 정근식, 설계가 김운상, 시인 리찬, 기림리 녀맹원 리정혜와 떠돌이생활을 하던 그의 남동생 명덕이, 의사 리수영(정근식의 조카) 등은 각계각층 인민들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측근인물들인 김책, 안길 그리고 부정인물인 오기섭 등은 북조선로사인민위원회의 실상을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여기에 보통강개수공사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온갖 음모를 꾸미는 미제놈들의 악랄한 책동을 대변하는 남조선주둔군사령관 중장 하지와 손때묻은 간첩 구진배를 북반부에 침투시키는 하지의 정치고문 버취 그리고 구진배놈과 결탁된 잠복간첩 로이문 등이 미제와 결탁된 부정인물집단으로 설정되어있다.

작품의 구성에서 찾아보게 되는 우점은 시간상으로는 두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인간관계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동질의 인간들이 등장하지 않은것이다.

매개 인물들은 독자적인 형상의 뉘이 있으며 따라서 개성이 뚜렷한것이 특징적이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있는 역사적사실을 형상적으로 재현하면서 비교적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키면 작품의 구성이 평면성과 단순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것은 동일한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내적으로 밀접히 련관시키기 힘들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에서는 매 인물들의 내적관계를 밀접히 하면서 모든 인물들의 운명선들이 궁극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을 주축으로 하는 주선에 튼튼히 맞물리게 함으로써 어느 한 인물의 형상선을 들어내거나 바꾸어낼수 없게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있다.

여기에 바로 이 작품의 구성이 립체성을 띠게 된 근거가 있고 구성이 산만해지지 않은 비결이 있다.

레컨대 주선에 합류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맞물리는 오성재의 형상선만 하더라도 그러하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옵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토지소유권증서를 농촌위원회에 바친것으로 하여 어버이수령님께 알려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기업이 정근식의 사랑

채에 이사한것으로 하여 그의 행처를 모르시게 된다. 하지만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분여받은 땅에 주변 농민들이 파종을 도와나서도록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주신다. 개수공사가 한창 벌어지자 이 소식을 들은 오성재는 밤에는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낮에는 공사장으로 나간다. 그는 기업이 정근식이 동원장을 받고 대신 일해달라고 하자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은혜를 갚는다고 시간연장을 해가며 그의 뉘까지 일한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정근식을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몸소 가신다.

오성재농민의 형상선은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과 작품의 마지막까지 합쳐지지 않으나 시공책임자 장혁수나 기업이 정근식의 형상선과 밀접한 내적련관을 가짐으로 하여 작품의 주선을 보강하며 다른 인물들의 형상선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있다.

주요인물인 리명덕의 형상선도 주선과 직접적인련관을 가지지 못하고 주요인물인 장혁수의 형상선, 누이 리정혜의 형상선을 통하여 주선과 간접적으로 련관관계에 놓여 펼쳐진다.

모든 개개의 형상선들이 주선과 합류되는 인물들과 밀접한 내적련관을 가짐으로 하여 주선을 보강하는 위치에 놓여진다.

이것은 외궤를 타고 이야기가 평면적으로 흐르는 구성형식과는 다른 구성형식으로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선을 주축으로 하면서도 다른 인물들의 형상선에 합류되어 주선을 보강하는 독특한 구성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에 주어진 독특한 형상선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인상을 보여주는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의 형상선과 어리신 장군님의 형상선이다.

특히 김정숙어머님의 형상선은 작품의 처음부터 주선에 합류된 형상선으로서 물란리에 온 가족을 잃은 시공책임자 장혁수와 기림리 녀맹원격대원인 리정혜의 애정선과 설계가 김운상과 의사인 리수영의 애정선과 련결되어 두쌍의 사랑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서 중요역할을 한다.

여기서 김정숙어머님의 형상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이념위천의 높은 뜻을 여러 인물들에게 심어줄뿐 아니라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몸소 풀어나가시기 위해 애쓰시는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갖게 하며 이로써 작품의 예술적흥미를 한껏 돋구어주고있다.

장편소설 《새 나라》의 구성에서 찾아보게 되는 우점은 또한 주선을 굽고 뚜렷하게 그어가면서도 시공간적으로 겹놓인 주요인물들의 형상선을 합리적으로 준것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주선은 어디까지나 수령의 활동과 사색과정에 대한 이야기선이라고 할수 있다. 주선을 이루는 이야기는 수령의 심오한 내적체험과 남다른 심리세계, 비상한 성품과 위대한 품모

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작가의 서술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주로 수령과 주요상대인물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다.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측근인물인 김책, 리주연과 자신께서 구상하시던 보통강개수공사를 토지개혁을 한 직후에 인차 시작하여 장마철전으로 완공할데 대하여 의논하신다.

하나를 통하여 열백을 헤아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에 여러 측근인물들도 인차 공감하고 각성하여 수령님의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떨쳐나선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보통벌사람들의 생활을 헤아리시려고 토성랑에 나가 물긴는 녀인들과 담화도 하시고 그들의 집을 돌아보시며 가슴아파하시는 장면이며 공사의 시공책임자로 장혁수를 대담하게 임명하시는 장면, 그의 새생활을 넘려하여 김정숙녀사와 의논도 하시고 설계가 김운상, 기업가 정근식을 친히 만나시는 장면... 이 모든것은 작품의 주선을 이루는 장면들이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착공식에 나가 연설하신 후 첫삽을 뜨시는 장면, 여러차례나 공사진행과정을 료해하시며 이 공사의 성과적인 완공을 위해 친히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헤아려보시며 대책을 세워주시는 장면 그리고 공사와 관련한 중요한 회의들... 이 모든것은 뚜렷이 주선을 부각시키고있다. 이 주선은 주요상대인물인 장혁수며 정근식, 오성재 등과의 관계속에서 보충보강하여 하나의 굵은 타래로 엮어져 이야기줄거리를 이룬다.

여기서 특이한것은 상대인물과의 관계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과 관심속에 그리고 주선을 이루는 수령님의 활동에 상대인물이 련관되면 이 형상선은 주선에 밀착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작품에 나오는 보통벌농민 오성재의 형상선, 곡산공장 노동자 임성민의 형상선이 그러하다. 이러한 형상선들은 제나름대로 주선을 보강하는 지선들로서 때로는 빨리, 때로는 서서히 영향을 주다가 주선에 합류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선들은 그자체가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는 지선을 이루고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이러한 지선들의 독자성만 강조하고 주선에 합류되며 이야기를 승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러한 형상선은 아무리 눈에 띄이게 독특한것이라 해도 불필요한것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것은 이 작품에서는 개개 형상선(지선)들이 궁극에는 주선에 합류됨으로 하여 구성의 립체미를 확고히 보장하고있다.

이 작품의 구성상우점으로서는 이체로운 세부들과 장면들이 잘 삽입되어 이야기가 극성이 있게 펼쳐지게 한것이다.

레컨대 분여받은 토지소유증서에 대한 세부, 장

혁수가 녹은 값으로 산 삼에 대한 일화, 지구의에 정근식이 먹칠하는 세부만 해도 그러하다.

이러한 세부들은 이야기를 새롭게 발전시켜나갈 전체를 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 장면의 이야기와 다른 장면의 이야기를 련결시키기도 한다.

기업가 정근식이 농민 오성재에게 자기의 동원증을 맡기면서 자기 대신 일한 확인을 받아달라고 하는 세부며 아들을 보겠다고 헛눈을 팔며 집을 나서는 아버지를 보고 구전민요 《아리랑》곡에 맞춰 놀려대는 딸 리수영이 지은 노래에 대한 세부는 개개인물의 성격적높이와 개성적인 성격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 작품의 구성은 이처럼 작가의 탐구가 깃든 이체로운 세부들이 적지 않게 인입되어 형상을 기쁨지게 하고 소설전반의 예술적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작품은 언어형상도 높은 수준에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을 마치고 평양으로 들어오시던 길에 봉수산기술 서재골입구에 차를 멈추시고 토성랑을 바라보시며 가슴아파하시는 장면을 보자.

《토성의 경사면을 감자웁처럼 파내고 출입문대신 거적을 드리운 움막집들이 지금 그이의 시야를 짝 채우는듯싶었다. 눈이 덮여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모름지기 움막지붕에는 양철썩박들과 합판썩박들이 얹혀져있을것이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별빛이 새여들고 여름에는 비물이, 겨울에는 눈석이물이 떨어지는 움막집, 어둡고 누기찬 방안에 비오는 날에는 개구리가 뛰여들고 청청한 날에는 쉬파리가 물려드는 무덤보다 못한 집...》

그렇게 사는것도 행복이라고 장마때면 그 잘난 집마저 홍수에 잃고 목숨까지 물거품처럼 떠내려보내며 최하층의 생활을 강요당해온 토성랑사람들... 아! 조선인민은 어찌하여 이다지도 비참하게 살아야 했던가.

이제 저 사람들이 올해의 추운 겨울을 또 어떻게 견디어낼것인가? 저 사람들도 〈해방 만세!〉를 목청껏 웨쳤을진대 해방이 그들에게 가져다준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과연 건국이라는 말속에는 토성랑이 포함되지 않는단 말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시점과 작가의 시점으로 엮어진 전경묘사와 심리묘사는 참으로 아무리 힘에 부치고 할일이 많아도 보통강개수공사를 먼저 할 결심을 다지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내면심리를 잘 엿볼수 있게 하고있다.

수령형상장편소설 《새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과 구성상특성을 중심에 놓고 작품의 형상세계를 간단히 론의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깊은 탐구와 사색이 깃든 웅대한 지성도를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수령형상문학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아, 미 래

조 광 철

동이 뜬다
새날입니다
불붙듯 떠오르는 아침태양을 향해
은빛 창문들이 다투어 열립니다
거리와 마을에 울려퍼지는 《애국가》의 선율은
가슴가슴을 흔들어줍니다.

맑기도 합니다.
싱싱한 아침공기며
눈부신 해살 쏟아져 내리는 저 하늘도
출렁이는 강물도 푸른 잔디도
이 아침엔 류달리 더 푸르러

찬란한 태양아래
우리의 공화국기가 나뭇길입니다
공지높이 그리고 보란듯이
그 자랑스러운 기폭을 펴드립니다
사람들 누구나 활력에 넘쳐
애국의 길 드바빠 재촉하는 아침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곡백과 무르익는 넓은 들이며 과원
초고층살림집 높은 로대에선
비둘기 훨훨 무리지어 날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병사는
이 아침도 피로써 지켜낸 람홍색 공화국기를
휘날립니다

모두들 보십시오
그것은 아, 그것은
우리 공화국의 끝없이 휘황찬란한
미래
밝은 미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래입니다
떼구름처럼 밀려들던 온갖 원수들
갇은 발악과 도전을 짓부신 조국
푸르디푸른 내 나라의 하늘가에 비껴간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밝은 앞날입니다

그 미래는

최고사령부를 최전선에 정하신 원수님
낮이나 밤이나 이어가시는
초소길 공장길 농장길에서 펼쳐집니다
오로지 인민의 리익을 위해서 바치시는
그 애국헌신으로 밝아옵니다

환히 보입니다
인민의 모든 리상이며 사회주의부귀영화
훌륭한 마식령스키장
원수님 다녀가신 스키주로 따라 미래가 옵니다
세포등판에 흐르는 젓소떼 양떼들
유원지마다에 넘쳐나는 문명한 생활들이

누가 감히 건드릴수 있습니까
선군의 보검을 비껴든
가장 존엄높고 강대한 백두산대국을
축복받은 소년단야영소들에 울리는
아이들의 순결한 저 웃음소리를
일터와 전야의 주인으로 사는 인민들
그들이 안아올린 이 땅의 값진 재부들을

아, 미래!
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의 65돛을 아로새긴
우리 공화국의 미래는 승리 승리입니다

미래를 확신하는 승리자들은
더 힘차게 씩씩하게
더 큰 보폭을 내디딤니다
우리 당의 드림없는 병진로선을 따라
세인을 놀래우는 《마식령속도》로
원수님의 숨결과 발걸음에 맞추어

선군조선이 나아갑니다
영웅인민이 나아갑니다
최후승리를 향해가는 불패의 우리 조국
아, 진정
미래는 우리의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것입니다

어머님께 꽃을 드리며

문 동 식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사는 주작봉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내 꽃을 안고 찾아왔건만
왜서입니까 김정숙어머님이시여
드리는 꽃보다 뜨거운 눈물이 먼저
대돌우에 점점이 먼저 떨어짐은

서른두해 젊디젊으신 나이
돌이켜보면
어머님처럼 그 나이에
나도 우리모두
이 땅우에 해놓은 일 너무도 적어
인생의 시작처럼 생각되던 서른두해

허나 어머님께서 그 서른두해에
모진 세월의 모진 눈비를 다 맞으셨으니
생각만 해도 우리 눈앞에
만년장설을 떠인 백두산처럼
송엄하게 빛나시는 우리 어머님

마치 만대에 휘감아놓으신
세월의 년륜처럼 서른두돌기
그 한돌기 또 한돌기 헤아려보면
어머님께서 헤쳐오신
혈전만리광야의 철비 불비가
우리 온몸이 저리도록 보여옵니다

시련의 준령들을 넘고넘으시며
어머님께서 건너오신
불바다 피바다 눈물의 바다는 또 그 얼마
원췌에게 오빠와 동생 일가혈육들을 다 잃고
김일성장군님따라 준엄한 결전장에
불길처럼 타오르신 어머님의 혁명생애...

서른두해
너무도 짧디짧으신 그 생애에
어머님께서 불타는 애국충정으로
이 세상 만복의 꽃 다 피우시여
우리모두에게 만대에 누려갈 기쁨을 주시고도
자신은 서른두해
그 모든 복을 단 한번도 누려보지 못하셨으니

불같이 살아오신 서른두해
그래서 어머님이시여
민족의 태양을 결사옹위하시며
선군태양을 받들어올리신
어머님의 불멸의 업적 못 잊어
내 오늘 여기에 찾아왔나니

드리옵니다
서른두해 그 짧은 한생에
이 땅우에 태양의 무궁한 세월을 펼치시고도
어머님께서 누리시지 못한 그 행복
꽃송이에 다 담아 우리모두
정중히 머리숙여 드리고드리건만

어머님께서 이 순간에조차
그 모든 꽃송이들을
태양의 해발로 더 아름답게 피우시여
우리모두에게 주시고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께
아, 우리는 삼가 드리옵니다
순결한 마음짓은 꽃송이는
어머님을 영원히 충정으로 길이 모시는
우리모두의 한생의 전부입니다

가 사

이 병사가 내 딸이요

김 경 석

포진지를 찾아주신 원수님을 모시고
감격에 울고웃으며 기념사진 찍은 모습
백발백중 명중탄을 목표마다 들쑤운
미더운 방사포병 이 병사가 내 딸이요

군복입고 떠날 땐 애송이만 같더니
얼마나 릉름한 녀장부가 되었나보오

원수님슬하에서 일당백힘을 키워
원췌들이 벌벌떠는 이 병사가 내 딸이요

내 조국의 안녕위해 통일대전 승리위해
금별의 위훈떨칠 그날도 비긴 모습
원수님품에 안겨 세상이 부러웁게
청춘을 빛내가는 이 병사가 내 딸이요

원수님 모시고 찍은 사진

송 명 근

꿈일가봐
깨여날가봐
숨소리도 죽여가며
기다렸습니다

흐르는 한초한초가
벗어선듯
길고길어
두손모아 잡았다 폼다
기다렸습니다

차례차례 한명씩
팔을 끼고
손을 잡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님
감나무중대 병사들과
사진을 찍어주십니다

최고사령관의 시간으로 흐르는
병사들 위해 흐르는
영광중의 영광인 이 자리

사시절 눈비와
해풍에 젖은 군복을 입고

성스러운 조국의 초소를 지켜가는
복무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빛내주는 이 자리

병사 한사람 한사람을
한전호에 선 전우라 뜨겁게 불러
원수님 세워주신
이 세상 가장 높은
믿음과 사랑의 이 절정

한명
또 한명...
원수님 팔을 끼고
한치의 간격도 없이
병사가 섰습니다

병사 한사람 한사람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전우애의 사단이
결사옹위의 대련합부대가
앞에 뒤에
좌우 량옆에
둘러섰습니다
아, 원수님 모시고 찍은 사진!

또 오셨습니다

김 영 일

그렇게도 그림고 뵈고싶었어도
너무도 위험한 곳이었어서
다시는 오시지 말아달라고
목메여 말씀드렸건만
원수님께서서는 또 오셨습니다

자나깨나
그리운 원수님이시건만
원수님은 조국과 우리의 운명이시여서
여기에 모실수가 없었습니다

물보다
적들의 섬이 더 가까운 곳
물은 보이지 않아도
적의 초소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곳

그런데 여기에 또 오셨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자그마한 섬이건만
병사들이 있는 곳이었어서
언제나 오고싶은 곳이라시며

병사들의 심장은 오로지
원수님안녕을 위하여 고동치고
병사들은 천겹만겹
그이를 옹위하여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다시 원수님을 바래우며
아뢰이는 병사들의 간절한 마음
다시는 다시는 오시면 안됩니다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아, 경애하는 원수님
다시 오시면 안됩니다
간절히 말씀드리는 병사들의 마음
그러나 병사들은 모시고삽니다

낮이나 밤이나
꿈속에서도 안겨사는 품
원수님을 언제나
제일 가까이 모시고삽니다



안 명 국

1

반두질에 지쳐버린 두 소년은 시내가 버들방천
우에 올랐다.

바지가랭이를 걷어붙인채로 잔디밭우에 누운 두
소년은 모내기가 끝난 농장벌을 바라보았다. 파아
란 그 벌을 한품에 안은듯 런던 런던 뻗어간 산밭의
어디에선가 삐죽새소리가 울려왔다.

한가스레 풀을 뜯는 엄마소의 주위를 맴돌며 정
충경충 뛰어놀던 송아지 한마리가 그 소리에 화답
하듯 음메— 하고 영각소리를 터뜨렸다.

봄이 한창인 고향산천은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
다왔다.

향촌의 유정한 봄경치에 취해있던 창호는 이렇
듯 정가로운 아름다움이 저 작은 시내물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가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가는
바람결에도 하느적이는 버들가지며 키를 돋구느라
살랑거리는 벼포기마저도 저 유정한 물의 혜택속
에 사는듯 한...

언제나 얼어붙었던 시내물이 지졸지졸 흐르기 시
작하면 이 땅엔 어김없이 봄이 왔고 앙상하던 나무
아지마다에서는 푸른 잎새들이 뽀조롭히 얼굴을 내
밀곤 했던것이다.

《저 시내물의 시작은 어딜가?》

창호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저기 산중턱이야.》

풀대를 잘근잘근 씹으며 푸른 하늘을 떠가는 흰
구름송이를 올려다보던 성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너 가봤니?》

창호는 호기심에 물었다.

《응, 울엄마하구 약초캐러 갔다가 보았어.》

《정말?》

《정말아니문, 너 내가 거짓부리하는걸 봤니?
야, 바위째에서 맑은 물이 뽕뽕 솟구치는게 신기
하더라.》

《야, 나도 한번 가봤으면...》

창호는 무척 궁금했다.

《우리 같이 가볼가?》

성민이 그의 호기심에 부채질을 했다.

《응, 가자.》

두 소년은 그물구렁안에서 팔딱거리는 물고기도,
손때묻은 반두도 까맣게 잊고 그달음으로 길을 떠
났다.

시내가를 따라오를수록 물줄기는 점점 가늘어졌
다. 산기슭에 이르니 물줄기는 사라지고 웅기종기
몽켜있는 바위들사이로 맑은 물이 도랑을 이루고
흘러내렸다.

《아직 멀었니?》

개암나무숲을 헤치며 성민을 따라오르던 창호가
저녁노을이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며 근심스레 물
었다.

《거의다 왔어.》

와삭와삭 풀대를 밟으며 앞서걸던 성민이 산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푸드득—

방금 성민이 지나친 풀숲에서 인기척에 놀란 까
투리 한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날아올
랐다.

《후유, 깜짝이야.》

창호는 식은땀을 손으로 훔치며 숨을 내불었다.

《집쟁이같은거, 조심해. 이제 한놈이 또 있
어.》

《정말?!》

《방금 날은 놈이 까투리니까 이제 장평이 또 있

을거야. 그놈들은 항상 짝을 지어다니거든.》

그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창호곁에서 깃털빛이 류달리 아름다운 꿩이 또 날아올랐다.

창호는 나무무늬지사를 날아가며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침범한 나 어린 침입자들에 대해 항변하듯 《꾸엉—꾸엉.》하고 울어댔다.

그들이 샘터에 다달았을 때는 수림속에 어둑어둑 황혼이 깃드는무렵이었다.

성민의 말대로 아름답리 참나무가 보초병처럼 서 있는 바위처럼팍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고있었다.

가는 모래알갱이들을 일렁이며 풍풍 솟구치는 샘물은 볼수록 신기했다.

(정말 이 샘물이 우리 고향의 그 내가를 이루었을가?)

이런 생각을 하며 들여다보느라니 이 샘은 또 어디서 솟아오를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깊이를 알수 없는 땅속을 파헤치고 들여다보고싶은 심정이었다.

《이 샘의 시작은 또 어딜가?》

무릎을 꿇고앉은 창호는 쉬임없이 솟구치는 샘물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성민이 심드렁해서 대답했다.

《아직은 몰라.》

《야, 그래도 한번 볼수만 있다면...》

《참, 창호야! 이답에 어른이 되면 볼수 있어.》

《어떻게?》

창호는 성민의 갈썹한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며 물었다.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보면 되지 뭐.》

《기계? 정말...》

《우리가 이제 크면 그런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있는지 다 밝혀낼수 있을거야.》

《우리가?》

《그럼. 왜? 못할것 같니? 우리 어머니 그랬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성민의 행동은 갑자기 어른스러워졌다. 그런 그를 쳐다보는 창호의 눈가에는 부러움의 빛이 다분히 비끼었다.

《이젠 내려가자. 집에서랑 우릴 찾겠다.》

창호는 더 있고싶었으나 슬깃슬깃 깃드는 어둠과 성민의 독촉에 이끌리어 아쉬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먹었다.

(난 땅속에 들어가서 내 눈으로 직접 볼테야.) 하고...

...

한겨울의 대지를 박차고 오른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자기 궤도에 성과적으로 진입하였다는 소식을 막장에서 받은 김창호는 이제 막 아득히 흘러가버린 어린시절추억의 한토막을 되새

기며 환희의 미소를 지었다. 그 인공지구위성 발사 성공에 공헌한 연구집단에 바로 창호의 소꿉친구인 성민이가 있었던것이다. 성민은 동심에 넘치던 그 시절의 꿈을 드디어 실현하였다. 이것은 성민의 기쁨이기 전에 창호의 기쁨이기도 했다. 그만큼 그들은 헤어질래야 헤어질수 없는 혈연적인 뉴대를 지금껏 간직하고있었던것이다.

창호는 항상 그가 그리워났다.

생산지휘를 하느라 막장마다를 좁다하게 뛰어다니는 속에서도 창호의 마음은 한량없이 즐겁고 친구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들먹이 차고넘치곤 하였다.

2

김창호는 막장을 나서는 길이었다.

쌀쌀하면서도 청신한 공기가 폐장을 타고 흘러들었다. 심신이 거뻐해지는것을 즐겁게 느끼며 그는 흰눈덮인 맞은편 산발너머 하늘가에 눈길을 주었다. 아마도 저 맑고 푸른 하늘가 그 어디엔가 성민이네가 씩올린 우리의 위성이 날고있으리라, 그 위성에서 전송된 화상자료를 통해 성민이 지금 오래간만에 갭입구를 나서는 소꿉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절로 흥그러워졌다. 그러던 창호는 등뒤에서 울려오는 전차소리에 와뜰 놀라 한옆으로 비켜섰다.

함박꽃무늬머리수건으로 뒤통리를 잘끈 동이고 안전모를 살짝 눌러쓴 전차운전공처녀가 창호를 향해 생긋 미소를 지어보이며 탄차를 끌고 지나갔다.

처녀의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창호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그사이 탄차는 저탄장쪽으로 멀어져갔다. 막장에서 늘 만나고 헤어지곤 해서 이제는 친숙해진 탄부들의 인사에 미처 답례를 보내지 못한 자신의 행동에 그는 머리를 흔들며 맹랑하게 웃었다.

하루일을 끝낸 탄부들이 막장을 나오며 나누는 흥분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협의회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있었다.

창호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서 곧장 집으로 향했다.

《어쩌나, 아직 저녁을 짓지 못했는데...》

방금 퇴근해들어온 길인듯 안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를 맞았다.

창호는 시장기를 느끼며 물었다.

《거 찬밥이라도 있겠지?》

《찬밥이야 어떻게... 인차 밥을 짓겠으니 조금만 기다려요.》

안해가 쌀함박을 가지고 들어오며 하는 말이다.

《시간이 없소. 있는것으로 좀 차려주오.》

창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재촉했다. 그리고는 거
쿨진 몸을 쏘파등받이에 푹 기대며 앉았다. 온몸이
나른하고 순간에 피로가 겹쳐들며 눈이 감긴다.

《봄순이 아버지, 식사하세요.》

안해가 몸을 흔드는 바람에 창호는 눈을 떴다.
그사이 깜박 잠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안해가 어느새 밥을 지었는지 밥그릇에서는 더운
김이 문문 피어오르고있었다. 며칠밤을 꼬박기 새
우다싶이 하며 이 막장에서 저 막장으로 뛰여다닌
피곤이 쌓여서인지 입맛이 별로 당기지 않았다. 몇
술 뜨는등 하고 수저를 놓고말았다. 문득 안해의
성의를 무시해버리는것 같아 곁에서 앞치마자락을
만지작거리며 앉아있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또 회의 가야 하나요?》

안해가 조심히 물었다.

한뉘 막장에서 살다싶이 하다가 회의나 출장이
제기될 때에야 집에 들어오곤 하는 남편임을 잘
아는 안해여서 창호는 대답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련합기업소예요?》

《아니요. 오늘은 지령부에서 생산협회의회를 하
기로 했소.》

그러자 안해의 얼굴에 화색이 감돌았다. 남편의
건강때문에 항상 애모쁜 근심에 잠겨있는지라 오늘
은 집에서 편히 쉬게 되겠구나 하는 기쁨이 안해의
눈가에 그윽히 비끼었다. 탄광지배인이 성으로 소
환되어 결원중이다보니 기사장인 남편의 사업부담
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는 안해였다. 회의, 생산
총화, 계획지령 등 크고작은 모든 일들이 남편의
결론을 기다렸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 등실하던 얼굴이 별스
레 촉간것 같아 남편에게 은근히 원심을 기울이게
되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창호는 움쭉 몸을 일으켰다.

《참... 윤희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댔어요.》

옷걸이에서 옷을 벗겨주며 안해가 하는 말이
였다.

《성민이 그 사람에게서 말이요?》

마치 안해의 얼굴에 그 말의 사실여부가 씌여있
기라도 한듯 창호는 안해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
았다.

《예.》

《당신도 참... 그럼 내게 련결시켜줄것이지.》

서운한 감정에 그는 가볍게 안해를 나무랐다.

방금전까지도 성민에 대해 생각했던지라 창호는
그 전화를 직접 받지 못한것이 참 아쉬웠다.

《련결하지 않았을게 뭐예요. 막장생산지휘부를
찾으니 당신은 채탄장에 갔다더군요.》

듣고보니 그랬다.

성민이 전화를 걸어왔던 그 시간이라면 자기가
생산을 일정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있는 채탄중대
장을 한창 다블러대던 매일것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

《기사장동지, 생산이 제대로 안되는게 뭐 내탓
입니까?》

《그럼 누구탓이요?》

《우리에게도 공차만 넉넉히 들어밀어주십시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는데 제아무리 덩지큰
채탄장을 타고앉아있으면 뭘합니까. 공차가 푹푹해
야 우리도 석탄을 마음껏 뽑아낼게 아닙니까.》

채탄중대장은 기사장의 데설곳은 추궁이 억울한
듯 하소연을 했다.

《동문 이 기사장이 공차를 호주머니에 넣고다
니면서 주지 않는가 하지 않소. 없으면 예비를 찾
아야지, 예비를... 지금이 어떤 때요? 우주를 정복
한 과학자들은 동무처럼 우는소리를 하지 않을거
요.》

《예비요? 글썄 채탄중대장인 저에게 채탄장예비
는 있을지 몰라도 공차예비야 애당초 가당치부터
않지요. 기사장동지나 운반갱장동무에게나 그 예비
주머니가 따로 있겠는지.》

그 소리에 그만 창호자신은 할말을 잃고말았다.
중대장의 말대로 그에게 채탄장예비는 있을지 몰
라도 공차예비에 대해서는...

그래 창호는 현장지휘부에 도착하기 바쁘게 운반
갱장을 전화로 찾아 공차를 빨리 들여보내라고 목
에 피대를 돌구었다.

그런데 운반갱장도 제 할말은 가지고있었다.

《기사장동지, 난들 있는 공차를 붙잡아놓고 안
들여보냈니까. 오늘날 해도 넘어진 광차가 무려 석
대나 됩니다, 석대나...》

《그럼 빨리 수리를 해야지. 그렇게 앓은뱅이가
낙네처럼 우는소리만 하면 생산은 어떻게 보장하
는가 말이요.》

《글썄 공무직장에서 광차베아링축과 광차바퀴
가 제때에 넘어오지 않아 수리중대에서도 등이 달
아있습니다.》

《알겠소. 공무직장은 내가 대책을 세워놓을테
니 동문 광차의 순환속도를 배로 높여주요. 들었
소?》

또다시 공무직장을 찾았다.

직장장은 없었다.

사무실을 지키고있던 공정원 박성국이 직장장은
한시간전에 차를 얻어타고 나갔다는것이다.

《뭐? 여보, 공무직장때문에 지금 현행생산이 뒤
죽박죽되는 판에 언제 한가하게 나들이 다닐새가
있소.》

창호는 송수화기에 대고 짜증을 부렸다.

《기사장동지, 직장장동진 나들이간것이 아니라
과학원에...》

뚝뚝의 대답에 창호는 어리둥절해졌다.

(과학원이라니?)

송수화기를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은 그는 전차소리에 로반으로 달려나가 운전공실에 들어가앉았다. 자기가 직접 전차를 따라다니며 탄차의 순환속도를 높여서라도 생산을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바로 그 시각에 성민이 전화를 걸어온 모양이었다. …

《그 친구 요즘 어떻게 지낸다고. 집에선 모두들 잘있다고?》

창호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로 두각을 나타낸 그의 성과에 비해볼 때 자기는 거부기결음을 하고있다는 감정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예, 윤희 아버지인 당신 사업에 대해서 묻더군요. 중학시절부터 군적으로 소문난 수재였던 당신이 사업에서 성과가 클것이라며…》

창호는 허거프게 웃고말았다.

아무리 막장에서 살다싶이 하며 뛰어다녀도 생산이 쑥쑥 치달아오르지 않아 안타까와하는 지금의 내 처지를 본다면 그가 뭐라고 할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다 서늘해왔다.

창호는 년말생산을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일군들의 협의회를 가진김에 기사장의 지시를 두고 흥정하려드는 (그는 어쩐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공무직장장과 흥금을 툭 터놓고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3

협의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어갔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우주정복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을 본받아 여느때없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키자는 전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회의장에도 옮겨온듯싶었다.

생산을 책임진 어느 일군을 막론하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성공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협의회를 주관하면서 창호는 성민에게 마음속으로부터의 감사를 몇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그들처럼 살자, 그들처럼 일하자는 소리들이 여느때없이 거세차게 울려나왔고 그만큼 열의들도 좋았다. 그러나 창문결에 앉아있는 공무직장장 배영학이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이야기속에 끼여들념을 하지 않았다.

보통키에 얼굴하관이 좀 빠른, 그래서 얼핏 보기에도 성격이 날카롭게 느껴지는 그는 여느때 같으면 가랑이에 불이 달리듯 쉽게 반응을 보이려만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김창호는 그것을 보면서 배영학이 지금 저주파유도로를 원만히 돌려서라도 생산을 보장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굳히고있다고 믿고싶었다. 그래서 그는 배영학의 마음을 더 건드리지 않고 협의회를 끝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이곳 탄광에서 기사장만큼 공무직장장에

대해서 잘 알고있다고 자부할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기때문이기도 했다. 배영학은 이곳 평대탄광에서 오랜 기간 일해온, 한마디로 말해서 김창호의 선배이기도 했지만 보다는 그에게 탄광일을 처음으로 가르쳐준 채탄중대장이었다. 이런 연고로 하여 두 사람은 자별하면서도 무시할수 없는 사이였다.

회의가 끝나자 창호는 배영학에게 좀 남아달라고 부탁했다.

《중대장동지.》

김창호는 배영학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으며 옛 시절처럼 그를 불렀다.

이것은 두사람이 허심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장소에서만 오가는 가장 친근한 부름이었다.

배영학은 순박하게 생긴 기사장의 눈을 말없이 쳐다보았다.

고뇌와 피로의 흔적이 총혈된 그의 눈에서부터 느껴졌다.

《힘이 들지요?!》

배영학은 동정심에 가까운 목소리로 먼저 물었다.

《예.》

창호는 안타깝던 가슴이 조금 열리는듯 숨을 내 불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배인동지까지 결원이다보니 솔직히 말해서 몇배 더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직장장동지가 저를 좀 도와주셔야지 이러단 정말…》

《그러니 나더러 저주파유도로를 잘 돌려달라 그거겠지요.》

《현존상태에서 우리에게는 중주파유도로를 사올수 있는 자금도 또 자체로 만들어낸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걸 고려해볼 때 지금의 저주파유도로만이라도 멈추지 않고 가동시켜 시기시기 제기되는 부속품들의 주문을 담당해줘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단 말이지요?》

배영학이 나직이 되뇌이고나서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지금 강철공업부문에서는 일반전기로에 비해 그 생산속도가 현저히 빠르고 소요되는 전력도 절반이상으로 줄일수 있는 초고전력전기로추세라는 거야 기사장동무도 모르지는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추세이던 저주파유도로도 이제는 자기 사명이 끝났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배영학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하지만 그속에서 뿜겨나오는 요구성은 강경했다.

《그에 대해선 저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주파유도로가 우리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구멍탄아궁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중주파유도로로 말하면 발전되었다는 몇개 나라에서나 만들어내는 첨단설비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호는 언제인가 배영학이 중주과유도로도입문제를 제기했을 때의 일을 상기해보며 말했다. 그때 배영학은 중주과유도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확신성은 없이 조심히 창호의 의향을 물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어조에서부터가 달랐다.

확신인가? 아니면 조금성인가?

현존주강능력으로는 탄광안의 모든 생산공정들에서 제기되는 주강품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다는것을 창호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당장 무슨 뾰족한 방책이 없지 않는가.

배영학이 요구한다고 하여 설치고 불속에 뛰어드는것과 같이 무의미한 사업을 창호자신도 전개하고싶지 않았다.

한동안 아무말없이 앉아있던 배영학이 그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난 오늘따라 왜 그런지 기사장동무가 우리 중대에 처음 배치되어온 날 했던 말이 생각나는군요.》

《제가 뭐라고 했지요.》

창호는 별로 흥심이 없이 물었다.

《〈여기선 석탄을 잔주까지 깨끗이 캐내지 못하는군요.〉 하고 말했더랬지. 그날 기사장동무가 하던 말은 탄부의 량심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었지요.》

배영학은 그 시절의 김창호와 오늘의 김창호사이 에 무척 생소한 사람을 보듯 눈빛이 어두웠다.

《지나간 이야기는 갑자기 왜...》

《매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고 오늘이 있어 미래를 그려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샘물은 걸보기에는 그 량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쉬임없이 솟구쳐흘러 강을 이루어놓지요. 난 기사장동무가 티묻지 않고 맑고 깨끗했던 그 시절처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 굳이 이런 말을 하는겁니다.》

이렇게 말하고난 배영학은 저녁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런다고 량해를 구하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호는 깊은 상념에 잠겨 그 자리에 뿌리내린듯 앉아있었다.

배영학의 마지막말이 가슴을 찔던것이다.

그의 머리속에는 홀러가버린 아니, 이제는 잊어버렸던 오래전의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지금보다 몇배 더 어렵던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령대탄광으로 자원해왔었다.

처음 그는 갱현장기사로 배치를 받았다. 그러나 채탄중대로 자진해갔다. 그때 중대장이 바로 배영학이었다.

《알고지내지요. 난 배영학이라고 하오. 탄광사람들은 일명 방사포중대장이라고들 하지. 결심만

서면 주저없이 공격하는 기질이 있다고 해서 우리 탄부들이 지어놓은 이름인데 별로 신통한 비유는 못되오.》

첫눈에도 소탈한 느낌이 들었다.

그를 따라 창호는 한창 석탄을 뽑아내는 채탄장으로 들어갔다.

지하굴전에 견학을 온 사람처럼 황홀경에 잠겨 채탄장을 돌아보던 창호는 채굴이 끝난 채탄장에 아직 남아있는 석탄을 보며 아쉬워 말했다.

《여기선 석탄을 잔주까지 깨끗이 캐내지 못하는군요.》

하도 아까와 지나가는 소리처럼 한 말이었으나 그것이 배영학에게 준 타격은 아마 컸던것 같았다.

배영학은 암벽을 주무르던 손으로 창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도 노력은 해봤지만 방도를 찾아내지 못했소. 어쩔소, 말이 난김에 동무가 한번 해보지 않겠소?》

무슨 손때가 그리 매운지 그가 어깨를 두드릴 때마다 창호는 몸을 흠칫흠칫했다.

그날부터 창호는 중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탄광부문에서 전통적으로 써오던 붕괴식채탄법을 새롭게 할수는 없을가 짚짚이 연구했다. 하지만 오랜 탄부들과 만나 이야기도 나뉘고 보고 대학시절에 배운 지식도 더듬어보았으나 신통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60돛생일을 맞는 아버지를 찾아 고향길에 올랐다.

렬차에서 내린 창호는 공원의 의자에 잠간 앉았다.

고향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소년시절의 꿈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는 고향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다. 바지가랭이를 화락하니 적시며 성민이와 함께 해저무는줄 모르고 반두질에 성수가 나서 뛰어다니던 맑은 시내가 있는 고향, 지붕마다에 빨간 고추들을 널어놓은 저 살림집들 한가운데 전쟁로병이며 영예군인인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있었다.

숨을 돌리며 애뜻한 추억에 잠겨있느라니 성민은 지금 어디 있을가 하는 생각이 부지중 갈마들었다. 몇달전에 마지막으로 날아온 편지에서 인차 배치를 받을것 같다는 소식을 받은 이후로는 종무소식이었던것이다. 오래간만에 고향에 오고보니 그가 더없이 그리워났다. 별안간 목덜미가 간질간질해났다. 손으로 목부위를 문질렀다. 연한 풀대가 사르륵거리는 느낌...

창호는 등뒤에 성민이 와섰음을 흥분속에 직감했다.

장난꾸러기 그 시절 잔디밭우에 가지런히 누워있느라면 키득키득 웃음이 나는것을 삼키며 풀대로 잘 간지럼을 피워주던 성민이... 그가 고향에 돌아왔다. 지금 내 몸가까이에 있다. 이것만으로도 창

호는 고향에 찾아온 행복감을 맛보고있었다. 그러나 모르쇠를 했다. 어디 한번 속이 타보라지, 종시 행복한것은 성민이었다.

성민의 호방한 웃음소리가 창호를 일으켜세웠다. 두 청년은 뜨겁게 포옹하였다.

《성민이!》

《창호!》

코밀에 숨털이 보르르하던 소꿉친구들은 면도자육이 푸릿한 청년이 되어 다시 만났다.

잠시후 성민은 눈을 지그시 하고 창호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이젠 어엿한 탄부라. 종내 꿈을 성취했구나. 이젠 땅속을 마음대로 활개치게 되었으니...》

《넌 어떻게 되었니? 배치는 받았겠지?》

성민은 대답은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데?...》

《한번 맞춰봐.》

가슴에 팔을 엮절은 창호는 눈을 감고 몸을 흔들다가 입을 열었다.

《연구사?》

성민이 빙그레 웃었다.

《어느 부문에?...》

《이왕이면 그것까지 맞춰야지.》

《아니 아니, 그것만은 정말 자신없어.》

창호는 눈을 깜박이며 머리를 저었다.

《기권이란 말이지?》

《응.》

《그럼 할수없이 말해줘야겠구나. 우주공간기술 위원회에 배치를 받았어. 연구사로...》

《뭐? 그러니 네가 인공지구위성을 연구한다는 소리?...》

창호는 놀라서 물었다.

《연구?! 머지않아 우린 저 푸른 하늘을 날으는 우리의 위성을 보게 될거야.》

성민의 목소리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그지없는 자부심으로 충만되어있었다. 창호는 그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느닷없는 걱정으로 후드득 뛰었다. 온몸에 류다른 흥분이 마쳐왔다.

조국은 지금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다. 이런 엄혹한 속에서도 조국은 위성연구를 하고있다. 첨단기술의 집합체라고 말할수 있는 인공지구위성을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격동적인 이 시대에 사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감격이 새롭게 마쳐왔다.

어느 시인이 격정에 넘쳐 노래했던 그대의 준엄 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줄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고 그대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던 시구절이 크나큰 의미를 부여해주며 귀전에 들려왔다.

비약의 룡마에 오른 조국앞에 무엇으로든 기여해야 하겠다는 자각이 머리를 쳐들었다.

역알광장의 주차장에서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울려왔다. 차창밖으로 얼굴을 내민 운전사가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성민에게 어서 가라고 재촉한다.

《나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어서 가봐.》

헤어지는것이 서운했지만 창호는 그의 등을 떠밀었다.

《내대신 아버지에게 술 한잔 부어드려.》

정히 포장한 지함을 창호에게 넘겨주며 성민이 부탁했다.

그날 탄광으로 돌아온 창호는 성민이와의 대화에 받은 충격에서 좀해 벗어날수 없었다.

그렇다. ...

나도 이 땅, 이 하늘아래 땀뻗은 나의 자옥을 새겨야 한다.

그후 창호는 하나의 채탄장을 타고갔으면 여러차례의 작업굴진을 진행하여 채탄장을 전개해야 하는 기존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물갈기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처럼 전면채탄방법을 도입할수 있는 방도를 드디어 찾아냈다.

후날 탄부들이 《장벽식채탄법》이라고 그 이름을 명명할 때 창호는 어디에선가 한창 위성발사준비를 하고있을 성민을 그려보았다.

그로부터 얼마후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첫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가 세상을 놀래우며 우주로 날아올랐다.

그날 창호는 성민이와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민이, 고향의 샘터에서 품은 꿈을 우리 언제나 잊지 말자.》

그것이 이제는 십여년전의 일이었다. ...

지령부 회의실을 나선 창호는 달빛을 밟으며 배영학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4

《충심이 아버진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는데요.》

오래간만에 찾아온 기사장에게 이런 대답밖에 할수 없는것이 미안한듯 배영학의 안해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아직 직장에 있나?》

창호는 선반기며 프레스의 동음이 울려오는 공무직장쪽을 내려다보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글쎄요.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우리 충심이가 지도 늦게 들어오는 때가 드문하답니다. 그 무슨 중중과유도로라는걸 연구한다던지. ...》

《그래요?!》

배영학이 이제는 자신심을 가지고 이 일에 달라붙었다는것이 명백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아직까지 기업소에 저주파유도로를 들어내었다는 제기를 하지 않는걸까? 험치 않은 문제여라도 부탁했는가.

하긴 중주파유도로를 자체의 힘으로 해낸다는것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을것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창호는 다시 공무직장으로 향했다.

배영학은 공무직장 사무실에도 없었다.

공정원 박성국이 컴퓨터를 마주한채로 그를 맞았다.

《아직 퇴근하지 않았소?》

창호는 컴퓨터화면에 현시된 자료에 피곤했던 눈길을 던지면서 물었다.

《예. 두루두루 일감이 좀 밀리다나니...》

박성국은 기사장의 얼굴색을 살피면서 좀자랐다.

창호는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별로 달라진것이 없어보이는데 창문턱에 놓인 화분에서 진주꽃이 새초롬히 꽃봉오리를 머금고있는것이 특별히 눈에 띄었다. 한겨울임에도 식물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떨치려고 서두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

문득 창호는 배영학의 사무탁에서 외국어로 된 잡지를 띄어보았다. 그 책을 집어들었다. 최근에 발행된 기술원서였다.

야릇한 흥분속에 창호는 책갈피를 번지며 물었다.

《동무가 보는거요?》

《아닙니다.》

《그럼?》

《직장장동지가 보는겁니다.》

《?!...》

창호는 놀랐다.

배영학이 원서를 볼수 있을 정도까지 외국어에 능통하다는것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생산이 이렇듯 긴장한 조건에서도 그런 여유를 가지고있다는것이 더욱 놀라웠다. 나는 손에 책을 쥐어본지가 언제인가 하는 막연한 생각까지 들었다.

원서를 번치면서 그는 공정원이 마주하고있는 컴퓨터화면에 다시 눈길을 주었다. 자세히 보니 중주파유도로와 관련한 번역자료였다. 직장장자신이 번역을 한듯 기술술어들이 어색한 느낌은 있었으나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했다.

《음!》

나직한 신음소리를 내면서 창호는 공정원이 앉아있는 의자등받이를 짚 그러잡았다.

《자체의 힘으로 도입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이오?》

《아직 완벽하게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어째서?》

《기본은 우리 나라의 전력주파수가 여기서 요구하는것처럼 안전한 수준에 있지 못하다는 사정때문

입니다. 말하자면 파동이 심하고 또...》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긴장한 나라의 전력사정은 가끔 생산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있었다. 그것은 다른 부문에 비해 주장분야에 더 예민하게 작용했다. 그로 해서 저주파유도로는 이따금 설익은 최물을 붓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배영학은 바로 이것때문에 저주파유도로를 대담하게 들어내자고 제기하면서도 중주파유도로를 완강하게 내밀지 못하고있을것이었다.

창호가 쉽게 결심을 내리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했다.

《그런데 직장장동문 어데 갔소?》

창호가 물었다.

《기술발전과에 있을겁니다. 인민대학습당과 연결된 컴퓨터망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 들어왔다고 충심이가 방금전에 알려왔거든요.》

배영학의 외동딸인 충심이는 기술발전과 새 기술보급원이었다.

머리가 명석하고 영민한 그 처녀는 창호자신도 친할처럼 사랑하는 탄광참모부의 보배덩이였다.

그러니 부녀간의 기술적누대속에 중주파유도로의 탄생이 준비되고있다는 소리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들이 부러웠다.

창호는 사무실에서 배영학을 기다리려던 애초의 결심을 버리고 공무직장을 나섰다.

기술발전과로 향하던 창호는 문을 열고나서는 박영수당비서와 마주쳤다.

《기사장동무구만.》

후리후리한 키에 비해 몸이 약해보이는 당비서가 나직한 목소리로 반가움을 표시했다.

《당비서동지가 이밤중에 여긴 어떻게?...》

창호는 너무도 뜻밖이여서 어망결에 물었다.

《왜, 당비선 이 방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그 무슨 규정이라도 있소?》

《그런건 아니지만...》

창호는 절절한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다.

《셋!》

박영수는 손가락을 입가에 가져가며 주의를 주었다.

《지금 부녀간에 마주앉아 한창 사색중이요. 우리 그들을 방해하지 말지요.》

당비서는 그의 등을 떠밀었다. 그들은 조용히 청사를 나섰다.

《기사장동무, 내 방에 가서 우리 얘거나 좀 나눌가?》

《기사장동무, 지배인동무도 없는 때에 혼자서 생산을 보장하자니 힘이 들지요?》

창호에게 의자를 권하고난 박영수는 그의 곁에 자리를 잡고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좀 힘에 부칩니다.》

창호는 때없이 찾아들던 마음속 고충을 무릅없이 털어놓았다.

《그렇거요, 그렇다고 해서 생산일면에만 치우치면서 기술발전을 도외시하면 안되지 않을까. 더구나 인공지구위성이 하늘을 날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말이요. 말이 난감에 하는 소린데 난 동무가련 합기업소에서 이곳 탄광기사장으로 배치되어오자마자 갱내뽑프들을 정비보강하여 침수된 막장을 빠른 기간에 살려내고 생산을 정상화시켰던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말았으면 하오.》

뜻밖에도 박영수는 창호에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뒤흔겨주었다.

그때, 그 시절...

그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샘솟았었는지...

아마도 탄부생활이 시작된 정든 곳, 연합기업소 기술파로 조동되었다가 탄광기사장으로 임명되어 다시 돌아온 그를 반겨맞아주는 정이 든 사람들과 이웃들의 기대에 무엇인가 보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였는지...

...탄광기사장으로 임명받고 온 날 창호는 배영학의 초청을 받았었다.

《잘됐네. 막장물계에 환하겠단, 기계속이 밝겠단, 이 탄광에 적임자가 왔으니 이제 한시름이 놓이누만.》

배영학은 허리띠를 풀어놓고 별로 즐기지 않는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시고나서 흥이 돌아 떠들어댔다.

창호는 가슴을 흥떡이는 그를 유쾌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느 부분부터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는가고 의견을 물었다.

《어디라고 할것 있나. 석탄생산의 모든 공정이 너나없이 다 중요하지. 그런데 보다 중요한 부문이 있네.》

《어딴지까?》

《공무직장이지.》

《공무직장이요?》

창호는 뜻밖인듯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가 기관분위주의를 하자는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갈마들어서였다.

《왜? 바깥부문이라고 경시하는건가. 생각해보게. 우리 탄광의 석탄매장량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해도 침수된 막장부터 복구해야겠으니 우선 뽑프부속품생산을 선행시켜야겠지, 또 캐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자니 전차나 탄차부속품을 원만히 보장해줘야 할게 아닌가.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공무직장이야말로 놓쳐서는 안될 생산의 관건적고리라고 말할수 있지.》

배영학의 말은 사실이였다. 탄광의 실태를 료해

하면서 창호는 이에 대해 확신했다.

하여 그는 생산지휘로 바쁜 속에서도 탄광자체로 그 제작이 불가능하다던 뽑프본체를 부어낼 결심을 했고 배영학을 도와 필요한 설계를 제 손으로 하기도 했다. 그리고 뽑프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연구사업도 심화시켜 막장의 물을 모조리 퍼올리고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었다.

물론 그 성과속에는 배영학의 숨은 노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었다.

그러던 이듬해 장마철이였다.

8갱 채탄장의 탄벽에 축축하게 물기가 배이기 시작하더니 물주머니가 터졌다.

며칠째 억수로 내린 장마비가 끝내 일을 쳤던것이다.

막장안에서 장마철생산지휘를 하던 창호는 이 소식을 받고 그달음으로 채탄장으로 달려갔다.

물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점점 다른 막장들을 위협하며 수위를 높이고있었다. 설상가상이라고 뽑프장의 전동기가 과부하를 이겨내지 못해 멈춰섰다. 결사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탄부들의 열의나 마음에는 아랑곳없이 물은 계속 차오르고있었다.

김창호는 린접막장들에 철수명령을 내리면서 필요한 전동기를 빨리 들여보내라고 불같이 독촉했다. 했으나 설비파라고 용빼는 재간이 없었다. 탄광안의 모든 전동기들이 만부하를 걸었고 예비는 없었던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 배영학이 전동기수리반사람들을 이끌고 막장으로 들어왔다. 그는 현장에서 전동기를 해체하여 전동기본체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린시건조장을 만들어놓고 필요한 조직사업을 해나갔다.

《기사장동무, 병은 그 근원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내 생각엔 물이 스며들어오는 구역부터 퇴치해야 할것 같습니다.》

배영학은 마음이 불안하여 서성거리는 창호에게 신심을 주듯 말했다.

《그 말은 옳은데 물에 잠긴 저 막장 어디에서 그 구역을 찾겠습니까.》

탄부생활경험은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으로 겪어보는 창호는 배영학의 얼굴을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걱정마십시오. 배심만 든든하면 방도는 언제나 생기는 법이니깐요.》

배영학은 침착한 얼굴에 웃음발을 띄우고 장담하듯 말했다.

그다음 배영학은 수리반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주고나서 막장에서 나갔다.

근 이틀동안 그는 아무런 소식도 창호에게 보내오지 않았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영학의 소식을 기다리

던 그 순간순간들이 지겹도록 지루하고 따분한 분과 초였다.

《물이 줄어든다!》

《기사장동지,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만에 막장이 찌렁찌렁 울리도록 기쁨에 넘쳐있는 탄부들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다. 서둘러 내려가보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것이 눈에 뜨이게 알리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하여 암벽을 두드리며 눈물짓는 탄부들을 보는 창호의 눈가에도 번쩍이는 것이 있었다.

이튿날에야 창호는 배영학이 당비서가 데리고온 탄광의 보장부서성원들과 함께 골짜기의 토랑을 수백립방이나 처리하여 8갱막장으로 흘러드는 물길을 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까?》

배영학을 만난 창호는 눈에 피발이 선 그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보며 물었다.

《사람이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지요.》

자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것을 별로 즐기지 않는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이젠 눈을 좀 붙여야겠다며 이내 그 자리를 떴다.

김창호는 기술과장을 통해서야 그에 대해 자상히 들을수 있었다.

《그날 영학동문 온몸이 물주머니가 되어 우리 기술과 공정실에 들어왔지요. 숨이 턱에 닿아서 말입니다. 그리고는 밀도 끝도 없이 8갱 공정도를 좀 달라라게 아니겠습니까. 보여주었지요. 한참이나 공정도를 연구하던 그는 <웁소, 바로 여기요, 여기...> 하더니 들어오던 때처럼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날줄은...》

사실 배영학은 뜻밖의 일로 몸을 다쳐 공무직장으로 돌아앉았지만 갱일에 귀신이라 할 정도로 탄광물계에 밝은 사람이었다.

그 밝은 실무와 오랜 경험이 이번에도 은을 낸 셈이었다.

...

이것이 바로 박영수당비서가 이야기하는 창호의 지난 기간 공로였다.

하지만 그 성과는 엄연히 배영학의 몫이었다.

초급당비서의 목소리는 계속 울리었다.

《기사장동무, 샘은 땅속 깊은 곳에 그 원천을 두고있어 마를줄 모르는것이지요. 바로 그 원천이 있어 샘물은 진함이 없이 뽕뽕 솟구쳐올라 흐르고 흐르며 대지에 자기의 덕을 입히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이 거창한 흐름이 바로 매 인간들의 삶과 투쟁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면 인간들의 정신력 또한 그 투쟁의 원천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때나 이 정신을 가깝없이 불태워야 합니다. 젊은 시절이든 인생의 중년기이든

변함없이 말입니다.》

당비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창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고향산천의 그 작은 샘터가 다시금 떠올랐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섭을 모르는 샘물...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온 나라의 대경사를 안아온 성민이네나 한줌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배영학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샘물처럼 티없이 정갈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찌릿해왔다.

하다면 이들과 함께 자라고 함께 생활해온 나는... 심장을 저미는 그 무엇인가가 찌르르 파고들었다.

전화종소리가 경쾌하게 울리었다.

박영수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당비서입니다. 아, 공무직장장동무입니다. 뭐라고요? 성공의 열쇠를 찾았단 말이지요?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이젠 집에 들어가 폭 좀 쉬십시오.》

통화를 끝낸 당비서는 싱글벙글 웃으며 창호의 곁에 와섰다.

《기사장동무, 다른 나라에서 기존방식으로 되어 있는 주파수추종에 의한 기동방식체계를 대담하게 기동축전기에 의한 기동방식체제로 바꾼다요.》

창호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확실히 대담한 착상이고 발견이었다. 그것만이 우리의 현존전력공급체계와 실정에 부합되는 방법임을 그는 한순간에 포착하였다. 그런데 축전지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현실성만 있으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었다.

《기사장동무, 다시한번 힘을 내보오. 어느 소설책엔가 보니 이런 문구가 있더군요. <용감하라, 다시한번 용감하라, 영원히 용감하라.> 난 얼마전에야 동무에게 성민이라는 소꿉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배영학동무가 그러더군. 이번에 실용위성을 만든 연구사들중의 한사람이라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첨단기술의 하나인 중주파유도로를 빨리 제작하고 기사장동무를 그 성민이와 떼뻗이 만날수 있게 해주자고 하지 않았소. 그 말을 들으니 속이 후끈하더군. 확확 달더란 말이요.》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김창호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울컥 치밀어오르는 회오의 감정을 가까스로 진정하였다.

《됐소.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함께 달려보지요.》

...

그날 저녁 창호는 텔레비죤화면을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초청을 받고 평양으로 올라오는 위성과학자들속에서 성민의 모습을 보았다.

《광활한 이 땅속의 비밀을 밝혀내는 기계는 없

을가 하는것이 소년시절 고향의 작은 웅달샘물가에서 품었던 저의 꿈이었습니다. 농촌마을에서 나서 자란 소년의 공상에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 걸음 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고마운 품이 있었기에 저는 오늘 세상이 다 아는 우주정복자로 되었습니다. 진정 이 위대한 품에 안겨 자라난 과학자임을 자각할 때 이 세상에 점령 못할 침단이 없다는것을 이번에 성공한 실용위성발사를 통하여 다시한번 절감하였습니다.》

너기자가 내미는 마이크에 대고 하던 성민의 목소리를 되새기며 창호는 배영학이 주도한 중주파유도로설계도면을 하나하나 검토해나갔다.

×

한달후 가는 눈발이 날리는 공무직장구내에는 중주파유도로시운전을 보러온 사람들로 바다를 이루었다.

창호는 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이제는 자기의 존재를 어엿이 드러낸 중주파유도로앞에 다가섰다. 계단위에 있는 배전함옆에 배영학의 사무실에서 언제인가 보았던 진주꽃이 꽃봉오리를 더친채 청초한 모양을 드러내고있었다.

아마도 오늘의 이 경사를 축하하려고 한겨울에 피여난듯 꽃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은 감회에 젖어 들게 하였다.

이 유도로를 제작하던 길지 않은 나날들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끊임없는 론쟁과 긴급협의회, 노동자들이 제기한 의견에 대한 탐구와 사색, 긴장한 순간순간들이었지만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긴 즐거운 날들이기도 했다.

그 나날 그는 자신의 지나온 생을 다시한번 돌이켜보았다. 그럴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은 분명히 고동쳤으나 낮은 살아있는것 같

지 않았다.

그는 애국의 녀를 이 땅 가장 깊고 신성한 곳에 물을 때만이 이 조국을 위해 가장 고귀한 재부를 남길수 있다는것을 폐부로 절감하였다.

이전에는 어째서 이것을 물랐을까? 아니, 알고도 하지 않았지, 알고고도...

그저 계획수자에 대한 추궁과 독촉에만 급급했지 그 하나하나의 생산수자들에 비낀 인간의 정신과 녀, 그들의 불타는 마음과 안타까운 감정을 보려고조차 생각지 않았었다. 이것은 크나큰 실책이었다.

《기사장동무, 시간이 되었습니다.》

배영학이 조용히 다가와 암시를 했다.

창호는 별로 웅장하지는 않지만 최첨단돌파정신으로 돌진하는 탄부들의 창조물인 중주파유도로의 배전함을 다시한번 바라보고나서 큰숨을 내쉬었다.

《시작합시다.》

창호는 시운전스위치를 넣기로 된 배영학을 쳐다보며 말했다.

배영학이 태연하게 계단을 타고 배전함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숨을 죽이고 서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밝은 미소가 피여올랐다.

드디어 배전함에서 전류흐르는 소리가 울렸다.

유도로에서 붉은 쇠물이 끓기 시작하였다.

온갖 불순물들과 슬라크들을 퍼올리며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쇠물이 용암처럼 끓고있었다....

아침부터 날리던 가는 눈발은 어느새 하늘을 덮으며 함박눈으로 변했다. 강산을 순결무구의 세계로 덮은 저 눈은 이제 해토가 되면 스르시 땅속으로 찾아들며 순수하게 정제되었다가 다시 샘물이 되어 솟구쳐오르리라.

자기를 품어준 대지에 뿌리내린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마다에 자양을 주며 기름진 이 땅을 축축히 적시며, 적시며...

격언

리상과 신념

· 리상은 불행을 주기도 하고 재생을 주기도 한다.

· 평범한 인간도 리상이 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해지기도 한다.

· 사람이 리상을 버리는 일은 많아도 리상은 한번도 그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다.

· 리상은 사발처럼 깨여지면 쓸모없는것이 아니다. 리상은 시들었다가도 다시 피는 꽃이다.

·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은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는것이다.

· 팡활한 생활의 바다를 건너가는 인생이라

는 돛배에서 리상은 라침판이고 열정은 질풍이다.

· 신념은 국경과 언어차이를 모른다. 오직 진리를 사랑한다면 모두가 형제며 친구다.

· 신념을 잃으면 낮은 방패를 잃는것과 같이 의심이라는 화살을 막기 어려울것이다.

· 신념이 있으면 젊어지고 신념이 없으면 늙어진다.

· 인생을 지레대에 비기면 신념은 지점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 정확한 지점만 있으면 역세고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내 만일...

엄 정 호

내 만일 시인이라면
세포등판개간지
여기서 쓴 시
시인의 한생애 명작으로 남을것입니다

사나운 눈보라
그 눈보라를 태우는 우등불
그 우등불에 불붙여 추켜든 횃불
그 횃불은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심장

그 심장앞에
천년바위 녹아 없어진듯
그 심장의 열과 빛이
등판에 펼쳐놓은 푸른 초원
그 초원에 다문다문 수놓은 꽃들은
화려한 시어의 억만구슬

내 만일 화가라면
세포등판 여기서 그린 그림
화가의 한생애 명화로
세상에 전해갈것입니다

온통 눈에 덮인 세포등판
그것은 화가가 펼쳐놓은 화판
그 화판에 그림그리듯
등판에 달리는 트랙터르 불도젤
그 보습날밀에서
수수천년 굳잠깨며 일어서는 땅

그 땅에 이랑을 짓고
금싸래기같은 풀씨앗 뿌려가는

돌격대원들의 랑만에 찬 모습
그 모습은 노래
그 모습은 시
그 모습은 명화

어제 지은 시가 옛시로 되어도 좋습니다
어제 그린 그림이 옛 그림 되어도 좋습니다
세포등판대자연개조전투장은
《마식령속도》의 열풍속에
새로운 시가 태어나고
새로운 명화가 태어나는 땅

오, 내 만일 시인이라면
이 등판에 펼쳐진
전변된 모습 그림처럼 그려보며
그날에 읊을 명시를 쓰리라
후대들 오늘을 추억할 그런 시

내 만일 화가라면 그리리라
무릉도원으로 전변된 세포등판
구름처럼 흐르는 양떼 염소떼 젓소떼
하늘과 마주웃는 가공공장들의 은빛지붕
그리고 고기와 우유를 싣고달리는
운반차의 경적소리가 울려나오는 그런 명화

오, 그러나 나는
시인도 화가도 아닌 돌격대원
그러나 나의 가슴엔
전변된 이 등판에 경애하는 원수님 모실
그날에 읊어드릴 시가 울리고있습니다
그날에 보여드릴 명화가 보이고있습니다

상 식

장수와 족삼리혈

사람들의 로화는 처음 시력이 떨어지는것으
로부터 시작하며 다음은 청각장애, 다음은 다
리무력증순서로 온다.

하기에 옛글에는 나무는 뿌리부터 늙고 사람
은 다리부터 늙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발과 다리를 건강하게 하는것은 마
지막로화현상인 다리의 로화를 적극 막는 중요
조건으로 된다.

그런데 발과 다리를 건강하게 하는데서 족삼
리혈이 매우 중요하다.

족삼리혈에 고려뜸이나 약쑤으로 자주 뜸을
뜨면 물질대사가 촉진되고 면역기능이 높아지
며 피의 점조도가 낮아져 뇌에 대한 피흐름이 강
화되어 뇌혈전, 고혈압을 예방할수 있게 한다.

하기에 예로부터 족삼리혈을 장수혈이라 불
러왔다.

마 식 령 마 루 에 서

조 인 영

마식령산줄기가 나와 친숙해진것은 소학반시절 부터였다.

전승의 축포와 함께 아버지가 전선에서 돌아온 후 나라에서는 마식령산줄기의 이름없는 산기슭에 한칸짜리 살림집을 지어주었던것이다.

나는 소년시절을 마식령에서 뉘는 단물을 마시고 그 령줄기의 눈바람을 맞으면서 보냈다.

추억속에 새록새록한 우리의 겨울방학은 얼마나 흥겨웠던가.

그 시절 참대나 얇은 참나무판자같은것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여간 으스스대지 않았다. 우리는 눈스키를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잡동사니들과 교환하여 참대나 참나무판자들을 나누어가지곤 했다.

자체로 목수재간까지 발휘하였다. 커다란 망치와 무딘 자귀며 녹솔고 이빠진 톱들을 들고나와 때로 손등을 때린 피멍자욱을 남기기도 하면서 소원하는 물건의 모양을 똑딱똑딱 만들어냈다. 그런 어설픈 첫 창조물에 몸을 싣고 경사진 눈얼음판우를 좌— 하고 빠른 속도로 지쳐내릴 때 우리의 마음을 아득한 공간으로 달뜨게 하던 희열과 랑만...

스키장은 따로 없었다. 경사진 행길이나 강냉이와 수수따위를 가을해들인 눈덮인 비탈밭이 곧 우리의 스키장주로였다. 발고랑을 툇썩툇썩 타고넘으며 지쳐내리다가 넘어져 날선 수수그루터기에 엉치를 긁히우기도 했다.

점차 철들면서 우리는 뒤동산 스키놀이를 그만두었다. 세상을 날고싶었던 우리의 포부에 비해 스키주로가 너무도 짧고 맹랑했던것이다.

또 다른 추억이 잇닿는다.

그 시절에 우리 조무래기들은 나의 아버지를 따라 몇번인가 마식령산줄기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본적이 있었다. 이동영사대를 이끈 아버지덕이었다. 아버지는 자동차에 영사기와 발전기, 영화필름을 싣고 전기가 들어가보지 못했던 산골마을로 갈 때면 우리를 잊지 않고 데리고가 영화를 보여주곤 했다. 쉬는 날이면 새 영화광고판들을 날라다주곤 한 우리 조무래기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인셈이었다.

눈앞을 막아선 산들은 높고 험했지만 조국해방전쟁을 이기는데 이바지한 산골사람들은 50리쯤은 군

말았고 달려와 영화를 보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보곤 했던 그 영화관람이야말로 우리가 접했던 소박한 문명의 세계였다.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던 심심산골 마식령산줄기.

조선반도의 척추를 이루며 백두에서 한나까지 한지맥으로 뻗어내린 백두대산줄기의 중간지점, 다시 말하여 동조선만에서 들여다보이는 지점에 높고 험한 산발들이 우줄우줄 키돋음을 하면서 천험의 성벽인양 남쪽으로 뻗어내리다가 태백산줄기와 잇닿은 산줄기가 바로 마식령산줄기이고 법동에서 원산으로 넘나드는 고개가 이름난 마식령이다.

마식령산줄기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뜻깊게 어려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내 나라의 전승을 위하여 몸소 넘나드셨고 조국이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던 나날에는 사회주의조국수호전의 길에서 아버지장군님께서 무시로 넘나드셨던 마식령산줄기였다.

그런데 오늘은 또 한분의 백두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해발 1360여메터나 되는 대화봉정점에 오르시여 《마식령속도》를 창조해주시었으니 정녕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온 나라, 온 세상이 다 아는 마식령.

생각도 깊어지게 하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이다.

어린시절 두뿔짜리 참대스키를 타고 지쳐내리던 마식령산기슭에 오늘은 세계의 초점이 모이는 현대적인 스키장이 일떠서고있는것이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해아리신것이 어찌 우리들의 유년시절 소박한 꿈만이였으랴.

눈부신 속도로 우주를 주름잡고 세월을 앞당겨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보살피심이 오늘은 천험의 산악을 깎고 다스려 총연장길이 11만메터의 스키주로를 닦아주신것이다.

정녕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스키주로는 우리 인민

아이들이 밤동산에 오르오

박 정 철

하좋은 이 가을날
내 고향 밤동산도 무르익으니
하루공부 끝마친 우리 마을 꼬마들이
떠들썩 산에 오르오

어깨엔 작대기
작대기끝엔 바구니 흔들흔들
그안엔 벌써 가득히 넘쳐나오
이제 개울가 자갈밭에서
풍성히 차릴 밤청대의 기쁨이

들판엔 무르익은 오곡이요
밤동산도 만가울이라
이 좋은 때엔
구레나룻 산림감독원도
인심후한 아버지가 될수밖에

다만 걱정인것은
어린것들이 산판에서 상하지나 앓을가
호호깁깁 숲속으로 사라지는 애들에게
일부러 엄하게 웨치는 산림감독원
밤나무에 오르면 종다리를 친다오

감독원두 팬한 걱정이지

시누런 왕밤송이들이
걸음걸음 이마에 마주치는데야
쭉 버그러진 호함진 웃음으로
아이들을 반기는데야

꽃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온 한해 툭아오른 저 산길
그 길에 아이들웃음 굴러가니
그리도 기뻐서
그 기쁨을 온 산판에 터치는거라오

온 한해 들일에 바삐 살면서도
짹짹이 산을 가꾼 고향사람들
산을 가꾸어 고향땅을
보물산으로 빛내인 사람들

우리 아이들 산에 오르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왕밤송이도 하하 웃는
이 보물산을 더 잘 가꾸어갈
고향사람들의 더운 가슴 흔들며
이 가을날
우리 아이들이 밤동산에 오르오

이 사회주의문명과 부귀영화에로 가는 드넓은 활주로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대화봉정점에 올라 아득히 뻗어내린 스키주로를 내려다본다.

주로는 넓고도 기묘한 곡선과 경사를 이루면서 저 멀리 항구문화도시 원산을 지나 세포등판에 이어져있는듯싶다. 세포등판의 앞날은 또 얼마나 휘황한가.

삶의 활력과 속도에 대한 갈망으로 애어린 심장들을 들먹이며 짧은 외가닥 내리막길을 지쳐내리던 어린시절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다.

우리 천만군민의 삶과 투쟁의 앞날에 가없는 활주로를 열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엔 우리 인민이 짝 차있고 그이의 숭고한 지향도 오직 하나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당당한 주인으로 희한하

고 복된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것뿐이다.

사회주의부귀영화는 멀리에 있지 않다. 여기 마식령스키장과 세포등판에 이어진 길들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있지 않는가.

그 부귀영화로 가는 길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달아주신 나래, 비약과 혁신의 나래, 《마식령속도》의 거세찬 바람이 인다.

《마식령속도》의 창조자는 인민군군인들뿐이 아니라 전체 천만군민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이 우리 삶과 투쟁의 지침으로, 고무로 되고있는 오늘날 나는 갱소년된듯싶은 열기와 환희를 안고 대화봉정점을 내린다.

어릴적 스키를 타고 쉼 없이 지쳐내리던 그 심정으로...

벽시조

대 화 봉 의 해 돋 이

마 식 령 스 키 주 로

류 명 호

산이 산을 업었는가
층층험산들이
하늘에 닿은 마식령
눈뿌리 아득한 스키주로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진 길인듯

이 세상 스키주로는
우에서 아래로 내리는 길이건만
보아라 우리의 마식령스키주로는

세계를 향하여 단숨에 내려쳐오르는 길
21세기 선군조선의 속도가 내려쳐오르는 길

아, 마식령스키주로는
남들이 10년 걸려야 하는것을
단숨에 해제끼는 일당백속도
원수님 열어주신
선군조선의 활주로여라!

마 식 령 굽 이 굽 이 외 1편

최 주 원

평양—원산관광도로를 따라
단숨에 여기로 달려왔건만
나는 쉽게 오르지 못한다
굽이굽이 생각깊은 평길을

병사들의 위훈 자욱자욱 새기시며
대화봉정점까지 다 오르신

원수님의 사색깊은 발자욱따라
나무조차 호위초병인양 뿌리박은 이 평길

해발고로야 어찌 마식령의 높이를 다 헤아리라
하늘 끝까지 뻗어오른 이 길은
태양 가까이로 가는 직선주로
원수님 못 잊는 그리움의 길!

하늘가에 빛나는 글발

원수님 축복받은 군인건설자들
그날의 영광을 담아 신념을 담아
대화봉마루에 박아세운 글발이여
《인생의 영광》

스키장정점에 불타는 저 글발
병사들의 고동치는 심장처럼 보인다

병사들의 위훈짓는 금별처럼 보인다
《인생의 영광》

세상이 다 보라고 력사가 다 기억하라고
병사들 하늘가에 새긴 저 글발을
마식령은 문패처럼 높이 받들었구나
《인생의 영광》

대 화 봉 의 해 돋 이

장 일

봉화가 타올라
너의 이름 대화봉이였더나
서쪽을 보면 솔재령 들꽃향기 풍겨올듯
동쪽을 보면 갈마반도의 해돋이가 펼쳐질듯

산천의 꽃향기 동해의 해돋이를
우리 인민들에게 모두 안겨주시려

마식령스키장에 사랑의 자욱 남기시며
우리 원수님 대화봉정점에 서계실 때

인민들은 보았다 력사는 새기었다
백두의 기상 넘치는 원수님의 모습에서
대원수님들의 념원이 활짝 꽃피날
강성국가의 찬란한 해돋이를!



송혜경

나를 원정마을까지 안내해준 사람은 군인민위원회의 한 젊은 일군이였다. 옷을 때면 좁은 이마에 인상적인 주름이 건너가는 40대 초엽의 그 부원은 나의 이름을 듣고는 환성을 올리는것이였다.

《아, 〈비로봉의 아침〉, 이거 정말 반갑습니다!》

조선화 《비로봉의 아침》은 중앙에서 진행된 전람회에 입선한 나의 성공작이였다.

《우리 원정마을의 〈피로 지킨 초소〉를 찾아간단 말이지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선생은 고향이 원정이 아닙니까?》

나는 미소를 짓고 반문하였다.

《부원동진 혹시 원정의 차옥별이 만오빠가 아닙니까? 그 배나무집...》

《예, 옳습니다. 그러니 제 눈이 빗보진 않았군요.》

《저도 첫눈에 옥별이 오빠를 알아보았어요.》

이렇게 나는 현지창작의 첫걸음부터 반가운 한고향사람을 만나게 되였다.

좁고 긴 산골짜기의 호젓한 신작로는 끝없이 길었다. 원경으로 저 멀리 치마대초원의 아아한 정수리가 안개발운무를 휘감고 바라보였다. 구름우에라도 치달아오를듯 즐기차게 이어지던 골바닥길은 몇시간후에 산중에 들어앉은 산골치고는 어지간한 크기의 마을을 지나쳤다. 고개 하나를 넘어선 차는 무성한 단풍나무숲속으로 스며들어 길폭이 달구지길만큼 좁아졌을 때 멎어섰다. 우리는 거기 시작했다.

이 나라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산골길이였다. 석비레길 량쪽에는 모양이 둥근 키낮은 고양이마루가

간격맞게 울을 쳤다. 민들레와 물쭉이 그 째사이를 빼곡이 메운 소로길은 나에게 들꽃을 꺾어들고 동무들과 함께 무명전사묘를 찾아 오르내리던 어릴적 추억을 방불히 떠올려왔다.

나는 그 시절에 소년단반반장이였다. 이 길에 락업이 널릴세라 눈이 쌓일세라 쓸고 또 쓸고 무명전사묘의 빨간 오각별을 닦고 또 닦던 일은 모두 우리 소년단반에서 맡아하였었다.

나는 그 시절처럼 발부리의 잔돌맹이 하나도 조심히 옮겨놓으며 숙연한 걸음을 내짚었다.

길중턱의 서편 단풍나무숲 일여덟발자국 안쪽에 한메터 높이의 화강석비둘이 놓여있었다. 쪼아박은 《피로 지킨 초소》—제명이 뚜렷한데 그우에는 선혈을 뿜는듯 한 붉은 오각별이 새겨져있었다. 나는 그앞에 평양에서부터 안고온 꽃다발을 놓았다.

원정마을사람들은 이 묘에 잠든 조선인민군병사들의 얼굴도 나이도 이름도 모른다. 그 다섯명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최고사령부를 찾아가던 군인들이였다고 한다. 이 외통길목으로 적들이 땅크를 앞세우고 달려들 때 그들은 스스로 여기에 초소를 정하고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평양으로 가는 길을 지켜냈던것이다!

단풍나무숲속은 앞이 탁 트이였다. 무명전사묘를 받쳐안은 베개산을 내놓고는 사방 어디나 환히 내려다보이였다. 송림이 우거진 진고개, 그밑의 그림같은 산골마을, 잣나무숲속에서 끝이 반짝이는 텔레비죤중계탑, 울울창창한 숲사이로 엿보이는 새파란 시내물... 산천과 동무들과 헤어지기 아쉬워 울며 이사를 갔던 열한살소녀가 이제는 그 나이 또

래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 돌아왔건만 태를 묻는 산천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한창 꽃피는 계절이었다. 《피로 지킨 초소》는 연분홍의 화려한 철쭉꽃성벽에 파묻혀있었다. 그안에는 두겹세겹 원을 지어선 갖가지 꽃나무들이 차례를 기다리듯 다투어 봉오리를 부풀리고있었다.

승용차는 다시 길을 거슬러 원정마을로 찾아들었다. 변함없는 산천에 비하여 고향의 전변은 나를 놀래웠다.

어릴적 표상에 남아있는 내가 살던 샘물집, 시판이네 다락집, 포수네 집 소슬대문을 나는 찾아볼수가 없었던것이다.

현대적인 살림집들은 갖가지 꽃핀 과일나무들로 둘러싸여 시원스럽고 앙증스런 자태를 뽐내고있었다. 내가 다닐 때는 단층이던것이 오늘엔 2층짜리로 우뚝 선 중학교며 미끄럼대밖에 없던 유치원마당의 비행기그네며 장마철에는 비가 새던 문화회관이 맞는가싶은 나래가 번듯한 지붕이며 수영장도 있다는 은정원이 흐뭇하게 안겨들었다.

휘우듬하고 밀둥이 굵은 로목, 나의 어릴적 표상이 집중된 배나무를 찾아냈을 때 나는 새로운 기쁨으로 설레이기 시작했다. 뜨락에 여전히 낮익은 배나무가 서있는 그 집은 나의 소꿉친구 차옥별이의 집이었으며 미구에 내가 화쪽에 담으려고 하는 《피로 지킨 초소》의 관리원인 차영배로인의 집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 배나무집에 숙소를 잡았다.

수십년만에 찾아온 고향에서 소꿉동무 부모님들과의 상봉이 가져다주는 감격을 무슨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자 화가선생, 제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시오. 매일부터는 우리 아버님이 선생의 창작을 도와드릴겁니다.》

그리고나서 옥별의 오빠는 아버지를 데리고 한쪽구석으로 갔다. 수군수군하는 얘기끝에 《…당분간은…》하는 말이 들려와 의아스레 쳐다보는 나에게 히죽 웃음과 함께 인사를 남기고 나의 안내원은 곧 떠나갔다.

그밤의 정적은 유정도 하였다. 나는 배나무집의 오랜 가구들이 들어차 비좁은감이 드는 방에서 옥별이 어머니가 손수 덮어주는 꾸며서 오래 보관하여 좀 고삭은 냄새가 나는 두터운 목화솜이불을 덮고 홀로 누웠다. 새잎이 돋은 뜨락의 실한 배나무아지를 적시며 푸른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었다. 아래방에서는 이 집의 손자 복동이가 뭐라고 칭얼거리고있었다.

《아서라, 웃방 고모가 쉬는데…》

분명 조그마한 할머니가 주름많은 입가에 손가락을 세워보였을테지만 투실투실한 아홉살짜리 총각애는 랑불을 한껏 불구었으리라. 이어 부엌에서 설

견이를 끝낸 머느리가 들어오며 아이를 가만히 쥐여박는듯도 하고 정력에 넘치는 애아버지인 옥별이 둘째오빠의 으름장이 아이의 목소리를 꼭 눌러놓는듯 했다. 아까 저녁녘에 부산스런 아이를 화가선생의 창작때문에 당분간 재동마을 누이네 집에 보내려는 그 아들머느리의 의논을 차영배로인의 독한 음성이 눌러버렸다.

《그 엘 가만놔라. 화가선생의 심부름을 들게…》

아래방이 다 잠든 뒤에도 나는 잠들수 없었다. 나는 수십년만에 고향을 찾아온 이 원정마을의 딸이었다. 나는 이 집 로인내외의 젊었던 모습을 알고있었으며 그들의 둘째딸인 차옥별이와 함께 사내애들처럼 창밖의 배나무에 올라가 마가를 서리맞은 향기로운 꿀배를 따먹던 추억을 간직하고있었다.

소녀시절 가장 가깝던 나의 동무 차옥별이가 자그마한 밤빛사진책들속에서 나를 굽어보고있었다.

…《소연아, 아무리 둘러봐도 철쭉만큼 고운 꽃은 없어. 네 생각은 어떻게?》

《난 온통 도라지꽃밭을 만들려했는데…》

《도라진 제일 안쪽에 십자, 철쭉으로 빼곡이 담장을 치고…》

옥별이는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었다. 내가 반장이라지만 그는 소년반일을 두고 나에게 곧잘 이리저리 뒤희겨주었다.

아, 달콤한 추억이여… 나는 조용히 불을 켜고 곰과 사슴과 토끼를 오려붙인 낡은 책장속을 뒤적였다. 옥별이가 그날에 쓴 일기장을 찾아내었다.

《…우리는 오늘 〈피로 지킨 초소〉에 또 한그루씩 철쭉꽃나무를 심었다. 나무를 심으면서 우리는 차례로 희망을 말하였다. 노래 잘하는 시판이는 인민군협주단 배우가 되겠다고 졸렬거렸다. 언젠가는 반드시 〈피로 지킨 초소〉에 대한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과 같은 가극도 나올수 있겠는데 그 주인공은 웅당 원정마을사람이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그 애 말이 옳다. 것처럼 중요한 노래를 왜 남이 먼저 부르라고 내맡긴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학교선생이 될테다. 세월이 흘러가면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무명전사들의 이야기를 잘 모를수 있다. 난 그 애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주겠다. 걱정스러운건 목이 썩하면 쉬어버리는것인데 꿀을 먹어도 그때뿐이니 무슨 신통한 약이 없을까?

내 희망을 듣고나더니 정소연이가 모두 펼쳐나산과 들에 피는 백가지 꽃을 뜯어오자고 말했다.

〈한 애가 열가지씩 뜯으면 백가지야.〉

그건 왜 뜯자는가고 맹꽁이 애화가 눈이 울롱해서 대들자 그는 반장답게 너그럽게 타일렀다.

그건 포수아저씨가 대준 만병통치약인데 어느 꽃

에 옥별이의 목병이 나오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자 애화도 대뜸 응— 했다.

〈그렇다면 천가지라도 뜯자. 내 희망은 말이야, …〉

나는 뭐니뭐니 해도 화가가 되겠다는 정소연이의 희망이 제일 마음에 든다. 왜냐하면 우린 아직 누구도 우리 고향 영웅들의 모습을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머리속에는 그 모습들이 환히 떠오르지만 그걸 그려보인 사람은 아직 없었다.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그려내겠다는걸 난 맹세한다!〉

그 애는 철쭉꽃처럼 얼굴이 붉어져서 웨쳐대었다. 너류화가 정소연! 멋있다. 그가 그린 내 고향의 화폭은 언제 태어나게 될까?!〉

나는 일기장에서 눈을 떴고 책상에 세워져있는 사진틀속의 옥별을 마주보았다. 차옥별이는 일기장의 자기 희망대로 교원이 되지 않았다. 나는 옥별이 만오빠와 통성하자마자 옥별이의 안부부터 물어보았는데 그는 웃으면서 《우리 옥별인 영원한 근위병이지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 말을 조선인 민군군관이라는 뜻으로 리해했다. … 사진속의 옥별이는 빨간 령장을 단 군복입은 단발머리 녀병사였다. 아마도 인민군대에 입대하면서 찍은 기념사진인 모양 입을 꼭 다물고 정색한 얼굴표정을 한 애 어린 인민군녀병사는 중학교때 꿈속에서 늘 그려보았던 도시의 사범대학청사를 배경으로 서있었다. 나에게서는 사진속의 그 처녀병사 옥별이가 도톰한 입술을 움켜쥐어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소연아, 축하한다! 끝내 유명한 너류화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장해, 넌 꼭 해낼거야. …》

나는 자신심에 넘쳐있었다.

고향을 떠난 뒤 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대리석층계를 오르내리며 미술소조에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후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희망대로 화가가 되었다. 그때부터 지난해 미술축전에서 《비로봉의 아침》이 당선될 때까지 나는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기 위한 총진군길에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있는 창조와 변혁, 비약의 한복판에서 내가 찾아내고 속사해낸 아름다운 인간들의 초상은 헤아릴수 없다.

나는 아침에 꿀벌소리에 잠을 깨었다. 처마아래 세워놓은 아름답드리 웅글은 벌통의 비좁은 구멍속으로 수백마리의 꿀벌들이 바글바글 뚫으면서 드세치게 꿀을 떠나르고있었다.

《피로 지킨 초소》의 철쭉꽃숲은 아침이슬에 함합히 젖어있었다. 천만단풍잎새사이로 껌비친 해살에 화락한 꽃잎의 이슬이 마르자 꿀벌들은 더욱 맹

렬히 꽃송이를 애무했다.

내 앞장에 서서 화판을 메고 올라온 복동이는 꿀벌들을 놀래우면서 조잘거렸다.

《할아버지, 이것 봐요. 이 날개가 삐죽한 놈은 시범이네 꿀벌이야요. 난 쫓아버릴래요.》

《이녀석, 가만놔둬라. 꽃이 떨어질라.》

쭈뼛 길을 쫓던 차영배로인이 허름한 평şam채양을 찢히고 소리를 질렀다. 그 길쓰는 소리도 나에게겐 귀익었다.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나비옷을 입고 분꽃을 꺾어들고 이 령마루에 오르내릴 때부터 나는 저 로인의 비질소리를 들어왔다. 초리긴 싸리비자루로 흙을 쓰다듬는 소리… 복동이의 떼질소리는 그 비질소리보다 짹짹하다.

《안예요. 그 앤 어제 나쁜 장난을 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고운 꽃을 그려오라니까 그리진 못하구여기 와서 철쭉꽃을 꺾어갔지요 뭐.》

그 애는 시범이네 《미운 꿀벌》을 쫓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꽃잎을 헤집고 들어박히고 진동하는 꽃향기의 대기속으로 종횡무진 날아다니는 그 술한 꿀벌들을 일일이 가려내는 복동이는 그 또한 할아버지를 따라 쉬임없이 이 령마루를 맴도는 꿀벌이나 같았다.

새삼스러운 추억이 또다시 갈마들었다.

우리도 그때는 복동이 나이또래 꿀벌들이었다.

…우리가 심은 철쭉꽃나무들이 첫 망울을 터치던 뜻깊은 그 봄날 평양에서 예쁜 처녀기자선생이 학교에 찾아왔었다. 해마다 이 《피로 지킨 초소》에 고운 꽃씨도 뿌리고 영예군인인 판리원을 도와 길도 잘 쓰는 착한 동무들이라고 하면서 그저 기뻐서 방실방실 웃고만 있는 우리를 저 오각별앞에 나란히 세우고 《소년신문》에 널 사진을 찍었다. 활짝 피어 웃고있는 금강초롱꽃나무들을 배경으로… 오늘도 꽃밭의 첫 머리가 온통 금강초롱천지로 변하였다. 그 무수한 꽃들이 밤에는 등불이 되어 무명전사묘의 오각별을 밝게 비치리라!

나는 넘죽한 베개산을 등지고 금강초롱꽃밭을 마주하여 철쭉꽃숲그늘에 파묻히도록 자리를 잡고앉아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빛을 받고있었다.

단풍나무의 내뻗친 가지에 차영배로인의 큼직한 회색덧옷이 걸려있고 굵은 연갈색밀등엔 길을 다 쓴 소담한 싸리비자루가 기대어있었다. 차로인은 묘비주변의 잔디를 깔고있었다. 가위가 어찌나 잘드는지 그 소리가 종이를 베듯 사각거렸다.

나는 감회에 젖어 말을 건넸었다.

《아버님, 그 불편하던 다리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라에서 고쳐줬지… 그날도 내가 여기서 잔디를 깔고 앉았는데 평양에서 구급차가 오더니 날 봉 떠안고 중앙병원으로 데려가는데 아니겠나. 박사선

생의 수술을 받았어. 참…》

분명 무슨 말인가 더 나올듯 해서 귀를 강구했던 로인은 담배를 마는데 열중하고있었다. 그가 한모금 빨고 묘석에 올려놓은 마라초향기가 내쪽으로 실려왔다. 바라보느라니 수수한 작업복이 널찍한 어깨를 감싼 그 모습에서 앞가슴에 영예군인 메달이 공경스럽던 옥별이 아버지의 젊었을적 모습이 눈에 방불히 떠올랐다. 제대되어 스스로 말아 시작한 도로관리원을 겸하여 한생을 무명전사묘의 관리원으로 살아온 숨은 애국자였다. 그의 뒤에는 언제나 둘째딸인 차옥별이가 그림자마냥 항상 따라다녔다.

그날 저녁 나의 얼굴은 눈을 뜰수 없게 퉁퉁 부었다. 화판에 날아든 벌을 쫓는다는것이 그만 쓰이고말았던것이다.

《화가선생이 벌에 쓰였다고요? 하— 그건 아주 좋은 선물이웨다. 벌침은 보약 한가지인데 화가선생이 고향에 왔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거지요. 이제 명작이 태어날거웨다.》

문포수의 방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마을이 돌쩌귀에 불이 일도록 찾아들었다. 갓김치를 퍼들고 쑥떡바가지들 들고, 아이들은 산에서 꺾은 만문한 싱아뭉음을 들고… 문포수의 막내며느리를 맞게 된 이야기에 이어 예순이 넘은 그 나이에 아직도 기력이 왕성한 시범이 할머니의 공훈기관사가 된 아들 시판이에 대한 자랑이 한창인데 원정중학교 교장선생까지 찾아들어왔다.

《화가선생, 우리 학교 미술소조 실기지도를 부탁하려했는데 오자마자 이게 됩니까?》

이목구비가 준수하고 호방한 성격을 가진 장년의 박교장이 문가에 나타나자 순간에 학생아이들은 물젓듯 해버리고 어른들이 융숭히 자리를 내어주었다.

젊은 시절부터 이 원정마을에서 중학교선생을 해온 박교장은 내가 어릴적 이 원정마을에서 나서자라난 샘물집 딸이며 차옥별이나 박시판이와는 한학급에서 공부한 동창생이라는 소개를 받자 몹시 기뻐하였다.

《허— 우리 학교 영예게시판에 화가선생에 대한 소개를 해야겠구만요. 정말 꼭 한번 오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기다릴겁니다.》

그는 나에게 몇번이고 당부하였다.

그 저녁에 십리나 떨어진 철길근방의 재동마을채신분소 통신원처녀가 낮익은 군사우편함이 적힌 두툼한 편지를 배나무집에 가져왔다. 오중흙7면대칭호쟁취운동판정훈련에서 있었던 가지가지 영웅적이며 감동적인 이야기가 적혀있는, 20여년세월의 맥박을 이어주는 차옥별중대의 그 편지를 온 마을이 기뻐서 함께 읽었다. 별들도 지붕우에 총총히 내려

앉아 배나무집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를 귀기울여듣는듯 했다.

또다시 원정마을의 령마루에 붉은 저녁노을이 비졌다. 화판을 거두어 내리는 길로 나는 동구길초엽의 배나무집을 지나쳐 내쳐 걸어갔다. 한굽이 파수원언덕을 에돌자 개나리덤불이 휘날어진 비탈길에 돌계단이 보였다. 째새기에 이끼가 새파란 다섯개의 계단을 내려서니 며칠동안 와본다고 버르기만했던 그 옛날의 우리 집 샘물이 나졌다. 돌레엔 예나 지금이나 구기자덩굴이 성해서 가끔 물우에 드리우는 아지를 젖혀주지 않으면 안되는 한술들이 박우물속에는 새알크기의 차돌들이 하얗게 깔려서 퐁퐁 솟구치는 샘줄기에 어룡거렸다.

아, 차돌!… 내 고향의 어딜 가나 옥별이에 대한 추억이 묻어다녔다. 이 샘물속의 차돌도 옥별이가 금강산마을에 갔다가 지고온것이였다. 차돌은 뭇할거냐고 물었더니 꽃나무를 심을 때도 이 샘물을 길어가고 오각별을 닮을 때도 이 샘물을 떠가는데 항상 깨끗하고 맑게 하자고 그런다고 했다.

지금도 차돌은 금방 옥별이가 한알한알 집어넣은듯 조금도 닳지 않았고 물때도 끼지 않았다.

아, 보고싶은 나의 동무야!…

다음날도 나는 의례히 그림그리는 장소에 앉아있었다.

차분히 봄비가 내리는 잔디밭에서 커다란 우산을 펴든 총각애가 나의 화판을 막아주고 서있다.

《복동아, 팔이 아프지?》

《아니요, 시범이가 날 부러워할거야요.》

《왜?》

《그 앤 여기 오고싶어도 못 와요.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도 시범이만은 내가 오란다고…》

《췌! 조용하랴요. 저기 할아버지가 와요. 내가 선생님곁에서 말하고있는걸 보면 할아버진 나도 쫓아보낼거예요.》

복동이는 입을 꼭 다물고 보조병처럼 내뒤에 서있었다. 우산천자락을 두드리는 비소리… 묘지의 푸른 잔디도, 철쭉꽃담장도, 청청한 단풍나무숲도 즐거운듯 조용히 명상에 잠겼다. 그속에서 움직이는것은 차영배로인뿐이였다. 후평한 평상모의 채양이 폭 꺾어져 이마에 무겁게 내려앉은 로인은 비가 오든말든 긴 장대기를 들고 풍채좋은 단풍나무의 지난해 묵은 잎사귀를 따주고있었다. 점점 나무를 따라 멀어져가스가싶더니 나에게로 급히 다가왔다.

《이게 생각나나?… 로친네가 얼마나 깊이 건사했겠는지 오늘에야 찾았네. 도움이 될거야.》

로인은 복동이의 우산안으로 품속을 더듬던 팔을 뻗쳐 나의 화판우에 조그마한 종이를 올려놓아주었

다. 중학교학습장에서 뜯어낸것 같은 종이장은 오래되어 누렇게 퇴색되어있었다. 그러나 그속에 그려진 크레용화는 그냥 생생했다. 그림은 거의 모상이 같은 다섯명의 인민군병사들의 초상이었다. 다만 마지막에서 첫번째로 가면서 군복지의 령장에 관등급표식이 하나씩 더 늘었을뿐이었다. 전사, 상등병,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다섯명의 머리우에는 주먹만 한 오각별이 빛나고있었다. 크레용화의 제목은 《내 고향의 영웅아저씨들》이었다.

나의 손은 가볍게 떨리었다. 그것은 나의 첫 그림이었던것이다. 원정마을의 사무장을 하다가 중앙의 성기관으로 소환되어가는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던 그해 나는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저 크레용화를 그렸었다.

그날도 오늘처럼 봄비가 내렸다. 첫 비방울이 이마에 떨어지자 나는 서둘러 그림종이를 거두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도 키작은 단풍나무의 떡잎을 따주던 옥별이 아버지가 다가와 제 덧저고리를 벗어 내 머리우에 풍막을 쳐주면서 말했다.

《애, 마저 그러라. 내가 이렇게 서있을테니...》

그는 실상 자기의 큰 몸집으로 비를 막아주고있었다. 내가 빨간 크레용으로 마지막별을 새기고 났을 때 옥별이 아버지는 꺼칠하고 큰 손으로 내 머리를 한번 묵직이 쓸어주고나서 나를 앞세우고 농장관리위원회로 갔다.

생울타리가 보기 좋은 관리위원회정문앞에는 작업반별, 분조별 《토지개량훈장이경쟁도표》가 붙어있었다.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석비테땅을 옥도로 개량하는 일이 마지막전투로 고조되던 때여서 농장원들은 누구나 새벽출근길을 그 경쟁도표판앞으로 애돌아갔다.

나를 세워놓고 리합숙식당에 들어가 밥덩이를 얻어가지고 나온 옥별이 아버지는 그림종이의 네귀에 풀을 발라 나에게 주었다.

《네 손으로 붙여라, 저 맨 꼭대기에다...》

나는 발뒤축을 고였으나 키가 모자랐다. 그는 선뜻 비젖은 땅에 뚫어앉더니 널직한 잔등을 내앞에 구부렸다.

《밟고 올라서거라...》

올라섰다...

그런데 이 그림을 아직까지 보관하고있었던란 말인가! 나는 점도록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긴 장대를 들고 소리없이 움직이며 뭔가 끝없이 이 산천에 손질을 하고있는 땅의 한부분과도 같은 차영배로인을 바라보았다.

이 땅,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한 크나큰 사랑. 그에 앞서 선렬들에 대한 성스러운 의무감... 나는 또다시 붓을 들었다. 벽찬 창작의 나날은 홀

러갔다. 하지만 왜서인지 창작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었다.

원정은 아름다운 산골이었다. 경치가 가장 좋은 곳은 마을뒤쪽 세바우골짜기였다. 심산유곡에 갈색곰이 웅크린것 같은 풍채좋은 너럭바위도 있고 구슬타래같은 물이 섰돌며 구울러내리는 여울도 있다. 내가 어릴적 여기서 살 때에는 수려한 청산이 비껴 사시절 새파란 여울우에 든든한 이깔에 꺾쇠를 박아 가로지른 뗏메터짜리 통나무다리가 놓였었다. 그 통나무다리이름은 머루다리였다. 랑대안이 락락장송에 뻗어오른 머루덩굴로 뒤엉켜있었다. 가을이 오면 덩굴에서 떨어진 단풍잎사귀들이 다리바닥을 울긋불긋 꽃주단처럼 뒤덮고 그우에 서리를 맞아 새까맣게 익은 머루송이들이 푹푹 떨어져내렸다. 이른아침 그리로 달려가서 이슬맺힌 향기로운 머루송이를 종다래끼에 주어담기란 얼마나 즐겁고 상쾌한 일이었던가!

실지로 그 머루다리는 우리 원정마을의 보배다리였다. 서편으로는 세바우등판의 목장과 잇닿았고 동쪽으로는 원정림산의 채벌장과 련결되어있었다. 지금은 울퉁불퉁했던 그 통나무다리가 견고하고 매끈한 세멘트다리로 바뀌었다.

하지만 두개의 경간을 가진 견고한 다리기둥 첫 머리에는 머루다이란 옛이름이 그대로 새겨져있었다. 그렇다! 다리는 변하였지만 그 이름은 변함이 없었다.

이해의 가을에도 이 현대적인 다리에는 그 옛날 통나무다리에서처럼 새까만 머루송이들이 단풍잎우에 떨어져내리리라.

새벽이건 저녁이건, 달이 솟는 밤이건 나는 때없이 그 다리로 나왔다. 란간에 기대여 또는 거닐면서 나는 끝없이 어릴적 추억속의 차옥별이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었다. 옥별아, 난 네가 교원이 아니라 군사복무의 길을 택한 그 장한 이야기를 듣고 어쩐지 내자신이 부끄러워지는구나. 우리 원정의 피로 지킨 초소에 잠든 영웅들처럼 살자고 언약한 그 희망을 옥별이 네가 우리모두의 앞장에서 꽃피워나가고있다는 생각에 말이야.

저기 멀리 기적소리가 메아리쳐오는구나. 저건 우리의 친근한 어릴적 동무 로력영웅 광시판이가 울리는 기적소리일지도 몰라. 피로 지킨 초소의 영웅들을 노래하는 가극배우가 되겠다던 그가 오늘 저렇게 기적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있어.

참, 그날에 그려보던 우리의 이 오늘은 얼마나 벽차고 환희에 넘치는것이냐!

하지만 옥별아, 난 어쩌면 좋니. 내가 바라던 무명전사들의 모습을 우리 고향의 화폭속에 떠올린다는것은 정말 험치 않구나. 이름도 나이도 고향이 어딘지, 사진 한장 없는 그 영웅전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방불히 그러낼지 속이 라는구나. 그래서 피로워. 심장속에선 그 영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정이 끓어오르건만 오늘도 나는 내가 그린 내 고향의 화폭이 성차지 않아 이렇듯 모태기고있어. 이런 때 옥별이 네가 내곁에 있었으면!...

다리기등을 감돌며 흘러가는 여울물소리, 가슴가득 넘쳐나는 향촌의 꽃향기, 풀향기... 그 향취가 너무도 진하고 꼭진해서 나는 더더욱 피로왔다.

고향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 피로움을 나누었다. 집집마다 앞을 다투어 특식을 차려놓고 나를 초청해주었다. 나를 위해 즐거운 가족오락회도 열었고 나에게 노래도 요청하였다.

《이번에는 화가선생의 18번을 들어봅시다...》

나는 노래대신 최근에 창작되어 널리 애독되던 서사시 《내 고향의 별바위》 한부분을 즐겨유했다.

한줌 흙도 없이 한그루 나무도 없이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숙일줄 모르는 그 뉘의 기개인양
이마를 치켜든 도도한 모습
이마우엔 군모런듯 집채같은 바위 하나
바위벽엔 오각별이 뚜렷이 새겨진
예가 바로 내 고향의 자랑 별바위!
열세용사바위!

옛 동창생 시판이네 집이며 샘물집, 다락집, 온천집에서도 유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를 기념하는 마을청년들의 우등불모임에서도 나는 그 서사시를 유했다.

충천하는 우등불, 그 주위에 성벽을 쌓고 선 돌격대원들의 청동의 얼굴들, 그 심장들이 일떠세우는 발전소건설장의 강철기둥의 번쩍임, 그 기슭으로 곱들거리며 밀려드는 남대천의 검푸른 물결... 창조의 격렬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도 나의 심장을 터치였다.

나는 노래하련다
노래는 내 심장의 전부이거니
조국위해 아낌없이 생을 바친이들에게
심장을 바침은 후대의 참다운 의리 아니라

한창 농번기였다. 하루밤 자고나면 새로 갈아빈진 물씬한 밭이랑이 땅김을 피워올리고 하루해가 저물면 새로 옮겨심은 강냉이영양단지모들이 그 땅을 푸르게 뒤덮었다. 마을의 구석구석 알뜰한 터밭들에는 벌써 올감자와 풋마늘이 우거졌다.

배나무집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편의를 도우려고 애썼다. 닻새제되는 날은 옥별이 어머니가 몸소 밭

합지를 이고 경마루에 올라왔다. 내가 아무리 말려도 농장일과 집일에 드바쁜 잠시간을 내어 매일 나의 밭구역을 들고 땀에 떠서 달려오던 배나무집머느리가 그날은 점심밥까지 싸가지고 먼 분조밭으로 일하러간것이다.

《아이, 어머니두... 제가 내려가도 될텐데...》

《뭘, 그저 그림만 잘 그려달라구. 자네가 큰 화가가 돼서 이렇게 고향에 내려온줄 알면 우리 옥별이도 기뻐할거야.》

색시적에도 몸이 단단하던 옥별이 어머니는 환갑이 넘은 그 나이에 또 아직 행동거지에 젊음이 넘치었다. 그는 껌싸게 함지숙의 찬그릇들을 집어내었다. 그는 인자한 얼굴로 온기가 파끈파끈한 수수지 집접시를 내 바투 당겨주었다. 그 한접시의 수수지 집도 나에게서는 소중한 어릴적 추억속으로 돌아가는데 충분하였다.

배나무가 하늘을 덮은 여름날의 저녁, 뜨락에 숯불을 피우고 커다란 솔뚜껑에 돼지비계를 지글지글 졸이면서 흰 타올수건을 쓰고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연방 지저내는 손바닥같은 수수지집을 일곱식술이 빙 둘러앉아 먹어댄다. 그속에는 제비꽃을 꺾어 머리에 얹은 옥별이와 나도 끼었다.

《소연아, 많이 먹어라.》

금방 지진 파끈파끈한것이 내앞의 그릇에 담긴다.

《애, 많이 먹어라.》

한쪽에 쪽상을 받고 앉은 차영배아버님의 긴 팔이 또 저가락에 지짐을 꺾들고 내쪽으로 넘어온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본따서 옥별이의 오빠, 언니들도 별로 맛있어보이는것들을 제가끔 그우에 덧놓아준다. 순간에 지짐뚝배기는 텅 비었지만 내앞의 사발만은 여전히 무득하다. 나는 그것을 옥별이와 둘이서 밤에 공부하다가 다 먹어치운다. 그날의 꿀맛 같던 수수지집맛, 그 고소한 기름냄새!...

《어머니, 고마와요!》

발그레한 줄당콩밥을 밀어놓고 육십스레 수수지집을 꺾어드는걸 보고 옥별이 어머니는 오히려 죄스러워하였다.

《임자도 수수지집을 좋아하됐구만. 그런걸 난 제 딸 생각만 했지. 용서하라구. 우리 둘째딸이 집에 온다는 기별을 반구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잘 불지 않은 수수쌀을 바빠 갈다나니 지짐이 잘 안됐네.》

《누가 온다구요?》

《우리 둘째딸이 온다네.》

《예?! 그럼 옥별이가요?》

녀인은 대답을 않고 젊었던 그 시절처럼 곱게 웃기만 하였다.

나의 기쁨도 어머니와 다를바 없었다. 고향에 밭

을 들어놓는 순간부터 옥별이를 만나보고싶어했던 생각이 이렇듯 뜻밖에 이루어질줄이야....

자감에 빠진 내 저가락에서 미끄러지는 수수지 짐을 너인이 손을 뻗쳐 받쳐주었다. 그 찰나에 한 패의 아이들이 왁작 떠들며 밀려올라오는 소리가 확 커졌다.

《할머니!... 할머니!... 고모가 와요. 고모가!...》

복동이네 패들이 철쭉꽃술너머에서 언뜻언뜻 고개를 내미는가싶더니 아이들에게 랑팔을 내맡긴 끼끗하고 호합진 한 녀성군관이 활짝 웃으며 내결의 녀인을 향하여 달려왔다.

《어머니— 그새 잘있었나요?》

그 녀성군관은 인사를 하듯말듯 그저 무작정 몸매작은 녀인을 품에 꼭 껴안는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옥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옥별이 어머니는 친딸이라도 만났듯 그 녀성군관의 온몸을 살뜰히 매만지며 울고 웃는다.

《군대가 용케 짬을 냈구만. 고맙네... 암, 우리 집 식구들이야 다 잘있지. 우린 그저 임자네들 생각뿐이라네... 확실히 임자 몸이 좋아졌어. 애를 먹던 위탈은 좀 어떤가?》

《이젠 일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보내 준 원정의 보약을 먹었더니 요즘에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지. 군대가 힘을 쓰자면 뭐니뭐니해도 몸이 든든해야 해.》

끝없이 정을 퍼주는 어머니였다. 정말로 어머니와 딸이 만난것 같은 정겨운 상봉이었다. 보매 원정의 이 배나무집과 옥별이의 부대사이에는 이미 혈연적인紐대가 맺어져있는것 같았다.

나도 잠시 그 녀성군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내가 어릴적에 이 원정마을에서 차옥별이와 함께 자란 동무이며 그 시절에 나는 희망대로 오늘은 이렇게 고향의 모습을 그리려 평양에서 내려온 미술가라는 사연을 듣고 녀성군관은 웃으면서 울면서 크게 고개를 끄덕여주었다.

그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화가동지, 전 옥별동지에게 죄를 진 사람이랍니다. 내가 그를 대신했더라면...》

녀성군관은 영문모를 말마디들을 눈물속에 쏟아놓고는 떠나갔다.

그날 늦은 오후 나는 원정중학교를 찾았다. 잊겨려에 받은 초대장에 의한 걸음이었다.

《명덕군 원정중학교 고급반 미술소조작품전람회를 열었으니 매일 오후 첫시간에 우리 학교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박정철.》

은 원정마을이 참관하게 될 미술소조작품전람회에 제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주려는 박교장의 성의

가 그 한장의 초대장에도 깃들어있었다.

아직 기량이 서툰고 미흡한 점이 다분히 느껴졌지만 열성껏 그린 학생들의 그림이 2층의 미술소조실 널찍한 한벽면을 가득 채우고있었다. 화폭의 내용들은 내 고향 원정의 푸른 산과 들, 그우에 넘쳐나는 맑고 따사로운 햇빛과 그속에 흐르는 청신한 물과 공기처럼 이미 나의 눈에, 녀에 스며들고 소중한 생활의 단편들이었다.

그런데 그 생활화폭의 주인공이 바로 나의 동무 차옥별인것이다. 무명전사묘에 철쭉꽃나무를 심는 소녀, 구기자생물속에 금강차들을 깔아놓는 소녀, 머루다리우에서 미끄러지는 양을 끌어안고 겨울의 얼음물속에 뛰어내리는 녀학생, 가슴에 꽃을 달고 인민군대로 떠나가면서 모교의 정문기둥을 쓸어보는 녀병사... 넥타이를 맨 레복차림의 박교장이 차옥별이가 교단에 서있는 그림앞에서 나에게 의미심장한 해설을 보태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차옥별영웅을 〈우리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있지요. 오늘이 바로 그가 희생된 날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의 당혹했던 나의 심정.

소녀시절의 꿈은 있었을망정 한번도 교단에 서본적이 없는 차옥별이를 못 잊어 이렇듯 절절히 자기들의 그림에 담은 학생들의 정성에 놀라고 강한 호기심에 이끌려 전람회장을 거닐던 나의 심장에서 드디어 《쿵!》하고 홍벽이 세차게 울리는 소리가 귀전에까지 메아리쳐왔다. 우리 옥별이가 공화국영웅이었구나!... 나만이... 이 원정마을에서 나만이 그 사실을 모르고있었어!

아니, 나도 알고있었다. 어느해였던가?... 벌써 십여년전의 일이었다.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년간계획을 완수한 안주란전의 굴진공들을 찾아가는 차안에서 나는 한목숨바쳐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구호나무를 지켜내고 전사한 차옥별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한다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이 랑독되는 방송원의 보도를 전해들었다. 다만 그때 나는 그 장한 조선의 딸이 원정마을의 소녀시절 나의 동무 차옥별일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뿐이다.

죄송스럽구나, 옥별아!... 송구스럽구나, 옥별아!... 그렇듯 장한 너를 내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듯 훌륭한 너의 곁에 내 아직도 땃땃이 다가설수 없으니... 정녕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나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다. 모교의 미술전람회초청장을 받고 온 옥별이의 맘오빠였다.

《차동지! 용서해요... 어쩔 그렇게 한마디 말도 없이...》

《뭘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그런 영웅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많아요... 그러나... 옥별이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들도 너무해요. 내가 얼마나 옥별이 보고싶은 생각으로 애애했길래... 왜 그냥 모두들 잠자코계셨는가 말입니다!》

나의 두볼은 화락한 눈물로 젖어내렸다.

《사실은 창작에 지장을 줄까봐 아버님과 그렇게 약속했더랬습니다! 그러구 누구나... 그런 정황에 부탁했다면 우리 옥별이처럼 행동했을겁니다...

그 앤 기통수였지요. 통신물을 받아가지고 부대로 돌아가다가 가까운 산속에서 연기가 치솟는것을 보았습니다. 구호나무들이 서있는 근방이었습시다. 더 생각할새가 없이 같이 가던 동무에게, 아까 왔했다는 그 녀성관입니다. 그 동무에게 통신물을 넘기고 그는 연기나는 산속으로 달렸지요.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가보니 불길의 수레 번쳐서 이글거렸지요.

《안된다! 구호나무쪽으로는 못 간다!...》

우리 옥별인 덩굴고, 옷자락으로 두드리고, 흙을 쥐어뿌렸지요. 열손가락으로 방화선을 치면서... 그 애가 쪼꼬말 때 산에 데리고 갔던적이 생각납니다. 가시에 손가락이 찢려서 우는걸 집에까지 업고 왔던 그 애가 그 뜨거운 불길을 멈춰세웠으니 얼마나 장하겠습니까!》...

묘교를 나선 나와 차동지는 약속이나 한듯 령마루로 향했다. 올랐다!

한낮의 《피로 지킨 초소》는 눈부시게 찬란하였다. 태양은 단풍나무숲우에서 빛나고 무명전사묘의 붉은 오각별은 그아래서 불타고있었다.

내 상념의 눈앞에는 하늘땅을 짝 메우며 이곳에 잠든 무명전사들의 군상속에 함께 서있는 차옥별이의 모습이 우렁이 떠올랐다.

나의 안내원인 차동지는 뜨겁게 달아오른 묘석의 붉은 오각별을 매만졌다. 나는 이미 꽃이 진 푸른 철쭉꽃담장을 와락 쓸어안았다.

《옥- 별- 아-!...》

나의 웨침- 그 부름에 억세게 물결쳐간 무수한 산발들이 끝없는 메아리를 일으켰다.

《옥- 별- 아- 아아-》

그에 화답하듯 와스스... 길가의 단풍나무숲이 설렘었다. 이때였다. 단풍나무숲을 울긋불긋 누비며 신랑신부를 앞세운 결혼식행렬이 마을복판을 걸어 나왔다. 질푸른 철쭉꽃담장은 또다시 화려하게 꽃

이 피었다.

한쌍의 신랑신부가 이 산천에 활짝 피어난 두송이의 꽃처럼 눈썹리를 뻗다. 나는 더없이 감개가 무량하여 가슴이 한껏 부풀어나는것 같았다.

또 한쌍의 젊은이들이, 피로 지킨 초소를 눈에 익히면서 자라오고 가꾸어온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익히 보아온 이 풍경. 피로 지킨 초소와 인연맺은 이 고향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렬들의 뜻을 이어 고향을 훌륭히 가꾸어갈 것이다.

인민군전사들처럼, 차옥별이처럼...

세월과 세월을 넘어 이 땅에 영원히 펼쳐져질 내 고향의 풍경.

아아, 바로 저것이 아닌가!...

심장을 툭 더치고 내 고향의 화폭을 확정짓는 그 어떤 상상의 환희가 새처럼 푸드득 날개를 치며 창공을 향하여 힘껏 날아올랐다. 늘 지니고다니는 속사철우에 나의 손이 번개처럼 휘날렸다.

나는 드디어 날에 날마다 사회주의락원으로 새로이 변모되며 또 변모될 이 산촌의 창조의 원천으로 되는 내 고향의 모습을 발견한것이다. 수령결사옹위의 화신인 무명전사들과 더불어 사랑하는 고향사람들을 영웅으로 키워주는 저 숭고한 풍경이야말로 내가 영원토록 그리고그려도 못다 그릴 내 고향의 화폭이 아니겠는가!

오오, 아니다

...

어찌 이런 높은 삶들이
태양을 지킨 장한 삶들이
그 이름 남기지 않았으리
그 모습 남기지 않았으리

...

아름다운 생은 땅에 묻히는 법 없고
시작은 있어도 그 끝을 모르나니

...

서사시 《내 고향의 별바위》의 시인의 환희가 오늘은 나의 환희로 되어 저렇듯 황홀한 《내 고향의 화폭》을 펼쳐리라!



산수시조

천하명산 묘향산(2)

함 영 근

이선남폭포여

천년을 내리였나
만년을 드리웠나
하늘에서 비단필이 드리운듯
땅에서 물기둥 하늘로 솟구친듯

어버이장군님 너를 보시며
금강산엔 선녀들이 내린다지만
묘향산엔 선남들이 내린다고
이름지어주신 이선남폭포

두 선남 모자를 쓴듯
폭포우엔 바위바위 큰 바위

가을바람에 옷자락 날리는듯
바람에 흩날려 부서져내리는 은구슬 금구슬

구슬도 다듬고 껴야 보배되듯
바위도 다듬고 물도 씻고씻어
내 나라 명산을 빛내주신
장군님의 은정 하늘에 닿았거니

너 내려 천만년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장군님 너를 찾아주신 그날부터 너는
청춘선남으로 영원한 축복을 받았구나
아, 이선남폭포여!

불영대의 달밤

—불영대의 달구경은 묘향산의 8경이다—

해 떨어지자 단군대의 노을도 지고...
한순간에 어둠이 깃들더니
비로봉에 두둥실 달이 뜨네
명산이 환히 밝아지네

낮풍경막이 밤풍경막으로 바뀌는가
쿨마다 달빛이 가득차니
낮풍경에 산을 못 내리겠더니
불영대의 달구경에 향산을 아예 베고자고싶네

낮에는 흐르는 물 옥구슬 같더니
달빛어린 폭포는 황금물 쏟치는듯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폭포소린
나를 품고 불러주는 자장가인듯

어허 해님이 아끼고아끼던 낮풍경
달님이 시샘나 찾아냈느냐
어허 과연 묘향산은 명산중 명산
이 세상에 또 하나 밤묘향산이 솟은듯

낮풍경 밤풍경 하루에 다 보니
향산의 달아 내 너와 부탁하고싶구나
너 비로봉에 해뜰 때까지 지지를 맡아다오
나의 평생에 밤이 없게!...

등산길 걸으며

차를 타고 가는 새 등산길
굽이굽이 열백굽이
가다가 쉬며 쉬면서 가는 길
그것이 등산길인줄 내 알았더니

세상에서 으뜸인 명산의 등산길
절벽가에 길이 열려 노래의 길
끝과 끝에 다리 놓아 춤이 나는 길
그 길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감사의 눈물...

걸어서 가자 걸어서!
우리 장군님 이 등산길 열어주시려
절벽을 뚫으시고 숲을 헤치시며
우리에게 안겨주신 행복의 길

옛말의 신선같이 차를 타고간다면
잠시면 달을 명소와 명소

아니란다 팔도 흘러며 걸어야
장군님은정 더 잘 알게 아니냐

걸어서 가자 걸어서!
굽이굽이 명소마다에서 우릴 맞아주실듯
장군님모습 그리며 걷는 등산길은
사회주의부귀영화의 길로 곧바로 열린 길!

명산의 나라

금강산비로봉 여기에 옮겨왔나
묘향산에 우뚝 솟은 비로봉아
금강산 진주담 맑은 물 넘쳐 흘러든듯
수정같이 고여 땀도는 향산의 금강못아

금강산은 여기서 천리 또 천리건만
금강암 여기에 솟아있고
만폭동의 천태만태폭포도
향산의 절벽가에 그림같이 걸려있어

내 묘향산경치 하 좋아 여기에 왔더니
금강산의 경치 여기에도 다 있어
어느것이 묘향산이고
어느것이 금강산이나

명산을 헛갈린들 무슨 상관!
내 조국은 어데 가나 금수강산
백두대산줄기에 났을 뭍은 명산이거늘
산을 헛갈린들 무슨 상관!

묘향산이 빛나는것은...

절묘한 산세 그윽한 향기...
유정한 물소리 온갖 새소리...
하여 너의 이름 묘향산
하여 너의 경치 천하제일

보는것마다 절승이요
들리는것마다 절창인데
하늘길 땅길 배길 끝에 잇닿은 곳에
높이 솟은 국제천선전람관의 푸른 지붕

품어줄듯 그 지붕아래에 들어서니
인류의 지성과 정성 여기에 다 있고

어제와 오늘 래일이 다 있어
온 세계를 다 안아보는듯

걸음걸음 느끼는 생각이여
우리 수령님 제일이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다!
우리 조국이 제일이다!

아, 향산아 묘향산천아
너 세상 천하명산으로 이름 떨친것은
천상천하 절세위인들의 빛나는 한생이
너를 품어 안아 가꿔주었기때문 아니라!

— 묘향산에서 —



침묵



김 달 수

아득히 길게 뻗은 두줄기레루가 눈부신 겨울해빛 아래 은빛으로 반짝이었다.

한낮의 고자누룩한 정적속에 침묵을 쉼새듯 하나하나 밝으며 철도정복을 입은 두사람이 걸어가 고있었다.

한사람은 거의 40여년간 이 구간의 철길원으로 일해온 학성이었고 다른 사람은 철도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갓 철길원으로 배치되어온 아들 철남이었다. 학성은 지금 그에게 자기의 담당철길구간을 인계하는중이다.

《이 구간은 해토나 장마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저 벼랑에서 돌들이 굴러내려올수 있거든.》

12월의 날씨는 찼다. 벌판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철길쪽을 따라 곧장 날아들었으나 학성은 전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듯 했다. 그는 이따금 서서 자기 인생의 전부이기도 한 철길을 감회깊은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아들도 아버지의 시선을 따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는 나이가 많은지라 어차피 이 철길과 헤어져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그였다.

문득 정적을 깨뜨리며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어 철길원이 되었어요?》

그 물음에 학성은 한동안 잠자코만 있었다. 잠시 후 학성은 되물었다.

《음... 그런데... 그걸 왜 묻냐?》

《...》

《혹시... 철길원이 된걸 후회하는건 아니냐?》

아들을 돌아보며 학성이 하는 말이였다.

《아니... 그런게 아니라...》

학성은 머리를 끄덕였다. 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김일성**민족의 100년대가 새로이 시작

되는 이 벅찬 시기에 들끓는 현실속에서 위훈을 세우고싶은 욕망이 아들이라고 어찌 없으랴.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가 중요하다.》

학성은 심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는 묻는듯 바라보는 아들의 낯빛을 바라보며 인차 입을 열지 않았다.

길게 뻗은 철길끝이 아지랑이속에 아물거렸다.

두눈을 찔프린채 그쪽을 바라보는 학성의 얼굴에 하많은 사연을 안고있는 과거의 나날들이 비낀듯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1

평양에서 남쪽으로 뻗은 철길을 따라 려객렬차를 타고 한시간정도 달리느라하면 오른쪽으로 뻗은 교차점이 있다. 철의 도시로 가는 지선이다.

거기에서 한 30분쯤 걸어가느라하면 퍼그나 길어 보이는 철다리가 나진다. 기둥이 열두개씩이나 되는 검란교라고 부르는 이 철교는 어느때는 강바닥에 자갈과 모래만 앙상하다가도 눈석 이때나 장마철이 되면 순간에 불어나 시뻘건 흙탕물이 철교밑으로 사뭇치며 흘러내린다. 아마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은것 같다.

바로 여기가 기동대원인 학성이 담당한 철길구간이다. 지금 그는 5월의 따가운 해볕아래서 땀을 흘리며 철다리 보조기둥을 쌓고있었다.

학성은 어깨에 또 한정의 나무침목을 메고와서 기둥우에 올려놓고 큰술을 내쉬었다. 얼굴에서 흘러내리다 턱밑에 매달려 대롱거리는 땀방울을 손바닥으로 뺨 훑치니 그만에야 손에 묻었던 검은 기름이 시꺼먼 얼룩무늬를 새겨놓았다.

학성은 손수건을 꺼내 대충 닦고나서 아물거리는 눈을 들어 이제 더 세워야 할 보조기둥의 개수를 어렵짐작으로 세어보았다. 다리경간이 넷이니 아직 세개가 남아있다. 이제 이를밖에 남지 않은 이달중으로 그것들을 다 세워야 한다. 그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가느다란 한숨이 새어나왔다.

자기가 너무 경솔하게 기동대에서 제일 힘든 구간인 이 철다리를 담당하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었다. 대장이 자기에게 이 구간을 맡길 때 심사숙고했더라면 좋았을걸...

제2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온 나라가 부글부글 끓고있던 지난해였다.

철도국에서는 철길을 현대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청년들로 기동대를 조직하였다.

대원들은 학성이처럼 나이가 모두 스무살안팎이었다. 기동대대장만이 오십을 좀 넘을가말가한 나이인데 그는 중학교(당시)때 자기와 한책상에서 공부한 광실의 아버지였다.

그는 체구부러가 요란했다. 얼굴색이 시꺼멓고 눈섭도 류달리 짙은 그가 철길우를 걸어갈 때는 정말 기관차가 움직이는것 같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좀처럼 웃을줄 모르는 대장은 일도 기관차처럼 완강하게 내민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기동대가 조직되었을 때 그는 학성이며 대원들을 데리고 담당구간의 긴 철길을 모두 도보로 걸었다. 그리고는 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여기가 지선이라고 철길강도 높이는 일을 소홀히 한게 분명해. 확실히 본선철길과 차이 나거던... 음, 하긴 그래서 우리를 여기로 보냈겠지. 자, 동무들, 이제는 우리가 이 구간을 맡았으니 한번 본때있게 해보지요.》

그리고는 앞에 서있는 학성의 어깨를 툭 쳤다.

《학성인 이 구간을 잘 알지? 아버님도 여기서 일하셨고... 어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기를 본때있게 꾸려보지 않겠나?》

대장의 말에 학성은 어깨가 으쓱해졌다. 대장이 한때 아버지에게서 철길원전습을 받았다는것을 알고있는 그였다. 그러니 대원들앞에서 자기를 내세워주려는 마음도 있는것 같다. 학성은 병긋 웃으며 힘있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알았습니다.》

그때 대장은 그 깊이를 알수 없는 웅심깊은 눈으로 학성을 바라보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일에 흥미가 없어진다. 다른 동무들은 자갈다짐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들을 가지고 흥타령을 부르며 일하고있는데 자기는 하루종일 다리위에 매달려 일한다. 해놓은 일은 또 눈에 잘 띄우지도 않는다. 달리는 기차바퀴처럼 뱅글뱅글 돌아도 일감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만 났다. 그런데도 대장은 하루작업을 총화할 때마다 칭찬 한마

디 없다. 오히려 이따금 작업장에 나타나서는 매번 혼시질뿐이다.

《검사차를 타고가면서 보니 여기 철길이 령점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큰 자갈들이 저렇게 기둥옆에 있으면 장마철때 위험해.》

《저 시커먼 물이끼들을 보라구. 손님들이 우릴 뭐라고 하겠나.》

어휴, 생김이 기관차같다더니 성미도 그저 내밀 줄밖에 모른다. 게다가 대장은 올해에는 큰 장마가 예견된다며 다리기둥옆에 보조기둥을 세우라고 다 그어낸다. 그래서 학성은 지금 보름째나 침묵을 안고 씨름질이다.

할수 없지. 학성은 한숨을 후 내뿜고나서 일어섰다.

기동우에 올라선 그는 허리에 찼던 망치를 꺼내 들었다. 우물 정자로 쌓은 침목들을 꺾쇠로 고정시켜야 했던것이다.

고요하던 강변에 마치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몇번 울리던 그 소리마저 그만에야 툭 끊기었다. 망치날이 자루에서 쏙 빠져 물속에 침병 빠져버렸던 것이다. 학성은 맹랑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손에 쥔 자루만을 멍히 바라보다가 기동에서 내려 기슭으로 다가갔다. 허리치는 맑은 물속에서 몽툰한 망치대가리가 자기를 조소하는듯 흔들흔들하며 올려다본다.

두다리를 걸어올리고 물속에 들어서던 그는 다시 물녘으로 나왔다. 물이 너무 깊었던것이다.

웃옷을 와락와락 벗는데 갑자기 철다리가 쿵쿵 울리기 시작하였다.

순간 그의 두눈이 반짝거렸다. 통근렬차가 지나갈 시간이었던것이다. 렬차가 지나갈 때마다 학성은 철길옆에서 기관차에 손을 저어주곤 하였다.

그러면 기관사들은 화답하듯 길게 기적을 울려주었다. 그때마다 학성은 마치 자신이 기관차를 몰고 달리기라도 하는듯 마음이 봉 뜨군 하였다.

그 쾌감을 맞볼 시각이 다가오고있는것이다.

학성은 허둥지둥 철길뚝을 뚫아올랐다. 덤벼치는 속에서도 머리속으로는 다가오는 렬차의 거리와 자기가 철길옆에 올라서는 시간을 정확히 타산하고있었다. 그런데 일이 안될 때라 아차하는 순간에 한발이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말았다. 그 바람에 머리위의 정모가 뺨데그르 굴러가버렸다. 하여 학성은 상상으로나마 기관사가 되어보는 순간을 아쉽게도 놓쳐버리고말았다.

그는 락심하여 철길뚝밑에 서서 연출연줄 지나치는 객차들을 바라보았다. 활짝 열려진 창문으로 길쭉한 얼굴, 둥근 얼굴, 하얀 얼굴 등 다양각색의 모습들이 그에게 시선을 돌린다.

아쉬운대로 학성은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었다.

이때였다.

저쪽에서 차창밖에 상반신을 내밀고 주변경치를 부감하던 처녀가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다 그를 보더니 손을 쳐들며 방긋 웃었다.

학성의 손은 툭 굳어져버렸다. 철도전문학교에 간 중학교동창생인 광실이었던것이다. 순간 그의 얼굴은 녹슨 레루빛이 되어버렸다. 광실이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것이 부끄러워진 학성은 손에 쥐고있던 정모를 슬그머니 뒤로 감추며 고개를 돌려 못 본척 하고말았다.

잠시후 학성은 다 지나가버린 러객렬차의 쾅무니를 멍청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렬차는 철교우를 지나며 경쾌하게 기적을 울렸다.

힘겹게 철길독을 오르는 학성에게는 저 멀리 사라지는 렬차가 아물아물하게 보였다.

힘들게 철길옆에 올라선 학성은 그만에야 레루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철길우로 아물아물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있었다. 새파란 하늘에서 이름모를 한마리의 새가 렬차가 사라진쪽으로 살같이 날아갔다. 자유로이 날아가는 새와 아물거리는 아지랑이들을 학성은 부럽게 바라보았다. 그것들이 지금 자기를 놀려대는 것만 같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만 하여도 그는 앞날에 대한 희망과 포부가 남달랐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족배는 웬일인지 바라는 항구가 아니라 반대편 기슭으로 그를 사정없이 떠밀었다.

결국 아버지처럼 자갈과 침목을 다루는 철길원이 되었다.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학성은 두줄기철길을 떠반든 침목이 되리라 결심도 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가를 학성은 지금에 와서 새삼스레 깨닫고있었다.

아무리 일하여도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명예도 보수도 없다. 정말 침목처럼 레루밑에 깔린 보이지 않는 인생이다. 피끓는 청춘의 시절에 이렇게 살수야 없지 않는가.

허무한 생각에 잠긴 그는 다시 일터로 갈 생각도 있고 하냥 앉아만 있었다.

2

학성이 고등중학교(당시)를 졸업할 때 있는 일이었다.

《앞으로 학성동문 무엇을 하겠어요?》

학교에서 마을로 나란히 걸어오던 길에 문득 광실이 걸음을 멈추며 물었다.

학성은 가슴을 짝 펴며 대답했다.

《난 인민군대에 나가 비행사가 되겠어. 그래서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툭툭히 지킬테야. 선생님도 물었을 때도 그렇게 대답했어. 언제?》

학성은 광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광실이는 무

슨 생각을 하는지 뵈죽한 신발끝으로 땅바닥만을 헤집고있었다.

《왜 그래? 믿어지지 않아?》

그러자 광실은 속눈썹이 길다란 눈을 치뜨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인민군대에 탄원하겠다는 동무의 결심은 훌륭해요. 그러나...》

학성은 놀라 눈이 둥그래졌다. 자기의 말을 들으면 그가 크게 기뻐하리라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러나라는건 또 뭐야?》

《동무의 가정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두줄기 철길을 지켜온 철도일꾼들이 아니나요. 그러니 동무가 설 자리는...》

《나도 우리 부모들처럼 철길원이 되라는거야?》

광실의 말을 밀막으며 학성은 큰소리로 물었다.

《...》

《아니, 난 한생을 철길의 침목같이 살아오신 아버지처럼 살고싶지 않아.》

호— 하고 광실은 가늘게 한숨을 쉬었다.

그를 내려다보며 학성은 다짐하듯 말했다.

《난 꼭 비행사가 되어 저 하늘을 날테야. 그때 동무는 나에게 손이나 저어달라구.》

그리고는 성이 나서 혼자 씨엉씨엉 걸어가고말았다.

그러나 일은 그가 생각하는것처럼 되지 않았다. 졸업식을 며칠 앞둔 어느날 담임선생이 철도일군과 함께 교실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그 일군이 몇명의 학생들에게 철도기능공학교로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철도는 군대와 같습니다. 중요성으로 보아도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판입니다. 그래서 동무들의 책임이 중합니다.》

모여선 학생들이 술렁거렸다.

그러자 그는 매 학생들의 얼굴을 눈여겨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동무들의 부모들은 한생을 철도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동무들이 굳건히 이어가야 할게 아니요.》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학성은 당혹한 마음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싶은 심정이였다. 학교에 그리고 온 철도 지구에 인민군대에 나가 영웅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버지처럼 평범한 철도정복을 입고 나타나게 된것이다.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학성은 생각하였다.

몇달후 철도기능공학교를 졸업하고 배치받으러 갔을 때였다.

얼굴색이 류달리 하얀, 까만 철도제복과 뚜렷이

대조되는 해맑은 얼굴의 담당부원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음, 팬잖아. 훈련소에서 군대와 같이 단련된 게 알리누만.》

학성의 림름한 체격을 바라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하는 말이었다.

학성은 그에게서 따뜻하고 친근한 인정미를 느꼈다.

《동무가 검탄교에서 순직한 철길원의 아들이구만.》

그가 문견철을 뒤적이며 하는 말이었다. 마치 자기를 큰 공로자의 아들처럼 보여주는 부원앞에서 학성은 무안함을 어쩔수 없었다.

《아버지가 한생을 철길원으로 일했다니 정말 대단하오.》

빙그레 웃으며 하는 부원의 말에 학성은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아버지의 한생이 대단하다고 생각해본적은 없었다. 아버지에게는 훈장도 철도복무영예훈장 1급과 공로메달 몇개가 전부이다.

그의 침묵을 제 나름으로 리해한듯 부원은 또다시 다정하게 말했다.

《난 동무도 부모님들처럼 살리라고 민소. 그래 어디에 가겠소?》

그의 믿음어린 시선을 느낀 학성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제일 어렵고 중요한 부문에 보내주십시오.》

학성에게는 제판의 속궁냥이 있었다. 철도에서는 기관사가 제일이다. 하늘의 비행사는 못되어도 땅 위의 《비행사》가 되려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이 리해성 많고 아량이 넓어보이는 담당부원은 분명 내 마음을 알아줄것이다.

그러나 파견장을 받아든 학성은 순간에 다리의 맥이 스르르 풀리는것을 느꼈다. 거기에 씌여진 다섯글자가 아프게 눈을 찔렀다.

《사고복구대》

《어떻소?》

또다시 친절하게 묻는 담당부원에게 학성은 겨우 머리를 들고 힘들게 물었다.

《사고복구대가 철도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철도에서는 모든 직업이 다 중요하오.》

이렇게 말한 그는 사고복구대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러나 학성의 귀에는 담당부원의 말이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잠시후 학성은 터벌터벌 방을 나오고말았다.

알고보니 사고복구대란 사고가 생겨야 일감이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도 뭐 철도에서는 모든 부문이 다 중요하단구?

그후 학성은 철도국에서 청년들로 기동대를 못는다는 소식을 듣자 제일먼저 손을 들었던것이다....

《아니, 고장난 화차처럼 왜 한자리에 앉아있소?》

머리우에서 울리는 목소리에 학성은 편뜻 정신을 차렸다.

한손에 수첩을 든 대장이 옆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아마 철길검사를 나온 모양이었다.

《왜 그러오? 무슨 일이 있었소?》

의아해하는 대장에게 학성은 엉거주춤 일어서며 어지러워진 손에 든 정모를 내밀었다.

《이건 뭐요?》

대장의 두눈에 놀람의 빛이 어렸다.

《철길원에 대한 표창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대장의 눈빛이 놀람으로부터 의혹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축소(바퀴에 불이 달린 화차)났구만.》

대장은 알만 하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옆에 앉았다.

《대장동지, 한가지 제기할수 있습니까?》

《뭐요?》

대장의 별스레 긴 눈섭이 쭈그렸다. 그밑에서 어글어글한 두눈이 학성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절 기동대에서 내보내주십시오.》

《그래 어딜 가겠소?》

《전 기관사가 되고싶습니다.》

《음-》

그의 눈섭이 썰룩거렸다. 그러나 두눈은 여전히 까딱하지 않는다.

《저도 철길원으로 한생을 살아온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기동대원이 되려고요.》

대장은 머리를 끄덕였다.

학성은 그것이 좋다는건지 나쁘다는건지 알수 없어 영치를 들썩거렸다.

《그러나 전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입니다. 짧은 시절에 한번 크게 이름을 내고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야...》

《그러니 철길원은 자기 자리가 아니란 말이지...》

대장은 두툼한 입술을 삐죽하더니 굵은 손가락으로 불을 쓸쓸 문질렀다.

《내 로동수첩에 직업란이 새까만 녀석치고 제구실하는것 못 봤어.》

대장은 이 말을 통명스레 했다. 그리고는 금새를 타진해보는듯 학성을 올리훑고 내리훑고하였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서는 어디 가도 큰일을 못쳐.》

학성은 대장곁으로 바투 다가앉으며 간절히 말했다.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봐서라도... 대장동지는 철도국 일꾼들이랑 그리고 대렬파도 꼭

깨고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나를 기관사전 문학교에 추천하든지 아니면 기관차대로 조동시키는것쯤은 식은죽먹기일겁니다.》

《아버지말은 꺼내지 말게.》

대장의 짙은 눈섭이 다시 쫓겼했다 내려앉았다. 아니, 바르르 떠는것 같았다.

학성은 그러한 대장의 얼굴에서 서운함과 동정의 빛을 읽었다.

《좋네.》

움쭉 자리에서 일어난 대장은 손에 든 수첩을 탁탁 털었다.

학성은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설사 승낙한다 해도 허파에 바람만 찼다고 한바탕 꾸짖을줄 알았던 그가 너무도 쉽게 응하는 바람에 병병해졌던것이다. 철도에서는 철길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던 대장이었다.

몇걸음 옮기던 대장이 다시 돌아섰다.

《저녁에 내 방에 들리라구. 평정서를 써주지.》

《알았습니다.》

철길우에서는 여전히 아지랑이들이 피어오르고있었다. 학성의 마음도 아지랑이처럼 파아란 하늘가로 동실동실 날아올랐다.

3

저녁일찍 집으로 퇴근하는 학성의 발걸음은 날듯이 가벼웠다.

기동대일이 바쁜데도 있었지만 기쁘게 해드릴만한 이야기거리가 없어 한주일째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만나보지 못한 그였다.

오늘은 일요일이다. 래일은 대장이 써준 평정서를 가지고 상급기관에 가야 한다.

낮에 기별을 했으니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해놓고 기다릴것이다.

저앞에 마을이 보였다. 집집의 굴뚝들에서 피어오르는 알싸한 저녁연기를 들이키니 류달리 감회가 깊어졌다.

철도지구의 마을풍경은 류별나다. 농촌에서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일어나지만 여기에서는 기적소리에 맞춰 온 마을이 잠을 깬다. 그리고 집집마다 《이 녀석아, 통근차기적이 울린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잠자리에서 꾸물거려.》하는 말이라든가 《여보, 빨리 서둘러야겠소. 이제 저 삼정고개를 넘는 기적소리가 울릴게요.》라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학성의 집은 철길에서 제일 가까운 첫번째줄 첫집이다. 그래서 열차가 지나갈 때면 온 방안이 쿵쿵 울리곤 한다.

언젠가 주택보수사업소에서 집이 철길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하여 옮겨지으려고 한적이 있었다.

그때 학성의 아버지는 성이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너희들은 철길원자장가도 모르냐? 차바퀴소리를 들어야 철도사람이지.》

아버지는 정말 철길밖에 몰랐다. 무슨 쇠붙이나 철관조각을 보면 《이건 페루를 고정시키는 볼트소 재감이로구나.》 아니면 《요건 자리고정쇠를 만들면 좋겠구나.》했다. 그리고 한뼘짜리 나무토막을 보면 《이걸 빠개면 침목췌기감으로는 그쳐그만일 것 같다.》하고 말하곤 하였다.

그래서 집마당에는 항상 이쪽에는 파철무지가, 저쪽에는 나무토막들이 무저있곤 하였지만 어머니는 항상 불쏘시개감이 없어 찼찼 매곤 하였다. 이런 철길원가정이라 학성이라도 어렸을적에 호각이며 기발, 견장 등을 장난감으로 가지고놀며 컸다....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한구석에 있던 어머니가 반겨맞았다.

《오늘은 웬일이냐. 시간을 다 내구?》

아들을 바라보는 주름잡힌 어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그 모습은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올 때 맞이하며 짓던 그 웃음과 신통했다.

《어머니가 보고싶어서요.》

이렇게 대답하며 학성은 나무토막들이 무저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아마 어머니는 침목췌기감들을 만들고있었던것 같았다.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와서도 변함없는 어머니다.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예요.》

빙그레 웃으며 학성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기적소리가 어머니에게 시간은 잘 대주면서 요일은 알려주지 않는 모양이지요.》

자기의 어린시절이 생각키워 하는 말이었다.

《녀석두.》

고즈넉하던 마당에 모자의 웃음소리가 차넘쳤다. 이제는 스러지기 시작한 저녁노을이 그들을 붉은색으로 감쌌다.

《갈 때 저 췌기감들을 좀 가져가거라.》

어머니는 토막친 나무무지들을 가리킨다.

《많지 못하다. 어제 이곳 철길소대에 한짐 지워주다니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남편과 자기가 일하던 초소에 선 아들에게 항상 그 무엇인가 보탬을 주고싶어하는 어머니다.

《지금은 콩크리트침목이 많아 췌기가 그닥 필요없어요.》

어머니가 하던 일감을 둘러보며 학성이 시답지 않게 하는 말이었다. 그리고는 한쪽구석에 놓인 나무 오래 써서 등이 움푹 패인 칼등을 만져보며 물었다.

《망치는 없어요?》

《네것은 어떻게 했니?》

아들의 혁띠에 항상 매달려있는 망치집이 빈것을 본 어머니가 묻는 말이었다.

《잃어버렸어요.》

흥심없이 대답하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서운한 빛을 띄웠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그 망치에는 남편과 자기의 땀이 스며여있는것이다. 하지만 인차 낮색을 달리 하며 어머니는 말했다.

《배가 고프겠구나. 합숙밥으로야 성이 차지 않지.》

그리고는 몸을 돌려 성급히 부엌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허우대가 큰 아버지를 닮아 아들도 밥량이 많은줄을 잘 아는 어머니였다.

《괜찮아요. 배가 출출한건 참을수 있는데 일이 따분한건 정말 못 참겠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자 학생은 투정질하듯 속에 쌓였던 울분을 터놓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뜻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듯 그 자리에 우뚝 서버렸다. 천천히 돌아서는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하였다.

《철길원일이 따분해?》

《그럼요. 지금 저 검란교에 보조기등을 세우는 데 하루종일 침목을 다루고나면 온몸이 온통 검댕이가 되어버려요. 글썄 오늘 낮에는...》

어머니의 표정은 아랑곳없이 학생은 그냥 제 말만 늘어놓았다.

아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어머니는 마주친 두손을 자꾸 헛비볐다. 나무토막들을 조각내다 얻어맞은 손가락들이 이제야 아파나는 모양이다.

철도제복을 입었으니 아들도 남편처럼 자기 자리를 곳곳이 지켜갈것이라고 생각해온 어머니는 마음이 아픈듯 이마살을 찡그렸다.

《그래서 저는 기동대에서 나오려고 해요.》

어머니의 눈이 둥그래졌다.

《철길원일을 그만둔단 말이나?》

《예. 난 이제 기관사가 되겠어요. 내가 기관사가 되면 이 철길을 오가며 길게 기적을 올리겠으니 그때 어머니는 꼭 대문앞에 나와있어야 해요.》

학생이 성수가 나서 말하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듯 의아한 표정으로 되묻는다.

《정말 철길원일을 그만두겠니?》

《그래요. 대장동지도 내 결심을 승인했어요.》

《대장이 말이나?》

《그럼요. 그러니 어머니는 이제부터 나무토막을 빠개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한생을 침목처럼 철길에 바쳤는데 이제는 편히 쉬어야지요.》

한동안 말이 없던 어머니는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난 지금처럼 사는게 좋다. 그리고 너도 철길원일을 하는게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무 일이나

정불일타이러는데... 자꾸 일자리를 옮기면 뿌리를 박지 못하는 법이다.》

《어머닌 내가 아버지의 뒤를 잇지 못할가봐 그러는데 걱정마세요. 기관사도 철길원도 다 철도사람이니까요. 이왕이면 기관사가 되는게 좋지 철길원이 되어 침목처럼 썩겠어요?》

《뭘, 침목처럼 썩는다고?》

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왜 그래요? 어머니.》

그때에야 어머니의 기색을 알아본 학생이 당황해하였다. 부축해주려는 아들의 손을 밀어버리며 어머니는 토방우에 주저앉았다.

《어디 아파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또다시 도리머리를 저었다.

《기동대에는 언제 가겠냐?》

갑자기 돌변한 어머니의 태도에 학생은 의아해졌다.

《인차 가야 해요. 대장동지를 만나러... 그런데 어머니가...》

《가거라.》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다.

《내 걱정은 말고 어서 가거라.》

그는 아들의 등을 떠밀었다.

학생은 마지못해 일어섰다.

철길을 따라 걸으면서 학생은 자기의 말을 듣고 심란해하던 어머니의 표정이 어려와 마음이 개운치 않았다.

어머니는 자기의 한생을 철길에 바치고서도 왜 지금도 철길을 잊지 못해하는가.

앞에서 열차가 질풍같이 달려왔다. 학생에게 찬바람을 확 들쐫으며 기관차는 지나쳤다. 가랑잎 하나가 바람에 날리워 저 멀리로 날려가는것이 보였다. 그것을 바라보는 학생의 마음은 쓸쓸하였다.

4

다음날 아침 철도국에 가기 위해 학생은 열차에 올랐다.

차창밖은 뿌연 우유빛안개속에 잠겨있었다. 달리는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전주들과 저 멀리 산발들도 흐릿한 물속에 있는것 같다.

바라던 소원을 성취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번거로웠다. 차창가에 대장과 어머니의 얼굴이 번갈아 비끼며 철길원일을 그만두려는 자기를 찌뿌둥한 눈길로 바라보는것만 같았다.

열차가 몇어서자 학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 학생동무!》

그가 고풍에 내려서는데 갑자기 앞에서 한 처녀가

반색했다. 광실이였다.

광실은 반갑게 말을 건넸다.

《철길기동대원이 되었던군요. 축하해요.》

처녀의 말에 학성은 이마살을 찌프리며 되물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요?》

《철도국에요.》

그때야 학성은 그가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배치 받으려 한다는것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여기 분국에서 오래 복무했으니 안면이 넓어 자기 딸을 분명 좋은 부문에 배치할것이라는 생각이 학성에게 언뜻 들었다.

《그래 어딜 가려고 하오?》

《저도 학성동무처럼 기동대원이 되려고 해요.》

학성은 자기 귀를 의심했다.

《정말이요?》

《그럼요.》

의아해하는 그에게 처녀는 사연을 설명했다. 자기를 철차원이나 안내원으로 배치하려는걸 철길원으로 배치해달라고 제기했다는것이였다.

《전 꼭 기동대원이 되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왜 꼭 기동대원이 되려고 하오?》

날씬한 처녀의 몸매를 훑어보며 학성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자기같은 청년들도 힘겨워하는 일을 그가 자진하여 하겠다고 하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철도에서 철길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철길원이 아니나요.》

그의 말에 학성은 아래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

《아버지가 철길원이라고 자식들도 꼭 철길원이 되어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아버지가 그걸 아오?》

《뭘 말이에요?》

《동무가 기동대원이 되려고 한다는걸 말이에요.》

《아직 몰라요. 이제 파견장을 가지고가서 깜짝 놀라게 할래요.》

학성은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별스레 숙성한듯은 처녀의 해맑은 얼굴에 속눈썹이 류달리 긴것이 한눈에 안겨왔다. 그 류별나게 길면서도 살짝 말려올라간 속눈썹이 검은 눈을 더 짙게 해보였다.

(아버지를 닮았구나.)

문득 학성은 광실이가 몇년어간에 키도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한듯 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길을 받아 처녀는 살쭉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들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학성의 가슴은 드세게 방망이질을 하고있었다.

자기가 기동대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이때 처녀

는 기동대원이 되려고 하는것이다. 혹시 대장이 자기대신에 딸을 그 자리에 세우려고 결심했는지 모른다. 그러자 본의아니게 처녀에 대한 죄책감이 온몸을 휩쌌다.

그들이 철도국 정문접수에서 수속을 하고 들어가니 대기실에 벌써 네댓명의 철도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주련이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학성이와 광실이도 순서를 지켜 맨뒤에 가앉았다. 잠시후 손에 문건을 든 담당부원(학성에게 파견장을 쥐여준 그 사람이였다.)이 방에서 나왔다. 주변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처녀를 띄어보고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아니, 광실동문 또 왔소?》

그 말에 광실이 얼른 일어서며 말했다.

《전 꼭 기동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절대로 여길 뜨지 않겠어요.》

아무지게 내쫓는 처녀의 말에 입이 쓰거운듯 돌아서던 그가 학성을 보자 알은체를 했다.

《아, 그때 그 기동대원동무로구만. 반갑소. 그때 어떻게 왔소?》

영거주춤 일어난 학성은 열결에 대장이 써준 평정서를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든 부원이 말했다.

《어찌했소, 순서야 지켜야지. 좀 기다리요.》

그가 들어가자 맨앞에 앉았던 기관사정보를 쓴 철도일군이 학성에게로 다가왔다.

《기동대원이라지, 어느 구간을 맡았소?》

학성의 대답을 듣자 그는 무동 반가와하였다.

《내 낮이 익다 했지. 난 기관사요. 그 구간을 달리면서 항상 동무들을 고맙게 생각하고있소. 철길원들이 철길을 든든히 지켜주기때문에 우리 기관사들이 마음놓고 쉿쉿 달리는게 아니겠소.》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말이 옳다는듯 머리들을 끄덕였다.

《자, 저기 내 자리로 가서 먼저 일을 보오.》

기관사가 이렇게 말하며 등을 떠밀자 학성은 당황해하였다.

《아니, 일없습니다. 전 사사로운 일때문에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변명했으나 기관사는 막무가내로 학성을 자기 자리에 앉혔다. 송구스럽게 그 자리에 앉은 학성은 자기를 부러워하는 눈길로 바라보는 광실을 얼핏 띄어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때 담당부원이 다시 나타났다. 맨뒤에 앉았던 학성이 앞에 있는것을 본 그는 사연을 짐작한듯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동무가 바로 검탄교에서 순직한 철길원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하였다. 그들모두가 학성의 아버지를 아는듯 하였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애국자지.》

《그러니 아버지의 뒤를 아들이 이었구만.》

《정말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며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앞에서 학성은 어찌할바를 몰랐다.

담당부원이 말했다.

《자, 방에 들어가지요.》

학성은 바빠났다.

《아닙니다. 전 그저...》

이렇게 얼버무린 그는 황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정문밖까지 쫓기듯 나온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철도국청사의 2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일도 참 묘하게는 된다. 이제 다시 찾아들어가 철길원이 싫다고 말할수도 없지 않는가.

호미난방의 신세가 된 그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에야 드디어 모든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5

학성은 지금까지 애국자라면 큰일을 하여 나라에 소문을 낸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고귀한 칭호라고만 생각해왔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웅도 아니고 요란한 훈장도 없는 자기 아버지를 애국자라고 부른다. 그가 알건대 아버지는 한평생 담당구간의 자갈과 침목만을 사랑해온 너무도 평범한 철길원이었다. 이런 사람이 애국자라면...

이런 생각에 잠긴 학성은 언제 집에까지 왔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집은 비어있었다. 학성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웬간해서는 집을 비우지 않는 어머니였다.

잠시후 그의 걸음은 철길로 향해졌다. 앞에 검탄교가 바라보였다. 그리로 다가가던 학성의 두눈이 둥그래졌다. 다리밑에서 침목을 나르는 사람들을 보았던것이다. 웬 사람들일까. 바빠 걸어가던 그는 우뚝 서버렸다. 그들은 다름아닌 어머니와 광실이었던것이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하였는지 다리밑에는 벌써 하나의 보조기둥이 거의다 쌓여져가고있었다.

무겁게 침목을 나르는 어머니의 가쁜히 차려입은 정복은 화락하니 젖어있었다.

황급히 달려간 학성은 어머니가 들려고 애쓰는 침목을 잡아당겼다.

《어머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옆에 있던 광실이가 학성을 보자 반색했다.

《왜 이제야 와요? 난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

《전 여기 기동대로 파견장을 받았어요. 그래 한달음에 달려와 아버지에게 보였더니 이제부터 한주일동안 학성동무에게서 철길원전습을 받으라는

게 아니겠어요?》

《대장동지가 정말 그렇게 말했소?》

《그럼요.》

학성은 엉큼한 대장의 얼굴을 그려보았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리라 생각했었구나.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얼굴에 혼연한 기색을 띄웠다.

《오늘부터 나도 기동대원이 되련다. 내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오긴 했다만 아직 철길작업에는 자신있다.》

학성은 눈앞이 아찔했다.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렸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아프지는 않을것이다.

(나때문에 몹시 노하셨구나.)

그는 어머니를 보기가 민망스러워졌다.

《어머니도 참.》

대답이 궁해진 학성은 이렇게 얼버무리며 침목을 험하니 둘러댔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이 일만 했다. 잠시후 그들은 또 하나의 보조기둥을 세울수 있었다.

《어머니, 좀 쉬고 하시지요.》

광실이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끌어 강변의 자갈밭에 앉혔다. 학성이라도 그옆에 자리를 잡았다.

흐르는 물결우에 해빛이 함뿍 내리쬐여 은구슬을 뿌린듯 반짝반짝했다.

《학성아, 내 오늘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마.》

추연한 눈길로 아롱아롱한 물결우를 바라보던 어머니가 하는 말이였다.

학성이라도 광실이라도 어머니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인차 입을 열지 않았다. 아마 흐르는 물결우에 남편과 함께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것을 실어보는지도 모른다.

이윽고 낮으나 담담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물우를 거슬러갔다.

《네 아버지는 이 철길을 무한히 사랑했다. 자갈하나, 침목 하나도 모두 자기의 살점처럼 생각했으니까. 막 시샘이 날 정도였다.

처음에 난 너의 아버지가 왜 철길을 그토록 사랑하는지 다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일년간 네 아버지가 날이 밝도록 들어오지 않아 나는 그일 찾아나섰지.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지 않았는가 하여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더구나.

그런데 다리목에 이르고보니 글썽 네 아버지가 실성한 사람처럼 철길옆에 앉아있지 않겠니. 얼굴에는 온통 눈물자욱이구.

《아니, 여보, 웬일이예요?》

내가 이렇게 묻자 너의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고 나서 두손으로 철길을 쓸어만지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방금 우리 수령님께서 타신 열

차가 이 철길로 지나갔소.) 라고 하지 않겠니.

〈그게 정말이에요?〉 하니 〈정말아니구.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수령님 타신 열차를 무사히 바래드렸단 말이요.〉 하더구나.

난 그때 꿈을 꾸는것 같았다. 글썄 자나깨나 그리워하던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도를 네 아버지가 안전하게 보장해드렸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니.

〈여보, 오늘은 내 한생의 소원이 풀린 날이요. 한생의 소원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 침목을 붙들고 아이들처럼 막 울더구나. 얼마나 행복스러워하던지...

그때에야 나는 네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철길을 그토록 사랑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

그후에도 네 아버지는 이 철길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내가 몸을 돌보며 일하라고 할적마다 네 아버지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여보, 지금 우리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현지도도의 길을 이어가게시는것을 잘 알지. 언제 어느 시각에 그이께서 이 철길우를 지나가실지 어떻게 알겠소. 바로 그 한순간을 위해 내가 있는거요. 난 어느때든 우리 수령님께서 타신 열차를 안전하게 모실수 있다면 한정의 침목이 되어도 여한이 없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옆에 앉은 광실의 어깨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그후 학성이 아버지가 급병으로 먼저 간 후 내가 그 자리에 섰지. 그리고 지금까지 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어가기 위하여 애써왔다. 그래서 네가 철길원으로 내앞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그런데...》

학성아, 옛말에 후생가외라 했다만 난 네가 아버지를 뵈는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그저 아버지처럼 어버이수령님께, 우리 장군님께 충실해오.》

학성은 어머니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수 없었다. 바로 그랬었구나. 어머니는 내가 아버지처럼 두줄기 철길을 든든히 떠받든 침목이 된줄 알구... 그래서 대견해했었구나. 그런데... 그런데... 어머니에게 실망을 주다니...

학성은 눈길을 들었다.

학성의 눈앞에 철교며 아롱지는 물결이며 멀리 마을이 새로운 색깔로 안겨왔다.

이 철길에 깔려있는 자갈 한개, 침목 한정의 의

미가 새삼스러워졌다.

어느 초소에 서있건, 누가 알아주건말건 당과 수령을 위해 사심없는 마음을 바치는것이 바로 애국이라는 큰 의미로 모든것이 부각되어왔다. 그러느라만 사람들에게서 애국자라는 값높은 칭호도 받게 될것이고...

학성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허리치는 물속에 퐁당 뛰어들었다.

《어마나, 왜 그래요?》

급작스런 그의 행동에 깜짝 놀란 광실이가 새되게 소리쳤다. 그러거나말거나 학성은 물속을 자택질하여 손에 망치대가리를 찾아들고 일어섰다.

《그게 뭐예요?》

광실이 아직도 영문을 몰라하는데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들은 일어나 다시 일손을 잡았다. 학성이 침목을 메고 일어서는데 광실이 소리쳤다.

《저기 기동대원들이 와요.》

돌아보니 대장을 선두로 대원들이 이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아마 하루일을 끝내고 그들을 도우려고 달려오는것 같았다.

학성은 달려오는 그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가 지금 침목을 메고 서있는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강성부흥하는 태일을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가는 내 조국을 떠받든 굳건한 침목이 되어 두줄기 철길을 떠받들고있는 앞날을 보고있었다.

×

《지난 세기 70년대에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두줄기 철길을 굳건히 지켜왔다. 나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왔구. 너도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는 영원히 드팀없는 침목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영원한 네 자리임을 잊지 말아라.》

《알겠어요.》

침목우에 선 아버지와 아들은 길게 뻗은 두줄기 철길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부모들의 한생의 땀이 스며있고 이제 그 아들이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끝없이 뻗어간 두줄기 철길우에 아지랑이들이 끝없이 피어오르고있었다.



시대정신을 구현한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창조하자

—올해 상반기 《조선문학》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두고—

박 춘 택

오늘 사회주의조국의 통성변영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어느 역사적시기보다 비할바없이 매우 심오하고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우리 문학은 웅당 사상주체적내용에서 깊이있고 풍부해야 할뿐아니라 예술적형상에 있어서도 보다 새롭고 웅심깊고 독창적이어야 한다.

이런 시대적요구를 구현한 문학은 작가들이 낡은 사상관점과 뒤떨어진 창작기풍, 창작본세와 단호히 결별하고 작품에서 도식성, 류사성, 일반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력적인 탐구를 기울일 때라야 창조될 수 있다. 현실은 작가들이 하루빨리 경직에서 벗어나 인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새롭고 혁신적인 문학의 새 경지를 개척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견지에서 올해 상반기에 창작발표된 단편소설들의 성과를 일반화하고 부족점에서 교훈을 찾는것은 선군시대 인간들의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담은 작품창작을 위해 필요한것으로 될것이다.

1

우리 작가들은 올해 상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첫아침에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신년사를 받아안고 백두산대국의 빛나는 영상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빛내여갈 불타는 맹세로 심장을 끓이며 충정의 붓대를 달려 수령형상단편소설문학의 화원에 특색있는 꽃을 피워놓았다.

올해 상반기에 《조선문학》잡지에는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품모를 형상한 작품이 4편 실렸다. 그중에서 한 전사의 천부적인 재능의 짙을 귀중히 여기시고 정쟁한 문필가로 키워주신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을 격조높이 노래한 단편소설 《전선의 밤》(리영환 작, 4호), 온 나라의 토지를 정리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과연 어떤것인가 하는것을 깊이있게 형상한 《대지의 풍경》(황동선 작, 2호), 이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샘줄기들이 우리 장군님의 심중속에서 하나로 합쳐져 큰 바다로 출

렁인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증한 《사랑의 샘》(최종하 작, 6호)은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살려 인간학적으로 매력있게 씌여진 작품이라고 볼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서도 종자를 깊이있게 심고 주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뜻이 깊은 종자, 생동하게 살아숨쉬는 산인간의 성격, 풍만하고 진실한 생활, 이것은 작품을 인간학으로 만드는 기본요인이다.

앞에서 지적한 작품들은 력사적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그에만 매달리지 않고 한걸음 더 들어가 심오한 인간문제를 안고있는 종자를 깊이있게 심고 그 종자를 통하여 그 사실의 본질을 밝히였으며 생동하고 다양한 세부를 파고들어 그 사실이 실지 생활로 실감있게 재현되도록 형상하고 있다.

단편소설 《전선의 밤》은 인간의 천성적인 재능과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의의있는 종자를 심고 땅크습격조에 자진하여 나갔다가 그만 특공에 관통상을 입어 더는 군사복무를 할수 없게 되었던 사단정치일군 문성룡의 곡절많은 운명을 통하여 인간의 천부적인 재능의 짙은 오로지 그것을 귀중히 여기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만 자라며 훌륭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것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소설은 문성룡의 전망문제를 놓고 마음쓰시는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심리세계를 생동하게 펼쳐보이고 그를 혁명동지로 품어주시고 한걸음이라도 떨어질세라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온갖 소원을 다 헤아려주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세계를 특색있는 생활과 뜻깊은 세부형상으로 감동깊게 보여주고 있다.

심한 부상을 당하고도 죽어도 군복만은 벗고싶지 않다는 문성룡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결심하도록 설득력있게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과정에 보여지는 수령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의 묘사와 그이의 품속에 간직된 문성룡의 딸애의 사진에 대한 세부는 수령님께서 지니

신 한없이 뜨거운 인정미를 정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전사들에 대한 사랑,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아버지수령님의 인간미는 그이께서 지니신 인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분출된다. 소설은 누구보다 인간사랑이 뜨거운 우리 수령님은 언제나 전사들과 인민들을 잊지 않으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후대와 가족들을 위하여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아낌없이 기울이시는 사랑과 정의 위인이심을 감동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확증하고 있다.

단편소설 《대지의 풍경》은 인물관계를 깊이있게 형상하고 측근인물인 농업위원회(당시)부위원장 차정설과 관리위원장 오문석의 체형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주면서 농민들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토지정리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적품모를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부각하고있다. 특히 소설은 선반돌빼기논정리와 관련한 세부를 깊이 파고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격식화하지 않고 진실하고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단편소설 《사랑의 샘》도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에 새겨진 역사적사실에서 심오한 종자를 잡고 그것을 생동한 생활로 재현함으로써 인간학적풍격을 일정한 수준에 올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령장의 평범하고 소박한 인민적품모가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져 장군님의 친근한 모습이 뜨겁게 안겨오도록 형상되고있다. 소설에 형상된 샘물에 대한 세부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여기에는 군인들의 식생활을 두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의 철학이 깔려있다.

한생토록 자식을 위하는 사랑과 헌신의 마라손을 하는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결승선이 없는것은 그들이 누구보다 힘이 세거나 강한 기질을 타고나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자기자신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랑의 샘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쉬임없이 용솟음치고있기때문이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수 없다. 하였건만 어머니들의 그 폭진한 정성을 초월하는것이 병사들에 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지칠줄 모르는 헌신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소설에서 격조높이 울려나오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주장이다.

2

올해 상반기에 우리 작가들은 경직과 도식을 배격하고 참신하고 진취적인 창작자세를 가지고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밝히기 위한 탐구과정에 특색있는 생활형상을 창조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국토애호, 국토중시는 최대의 애국이라는 심오한 종자를 심고 땅에 대한 애착심이 불타는 인간의 참모습을 그려보인 단편소설 《이 땅을 사랑하라》(오광천 작, 5호), 지난날의 경험이나 열성만 가지고서는 오늘의 대고조진군에서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없다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한 《단풍은 붉게 탄다》(최학명 작, 6호)가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이 땅을 사랑하라》는 심각한 극성속에서 독자들이 조국애에 대한 강렬한 예술적감흥을 받아안게 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극성은 무엇보다도 의의있는 인간문제, 심오한 사회적문제성을 놓고 극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속에서 강렬하게 발현되고있다. 작품은 국토를 애호하고 국토를 중시하는 마음의 무게, 열정의 크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총정의 높이, 애국의 높이이며 빛나는 삶의 높이라는 생활의 진리를 국토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립장을 가진 인간들의 대조속에서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관개건설설계사업소에서 일하는 성태는 증지구의 물길을 설계하면서 원암리물길구간을 십여정보의 땅을 잃게 설계하였다. 그는 거창한 대자연공사인데 땅 십여정보가 대수겠는가하는 립장이다. 그러나 한치의 땅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경모에게 있어서 십여정보의 땅을 잃는다는것은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것과 같은 아니, 심장을 후벼내는것이나 같은 도저히 묵새길수가 없는 일이었다.

경모는 아들이 한 설계라고 해도 그것을 긍정할수 없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땅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깃들어있지 않기때문이었다.

국토는 민족의 생존과 나라의 흥망을 조건짓는 바탕이며 국토판리는 부강조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다. 국토에 대한 사랑을 떠나 자기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에 대해 생각할수 있고 조국과 후대에 대한 사랑을 말할수 있겠는가.

이처럼 소설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지향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심각한 운명적인 문제를 사회적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소설에서 땅을 자신의 살점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 청길은 아버지가 아들의 설계를 부정해나섰다고 하면서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땅 몇정보때문에 일을 복잡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한다. 이때 청길에게 하는 경모의 말은 이들의 인간관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자네나 성태는 땅이 없어지든말든 손쉽게

길을 완성하여 명성을 얻으면 그만인 아닌가. 똑똑히 알아두라구. 땅은 천만금을 들여서도 살수 없는 이 하늘아래의 가장 큰 재부야. 땅을 떠난 애국이란 있을수 없어. 내 아들의 행복도 이 땅이 있어 마련되는것이구.》

이 귀중한 땅을 한 개인의 명예를 위해 희생시킬수 없는것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경모와 청길의 적극적이며 행동적인 호상관계가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을 안고 절박하고 심오한 의미를 띠고 극적으로 형상되고있다.

단편소설 《단풍은 붉게 탄다》는 래일로 이어진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진정한 주인이라고 부를수 없다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고향땅의 오늘날이 아닌 래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안고 그 래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연구사 회옥과 당면한 오늘에서 발을 뺄지 못하고 래일을 내다볼줄 모르는 목장 부기사장 학철, 반장 광준의 대조적인 형상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를 특색있게 해명하고있다.

주인공 회옥은 화려한 꽃도 탐스런 열매도 없건만 봄내 여름내 제 한몫을 태워 환희로운 가을을 맞이하는듯 한 단풍나무처럼 고향땅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우는 깨끗하고 불같은 처녀이다. 그가 고향을 떠난것은 현대과학기술의 키를 자래우고 고향에 돌아와 목장을 현대화하고 마을을 선경으로 꾸릴 결심에서였다.

그런데 회옥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한 학철은 그가 고향을 떠날 때 《그러니까 동무에겐 고향이 자기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갓 도중역에 불과했》는가고 하면서 그를 타매하며 광준도 회옥을 고향을 버리고 떠난 철새라고 생각하면서 고깝게만 보아왔다. 이렇게 그들에게 상처입은 추억을 새겨준 회옥이가 고향에 오는것이다. 여기에 벌써 심각한 극이 설정되어있으며 인물들의 관계가 심각한 운명적인 관계로 될것임을 시사해주고있다.

고향을 버리고 떠났다고 타매하던 회옥이가 고향에 와서 목장일꾼들이 인민들에게 고기를 풍족하게 먹이려는 당의 의도에 맞게 경영전략을 잘 짜고들지 못한다에 대한 비판,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잘 할데 대한 발기, 낡은 배합먹이공정해체 등은 박력없고 진취적이지 못한 학철, 광준의 구태의연한 사업태도에 대한 타격이었다. 광준은 회옥의 이런 행동을 두고 굴러온 돌이 배긴 돌 뻘다고 하면서 《회옥이 그 애가 가는 곳마다 말썽》이라고 못마땅해한다. 며칠후 산의 정점에서 광준과 회옥이 사이의 뜻하지 않은 충돌은 광준과 회옥의 인생관의 대결이었다.

광준이가 회옥에게 너는 제 일이나 하고 이곳 일에 참견말고 어서 물러서라고 할 때, 학철이가 쾅

화먹이장치의 부속품문제를 걸쳐 대할 때 제가 안타까운건 부기사장동지나 오빠가 당면한 오늘에서 발을 뺄지 못하고 래일을 내다볼줄 모르는것이라는 회옥의 말은 오늘의 벽한 대진군에서 담보하고 래일로 이어진 뜨거운 마음이 부족한 그들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었다.

소설에서 인간관계는 이처럼 강렬하고 양양된 사상정서적충동을 불러일으킬만큼 굴곡있고 심오하며 그에 따르는 사건전개 역시 강한 극적기대와 흥미를 자아낼만큼 굴곡있고 긴장성을 띠고있다. 소설에서는 인물들의 적극적인 관계가 예리한 사회적문제성을 안고 그것이 깊은 의미를 띠고 극적으로 형상되어 극성이 발현되고있다.

작품은 극성을 추구한다고 하여 그 어떤 요란한 사건을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도식적인 틀에 매달리지 않고 성격과 생활론리에 맞게 생활그대로 자연스럽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은 이러한 주인공 회옥의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자기의 고향을 사랑한다는것은 어디까지나 고향의 인민들과 산천초목을 사랑하며 자기 고향의 인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더 잘살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여 투쟁한다는것임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중에는 소설가의 경직된 미학적관점과 구태의연한 창작자세로 하여 도식과 류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도 있다.

한개 교사포소대의 인원으로 은행나무를 지켜내는 이야기를 담고있는 단편소설 《은행나무》(김창림 작, 4호)는 제기한 인간문제가 새롭지 않고 형상이 도식화됨으로써 정서적감화력을 떨구고있으며 한 녀교원의 수기형식으로 된 《하얀 돛배》(김철호 작, 1호)는 종자를 깊이있게 심지 못하고 단편소설의 형태상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여 생활사실들이 기록주의적으로 라렬됨으로써 형상수준을 떨어뜨리고있다. 그리고 어떤 소설에는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미적지향에 맞게 생활과 투쟁을 진실하게 그리지 못하고 아직도 생활을 과장하고 뜬소리를 하는것도 있었다.

경직을 풀고 도식과 류형에서 벗어난 진실하고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창조하자면 시대와 생활, 인간을 보는 눈, 미학적리상이 달라져야 하며 문학앞에 서는 마음의 잡도리가 달라져야 하며 창작본세가 달라져야 한다. 문학정신이 대고조의 정신으로 높아져야 하며 사색과 탐구가 혁신적인 안목에 기초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낡은 사고관점에서 벗어나 박력있는 진취적인 창작자세로 혁신적인 문학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피타는 탐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조벽암의 시작품에서 시적화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서정은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 정서인것만큼 고유한 특성을 띠기 마련이다.》

시인 조벽암은 정교하고 선명한 시적화폭창조에 자기의 뚜렷한 개성을 심어놓고 거의 모든 시들을 화폭화된 시적세부들로 채색하기에 많이 힘쓴 시인이다.

그는 정교하고 선명한 시적화폭으로 느낌을 대신하였다. 추상적인것, 직선적인것, 선언적인것에 치우치지 않고 구체적이며 섬세한 시각과 포착력을 가지고 매번 새로운 시적화폭을 창조함으로써 생활—현실에 발을 붙인 시인적자세를 언제나 보여 주었다.

시의 시작부터 그는 붓으로 화판에 그림을 그리듯 자연의 혹은 인간생활의 어떤 정경이나 모양, 구체적인 정황을 묘사한다.

이때 그는 큼직한 붓에 듬뿍 색을 묻혀 단필로 그려내기보다는 비교적 작은 붓을 쥐고 붓초리에만 일정한 색을 묻힌 다음 자세를 차분히 가지고 점 하나, 선 하나를 정교하게 그리기 시작한다.

제강 찰호 모퉁이를 돌면
산갈이 쌓인 파첼더미
비록 형태는 찌그러지고
녹은 쓸었어도
술한 이야기가 모여 쌓인 곳—

꾸부러진 철추며
깨어진 치차
튀겨진 우차바퀴며
쭝 떨어진 쇠스랑
그 어느 부엌에서 길들었던 가마나
따뜻한 어린 손길이 아직도 가지지 않은듯
모서리에 남아붙은 메끼도 새로워라
작은 자전거손잡이…

(시 《파첼더미를 넘어》)

마루길만 들이던 손길이
부엌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손길이
빳장만 단을줄 알던 손길이

대문을 활짝 열고 밖으로 나섰다
허리띠 질끈 졸라맨 몸매도 가뜩한데
바람도 시원히 뺨을 스친다

(시 《새로운 손길》)

잘 넣어라
꼭 싸서 넣어라
이것은 우표
이것은 고약
이것은 담배

종이에 쓴것을
하나하나 쥐여주면서
영삼이 형은 일러줬는다

(시 《입대의 아침》)

실례는 시련들은 각각 매 시의 첫 두련들이다. 보는바와 같이 시들은 시작부터 정교하고 선명한 시적화폭들을 보여준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화폭적시행의련속은 매우 중요한 형상의 몫을 가진다.

행과 행사이에 방불하게 그려지는 선명한 화폭들은 화폭 그자체로서만의 의미를 가지기보다 서정적주인공의 심리세계를 대변하는 의미심장한 화폭들로 된다.

다시 되새겨보자.

《꾸부러진 철추》, 《깨어진 치차》, 《튀겨진 우차바퀴》며 《쭝 떨어진 쇠스랑》 등이 려거되었는데 이는 어떤 의미로 부각되는가. 이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에서 우리의 공장과 마을, 농촌이 당한 혹심한 참상의 선명한 반영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이 나라의 공장과 농촌들이 당한 피해상이 철추, 치차, 우차바퀴, 쇠스랑이라는 대상들에 집약되어있다.

그 다음행의 화폭은 비약하면서 새로운것을 보여준다.

《그 어느 부엌에서 길들었던 가마》와 《작은 자전거손잡이》는 순박하고 부지런하면서도 알뜰한 녀인의 가슴속에 뜨겁게 고여있는 복구건설의 지향과 어린 마음에도 제강소 파첼더미에 자기의 작은 자전거손잡이를 보태어 쇠물을 뿔아달라고 요청하는 어린 소년의 다부지고 속깊은 마음을 보여준다.

시 《새로운 손길》도 이와 같은 의미의 련속으로 고찰할수 있다.

생활세부적화폭들을 정교한 필치로 선명하게 그려내는 시인의 남다른 개성은 시의 시작정도에서만 부각되는것이 아니라 시의 중간부, 마감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두드러진다.

다음교대의 신호가 울리자
돌격선을 뚫는 전사인양

화구앞에 성큼 다가선다

(시 《제대압연공》)

그러리라 그날도 그는 반겨주리라
약속한 어린것의 장난감을 사들고 돌아가는
년간계획 앞당겨 이룩한 저녁에도

(시 《별 하나》)

초여름 이른아침
하늘은 툭 띄여
유난히 맑고도 깊어라

(시 《입대의 아침》)

떨거한 시련들은 모두 해당 시의 마지막련들이다.

시창작에서 일부 시인들의 시들을 보면 시의 앞부분에서 시적계기, 시적정황이 될수 있는 세부적 화폭들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서정이 점점 전개되면서 주정토로가 강해진다. 이는 시가 서정의 문학이라는 시문학의 고유한 특성에 부합되게 꾸며지는 시형식이다.

그렇다고 하여 세부적화폭들의 련속으로 전개되는 시형식이 시의 서정성을 파괴하거나 떨어뜨리는것은 아니다. 시의 서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살

리는가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시창작의 주인인 시인자신의 개성에 따르는것이지 반드시 주정토로가 많이 쓰이어서만 서정성을 달성할수 있다는 고정된 틀은 없다.

이런 견지에서 시인 조벽암은 주정토로보다는 의미깊은 세부적화폭들의 련속으로 서정성을 보장한 시인이였다고 특징짓게 된다. 조벽암은 시의 시작에서는 물론이고 중간부분, 마감에 이르기까지 시적화폭들을 지속적으로 련결시키는 방법으로 강렬한 주정토로를 대신하고 시의 남다른 여운을 조성하려고 하였던것이다. 그는 주정토로 그자체를 부정한것이 아니라 정교한 시적화폭들을 련이어 펼치는 방법으로 더욱 강렬하고 실감있는 느낌을 터뜨리었다.

마감에 실려든 《입대의 아침》은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정교하고 선명한 시적화폭으로 그 어떤 강렬한 주정토로보다 더 여운깊은 서정을 남기고 또 그 자체로써 훌륭한 주정토로를 방불케 하는 형상적매력을 보이고있다.

시창작에서 추상적인 느낌을 추상적으로 토로하는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풍만하고 정서적인 생활에 발을 붙이고 정교하고 선명한 회화적화폭을 창조함으로써 시의 서정성을 높인 여기에 시인 조벽암의 주되는 시형상적특징이 있다.

김 향 금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9호 (루계 제791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9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9월 5일

7-36572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37